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부질히 구하는 바 없는
일상의 평범함이
그대로 불법이다.

-임제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석불불상의 모든 것
책임 성심껏 드립니다.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룡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3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 262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민주개혁국민사이버연합에서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효림스님의 명함을 받아보면 한눈에 일반 명함과 다르다고 느낄 수 있다. 효림스님의 명함에는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다. '효림'이라는 법명에다 홈페이지 주소와 천리안 하이텔 등에 개

인터넷시대 박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설된 E메일 주소만이 덩그라니 들어 있을 뿐이다. 명함에 적힌 홈페이지 주소가 민주개혁국민사이버연합의 것이라는 것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확인해 봐야만 알 수 있다. 이렇듯 E메일이 확산되면서 명함의 디자인과 내용도 바뀌기 시작했다.

E메일이 보급되면서 E메일 전문 매거진들도 발행되고 있다. 자체 홈을 가지고 있는 매거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E메일 상으로만 발행된다. 부처님 말씀을 매일 매일 들을 수 있는 매거진도 있다. 다양한 생활정보는 물론 전문 의학 정보, 자동차 정보, 컴퓨터 정보, 육아 정보 등 다채로운 주제의 매거진이 수천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다.

1인 1E메일시대

'아이디=얼굴과 이름'

E메일 주소를 가지게 됨으로써 불자들에게 이로워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불교관련 서적은 대형서점이나 불교전문 서점이 아니고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불편을 E메일이 해소시켜 준다. 불교 신간목록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쇼핑몰의 물건 목록까지도 E메일로 서비스받을 수 있다. 또 불교관련 논문이나 전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서들을 편지보다 빠르게 E메일로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E메일 주소는 어디에서 만드는 것일까. 우선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신비로 넷츠고 등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면 무료 E메일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대표적인 곳이 다음넷(http://www.daum.net)이다. 다음넷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료 E메일 사이트인 한메일넷을 전신으로 하여 지금은 포털사이트로 발돋움했다.

핫메일, 프론트메일 등 외국에서 제공하는 무료 E메일들도 많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무료 E메일을 우선 소개한다. (5면으로 계속)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대상자 선별않고 사면"

정대스님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9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사면실시를 위한 종헌 개정안의 종회 제출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을 것이며, 두번 다시 사면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대스님의 발언 요지.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마하려고 종헌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달라. 의례적으로 내는 개정안이 아니다. 중대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이해해달라. 종회에서 사면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종회의원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번 종회에서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면안만 다루는 종회를 초과일 전에 열도록 의장단에 요청할 것이다. 두 번, 세 번 요청할 것이다. 종회에서 사면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집행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사면을 하지 않으면 종단의 증흥불사고 뭐고 될 일이 없다. 총무원 청사를 새로 지으려해도 화합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

배석한 호법부장 종지스님은 "사면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두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멸빈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한 후 단서를 달아 공직취임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종회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스님도 이날 간담회에서 "종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개회한 중앙종회는 18일 종헌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종회의장단, 총무분과위원,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9일 열고 이번에 상정한 38개 안건을 처리 못하면 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 협의후 신중 처리"

김대통령, 베를린서

유럽 4개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달라이라마의 한국방문에 대해 "서울대 학생회로부터 비자발급 요청이 있으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10일(우리 시간) 베를린 자유대학 초청연설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달라이라마 방한을 허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중국은 달라이라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직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요청받은 바 없었다"며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는 답변은 일을 처리하는데 적절치 못해 직답은 피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 산 지키기' 불자들 앞장

지리산 식수댐 백지화 운동 등 전개

경주 남산 문화재 보존-홍보도 적극

스님과 불자들이 '우리 산 지키기'에 나섰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새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산림지역을 개발하는 등 반환경적인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스님과 신행단체장들은 각종 법회 또는 신행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타종교·단체와 연대를 주도하며 '우리 산 살리기 운동'과 생태보존, 불교유적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15일 창립된 '계룡산 보전 시민모임'(공동의장 장곡·갑사주지)은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하는 계룡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멸종생물에 대한 복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을 방사, 자생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룡산의 야생동물들에게 먹이주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창립된 '지리산 살리기 시민연대'(공동대표 도법·실상사주지)는 지리산의 환경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지리산 삭수댐 백지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도법스님은 올해 안에 매지 5천여평 규모의 친환경농업교육장을 만들어 우리 산과 땅을 살리는 생태농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산림파괴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37개 단위 산악회 회원 3만명을 동원해 '한 산악회 한 산 지키기' 운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행을 통한 포교와 자연환경보호를 통해 청정국토 가꾸기 운동을 지속하면서, 불교문화 창달·보전 및 효사상 전파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www.stonebuddha.com), 신라문화진흥원(원장 진병길), 경주남산사랑모임(대표 김덕수), 신라사람들(대표 최승욱) 회원들은 주기적으로 남산을 답사하면서 등산로 정화, 불교문화재 연구 및 보존, 인터넷 홍보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 가야산 오대산 금정산 회방산 미륵산 가지산 등 사찰환경관련 분쟁지역의 산을 중심으로 한 '큰 산 지키기' 운동도 활발하다.

☞ 2면으로 계속



가신 님 뜻 이어

2월 1일 입적한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보유자 송암스님의 49재가 20일 서울 봉원동 봉원사에서 봉행된다. 49재를 불교전통의식인 영산재로 봉행키로 한 스님의 후학들이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이날 영산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사진=고영배 기자

관람범위·징수방법 '이견'

문화재관람료 토론회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토론회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찰과 스님들의 문화재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공헌 △문화관광부와 환경부 등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문화재 관람 행위의 범위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발제한 이상훈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집행위원장)는 합동징수의 법적 근거 미비, 관람료의 과다 징수, 관람료 자출 내역의 불투명 등의 이유를 들어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측 토론자로 나선 조계종포교원 유지호 과장은 참여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상훈 변호사가 발제문을 통해 주장한 대목을 조목조목 짚어 반박했다.

유 과장은 "공원입장객들이 사찰경내의 문화재를 볼 의도가 없더라도 이를 둘러싼 자연환경, 문화재보호환경에 대해서도 볼 의도가 없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관람료징수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공원 내의 대표적인 사찰을 선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남북법회 합의 '불발'

불추위-조불련 북경회동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와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은 8일 북경에서 만나 부처님오신날 남북합동 법회 봉행과 남북불교도 합동세미나 개최를 논의했으나,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유지원 불추위 사무총장은 "양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노력을 기울여 합동법회와 세미나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팩시밀리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지사 모집합니다

불법홍포의 주역! 현대불교신문이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불교언론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현대불교는 생활 불교의 지혜와 고급 정보를 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는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로 지사·지국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조직망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독자확보와 광고영업의 사업 활동권을 갖게 되며, 불법의 포교사로 좋은 신문을 만든다는 데 큰 긍지를 보태게 됩니다. 각 지역의 체계적인 구독확장과 광고수주를 위해 시·도 단위로 전국 지사를 개설하고, 늘 정진하는 자세로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1. 대상지역
   - 인천·경기, 대전·충청, 대구·경북, 전남·전북, 울산·경남, 강원도
2. 지사의 사업활동 내용
   - 해당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 본사 주최 수익 사업활동 수행
   - 지역 내 취재활동 지원 및 기사 제보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기한 : 2000년 3월 17일
   - 제출방법 : 우편(17일 도착본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 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문의전화 : (02)737-0090, (02)737-8881, 팩스: (02)737-0697

서울시니어스강서타위 SEOUL SENIORS KANGSEO TOWER 관음의 가피와 기도 성취를 기원합니다.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 연계사업



어르신들의 노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로 살아오신 生.
이제는 어르신만을 위해 준비된 공간에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누리십시오.
실버타운의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아,
입주율 100%를 기록한 서울시니어스타워에 이어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가

어르신들의 노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고 즐겁게 모십니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깔끔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성실합니다.!


서울시니어스타워


송도병원


인제정은병원(휴양병원)



호주골드코스트휴양지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

■ 빈틈없는 의료지원
- 24시간 간호사 상주 대기, 건강·영양상담, 운동처방
- 강서승도병원과 함께 지어져 24시간 주치의를 내곁에
(진료과목: 내과, 외과, 치과, 물리치료실, 이비인후과 안과, 정형외과, 피부비뇨기과, 운동처방센터 등)

■ 책임있는 안전관리
- 중앙관제실에 연결된 긴급, 위급 호출시스템
-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24시간 건강이변감지시스템

■ 다양한 생활프로그램과 해외여행
- 매월 25가지 이상의 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용
- 강원도 인제 및 호주 골드코스트 회원전용 휴양단지

■ 호텔식 전용 부대시설
- 수영장, 사우나, 헬스크럽, 도서실, 이·미용실, 의무실, 서예실, 공예실, 천체관측전망대, 약국 골프연습장, 피부관리실, 게이트볼장, 은행, 안경점 등

분양문의 (02) 2232-9003 http://www.sst.co.kr

건물개요
·지하 4층, 지상 15층
·34평형/60세대 46평형/ 72세대

입지조건
·강서구 등촌동 KBS88체육관과 발산역 사이
·지하철 5호선 발산역 300m, 김포공항 5분거리
·우장산을 바라보는 정남향

조계종-대각회 관계 정상화 '한발 앞으로'

공동합의문 의견 접근

조계종중앙종회 법인대책특위(위원장 혜창)와 재단법인 대각회 교섭추진위원회(위원장 흥교)는 8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계정상화를 위해 공동합의문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조계종 법인대책특위가 초안한 6개항을 중심으로 논의. △2월 21일 대각회 이사회 결의사항(본지 260호 2면)을 존중하고, 문화관광부의 정관 변경 승인을 얻는 데 조계종과 대각회는 공동으로 총력을 경주하며 △대각회는 정관 변경시 조계종 총무원장과 사전에 합의 △대각회는 조계종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계종은 대각회 소속 승려에 대한 권리 제한 조치를 해제 △대각회에서 요구하는 법인의 처우 문제(특별교구화 등)는 조계종 종헌 개정시 다루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대각회는 향후 용성문도회 소속 승려가 설립한 사찰에 한해 20개 이내 신규사찰만 받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법인대책위원장 혜창스님과 지욱 운달 법성, 대각회 교섭추진위원장 흥교, 효경 원성 자우스님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삼보정재 소송비로 새다니…

작년 종단사태로 24억 지출 '포교원예산 2배'

재가연대, 조계종 예산편성 의견서 발표

지난해 조계종 종단분규로 인해 지출된 소송비를 포함한 소위 '호법활동비'가 포교원 예산의 2배에 달하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신축공사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등 삼보정재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는 8일 발표한 '조계종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종단사태와 관련해 지출된 소송비 2억3784만원과 호법비 20억 8860만원, 청사경호용역비 8927만원 등 '호법활동비'가 24억여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같은 해 교육원 결산 총액 25억6000만원에 육박하고 포교원 결산총액 12억4천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신축공사의 삼보정재를 부실관리한 책임자의 규명을 위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특별합동감사반'의 구성을 촉구했다.

재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신축과정에서 드러난 공사부실의 일차적 책임이 승가학원과 총무원등 종단내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각종 불사 체계를 관리감독할 종단 시스템의 혁신, 삼보정재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 구조적 대안마련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가연대는 삼보정재의 여법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종법(가칭 '삼보정재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자체적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종법 제정 및 입법청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재가연대는 종단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종도들의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예산반영 △實사업비 확충, 보조금의 운용과 관리 개선 △교육 및 포교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전답 지원사찰 지정 강구 △사업성격에 따라 부서의 업무 및 기능 재조정 △예산편성의 방식과 시기조정 및 예산 집행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광서 상임대표는 "김포학사 공사부실은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포교·교육·환경·복지·정보화 등 시대적 요구를 담는 불사가 될 수 있도록 불사풍토 전반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증 기초선원개원식이 6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렸다. 이번 봄안거에는 사미·사미니 128명이 입방했다.

사미니 기초선원 첫 개원

6일 동화사 산내암자인 부도암과 양진암에 사미니 기초선원이 처음으로 개원. 봄교과안거에 41명이 입방했다.

기초선원장 영진스님은 "사미니 기초선원의 개원으로 승가교육의 기회균등이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며 "종단의 승가교육체계도 보다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번 안거에는 8기부터 17기까지의 행자교육원 졸업생중 사미 87명과 사미니 41명 등 128명이 입방. 오는 4월3일까지 선경어 좌선의 조계선종사 인도불교사 부처님생애 좌선실수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윤호 기자

상임이사 종단 확정

종단협 회장단회의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9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9개 상임이사 종단을 확정했다. 또 감사는 대한법화종 조동종 염불종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상임이사 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보문종 총지종 원효종 총화종 등이다. 종단협의회 정관에는 11명으로 상임이사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2개 상임이사 종단은 추후 선출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포교법 개정안 심의

조계종 종회 포교분과위

조계종 종회 포교분과위(위원장 지홍)는 7일 회의를 개최하고 군불교위원회 설치, 신도교육등을 골자로 하는 포교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포교분과위는 또 올해 포교원 예산안 19억여원을 심의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것이다.

이번 종회에 상정될 포교법안은 신도관련사업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연수국을 신도국으로 직제개편하고, 신도입문과 교육, 수계와 위계관리업무를 비롯, 군·경찰, 교도소등 사회 각영역에 대한 포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원우 기자

승가대 이전 대책위 구성

김포학사 건축비 삭감·종합관리등 업무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특위를 열고 이전에 따른 운영방안등 향후 승가대학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관할할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특위를 해체했다.

총무원 교육원 집행부, 종회의원, 교계 중진스님등으로 구성될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는 김포학사 대책 특별위원위원회가 결의한 △김포학사 건축비 삭감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관리대책 △감독업무 소홀 당사자 의법조치 △김포학사 운영비 및 이전비 마련등의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앞서 총무원, 종회, 재가연대, 승가대로 구성된 김포학사대책 특별위원회 합동조사단(단장 영담)은 합동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앙승가대학의 부실공사 및 사업비의 과다 산정은 감독과 관리가 안되고 비계획적 비전문적으로 진행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조사단장 영담스님은 "김포학사의 가장 큰 문제는 건축 기계설계등 크고 작은 부실시공이다"며 "건물의 안정성과 수명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공사의 해결방안 제시 및 재시공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교육원 합동감사반도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문서, 재정, 공사관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인사무처의 관리능력 부재이다며 이로인해 토지처분금, 대여책임자의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무회계 시스템도 부실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교육원장, 포교원장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법인사무처장을 종단소임자로 임명하고 사무처직원도 종무원을 파견하여 종단의 관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선학원 '수계식' 열렸다

13일 보광사 금강계단 조계종 "협상재개키로"

선학원은 사미·사미니계, 비구계 수계식을 13일 서울우이동 보광사 금강계단에서 봉행하고 사미 13, 사미니 24, 비구 10명을 배출했다.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은 6일 행자교육원 입제식에서 상무이사 성문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선학원 창건 80성상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오늘의 초발심을 불도를 이루는 그날까지 간직하여 집착에 끄달리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문스님은 "조계종에서 선학원 도제들의 입방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행자교육원을 별도로 개설하게 됐다"며 "이후 강원 개설도 예정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선학원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문스님은 그러나 "2월초 총무원을 방문해 정대스님을 만났다"고 밝히고 "조만간 대화가 열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해 협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선학원의 행자교육원 개원 및 수계식 봉행과 관련, 조계종 법인대책특위(위원장 혜창)는 8일 회의를 열고 선학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선학원에 보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 1면 '산'에서 계속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와 녹색환경감시단(단장 홍성식)은 지역의 환경·시민단체와 해인골프장 건설을 저지시킨 여파를 몰아,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 석남사(주지 영운)는 가지산 일대 상업지구건설 개발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문경 봉암사는 희방산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리조트, 온천 관광단지 및 규석광산을 일단 저지시켰고, 통영 용화사 주지 선곡스님은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미륵산지키기 운동을 이끌고 있다.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해에 이어 '열목어가 사는 청정오대산 가꾸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은 금정산 동백동산에 동백나무 심기, 나무 가꾸기, 환경생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금정산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우리 산 지키기 운동'은 환경보존지구 신청을 통한 생태공간과 역사·문화·수행공간을 조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총체적 부실

신도교육준비위 회의

신도교육 어떻게…무엇을

"기본 안갖춘 신도 간화선 위주 교육 오히려 역효과"

기본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의 수행법인 '화두를 통한 간화선 수행' 위주로 편성된 신도교육내용이 오히려 신도들에게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게 하는 역효과를 준다는 주장이 4일 개최된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육위원회 4차회의에서 제기됐다.

이같은 선위주의 신도 초기교육은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과 문자및 분별에 의해 학습되는 교학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되게 하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으며, '성불'과 '깨달음'의 목적이 실천이나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성철 박사는 "체계적인 불교학의 정비가 급선무며, 신도교육의 단계를 나누고 그 차제에 따라 신도교육을 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밝혔다.

또 신도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념과 목표를 대승불교의 보살로 정하고 일정한 교학적 내용을 습득한뒤 다양한 실천분야에 투입, 사회변화에 대처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각종 사회 양상과 행동양태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지금까지 불교교리공부가 중국의 교판형태에 얽메여 문헌학적, 훈고학적 풍토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에게 멀어졌다며 현대인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며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실용적인 불교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도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양성과 통일교재의 발간, 수행과 실천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된 신도법에 따른 재가신도교육내용을 마련하기위해 전국 62개 불교교양대학을 대상으로 신도교육실태 의식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의식조사에서는 윤회에 대한 관점, 성불에 대한 믿음, 보시형태, 법회참석, 개인수행등 교양대학 학인들의 신행변화도 측정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3월말까지 설문내용을 취합하여 결과를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처님 출가 (음.2.8)·열반절 (음.2.15)봉축
-제9차 일일 출가 수련대회-

고통받는 우리중생 건지시려 왕궁의 부귀영화 모두 버리고, 진리 찾아 출가하여 6년을 하루같이 고행하시어 마침내 보리수 아래서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영원불멸 열반에 드신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열반절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집으로부터 세속의 모든 번뇌로부터 뛰어나서 하루라도 출가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하시어 밝은 삶의 지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련일 : 불기 2544(2000)년 3월 19일 셋째일요일
오전 10 ~ 오후 4시
■대 상 : 청소년, 성인불자 300명 선착순
■회 비 : 성인 1만원, 청소년 5천원 (수료증, 수련자료집 기념품 배부)
■복 장 : 법복 준비되어 있음.
■문 의 : 대한불교 조계종 정법도량 신흥사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72-11
☎ 0339) 357-3916 / 357-2695 FAX)357-8687
※버 스 : 오전 9시 - 수원 북문농협앞, 역전에서 출발



목어

지역감정 없애기

지역감정의 망령이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도하 신문은 연일 이를 대서특필하여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다. 필자도 정부에서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정책을 놓고 나라보다는 자기 지역을 우선 생각하는 정치인과 여론 주도층을 보면서 속으로 한탄한 적이 있다.

지역감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회학에서 말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과정 형성 이론이 대단히 유효한 것 같다. 이 이론에 의하면 둘 또는 몇몇의 주체들이 열심히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에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적어도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평지풍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고, 급기야 집단의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또 차별을 실제로 한 지방에서는 피해의식을 호소하는 지역이 무서워서 점점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간의 갈등이 마치 패거리 싸움처럼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제야 말로 지역감정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던 측에서는 그 지방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만들었고, 또 오랫동안 권력자를 배출했던 지방에서는 아무리 인사와 처우가 불공정하느니 어쩌느니 해도 이제 겨우 2년인데, 5년제 임기의 대통령제 아래에서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이제는 모두 훨훨 벗어 던지고 잊어버려야 한다. 먼저 언론부터 어느 정치인이 무슨 발언을 했다고 야단스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 다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 조그만 집회에서 저질스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몇 명이나 들었겠는가. 지역감정으로 가장 큰 득을 본 정치인들부터 무슨 피해자인양 하는 작태를 중지해야 한다. 지역감정을 없애겠다는 정치인의 말씀이나 시민운동도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 또 다시 집착을 낳는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지역 감정을 없애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요사이의 유행어처럼 (고향이 어디인지) '묻지 마'가 제일의 방책일 수 있다. 대승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학원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참여연대 '문화재 관람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관람의도 있을때 받아야" "문화재 구역내 징수당연"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을 주제로 열린 7일 열린 토론회의 쟁점은 문화재 관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또 함동징수냐 분리징수냐의 방법의 문제로 모아진다.



◇7일 열린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 토론회. 징수 방법의 문제보다 징수 및 집행을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문화재 관람 범위

관람 범위는 관람료 징수의 부당성을 가르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상훈 변호사는 "관람자란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를 떠나 최소한 관람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지호 과장은 "사찰에는 국보 보물 지방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뿐만 아니라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들이 많다. 공원입장객들이 사찰경내의 문화재를 볼 의도가 없더라도 이를 둘러싼 자연환경, 문화재보호환경에 대해서도 볼 의도가 없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관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관람료징수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관람 행위의 범위를 이 변호사는 관람의 의도가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류 과장은 문화재 구역에 들어서는 것으로 이미 문화재를 관람하는 행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흥사 법주사 해인사 백양사 화엄사 내장사 등은 사적 또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징수 방법

참여연대는 문화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징수토록 해야 하며, 따라서 사찰 입구에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해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계종은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해 관람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원입장료를 받고, 이제 와서 관람료를 받는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는 꼴"이라며 "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관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과장은 또 분리징수를 하면 매표의 번거로움을 가져와 또다른 민원과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며 분리징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재철 녹색연합 백두대간팀장은 징수 방법의 문제보다는 징수 및 입장료·관람료의 집행 주체를 현행의 공원공단·사찰에서 중앙정부로 넘기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립공원 내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의 유지보수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관람료는 전적으로 국고에 귀속되어 순수하게 해당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입장료도 "국립공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입장료는 의미가 있다"며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에 소요되는 목적의 공원입장료 징수는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부장은 "합동징수에 따른 민원이 많았으며, 소송은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해 당장은 아니지만 징수 방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비쳤다.

조계종총무원은 토론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계기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종단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연환경과 문화재 그리고 국민여가생활이나 전통문화교육 등의 정책수립에 관해서 종단의 역할을 학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관람료 징수 왜 문제됐나

사용내역 오해에서 비롯 "문화재 보수 비용으로"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을 준비중인 참여연대는 관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느냐는 민원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신문의 독자투고 등을 통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항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원인은 관람료 사용 내역에 대한 의문이 관람료 징수 문제 제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일보와 한솔엠닷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징수를 반대 하는 응답자 가운데 문화재관람료의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44.3%로 가장 많았다. 국민들은 징수 방법의 문제보다 사용 내역의 투명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의해 엄청난 관람료 수입이 사찰로 들어간다는 오해 또한 문제를 확대시켰다.

조계종은 사용 내역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관람료 징수액과 사용처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후 관람료 사용 내역의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98년의 경우 관람료 수입(86억2천만원)보다 문화재 보수를 위한 지출(136억6천만원)이 더 많았다며, 문화재의 유지 보수를 위한 조계종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문화재관람료를 공원입장료보다 먼저 징수했다며, 통합징수를 반대하기에 앞서 공원입장료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62년 해인사에서 최초로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65개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공원입장료는 74년부터 받기 시작했다.

◆ 기사 넘쳐 '선과 21세기' 한주 쉽니다.

불교TV 어디로 가나

이사회 두차례 무산 주사장 출근조차 안해 "조직 축소 지출 억제뿐"

경영난에 놓인 불교TV가 두 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되는 등 이사들마저 무관심을 표출시키면서 파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주양자 사장마저 국회의원직 승계로 출근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직 상태나 다름없다.

불교TV는 2월 20일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수덕 부사장을 제외하곤 단 한명의 이사도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어 2일 재소집된 이사회도 성원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는 주식감자와 사의 표명을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주사장에 대해 반기를 든 신허스님을 비롯한 이사들의 불만이 겉으로 불거져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뚜렷한 처방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들의 책임회피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주사장이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며 경영난 타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사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이수덕 부사장은 직원회의에서 "불교TV를 살릴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조직을 축소화시켜 지출을 억제해야 된다"며 "다른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회사를 떠나도 좋다"고 밝혀 불교TV 경영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음을 시사했다.

만약 주양자 사장의 사퇴 이후 실질적인 투자자와 경영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표류한다면 최악의 상태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승가대 김포학사 총체적 부실 추가공사비 800여억 감액 타당"

김포학사 대책특위 합동조사 발표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합동조사반의 9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관리감독 소홀, 부실시공, 부실감리, 2중 계약, 공사비 과다책정 등 총체적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만도 무려 80억7천4백95만원에 이르고 있어, 삼보정재가 유실될 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특히 설비공사, 진입도로, 상수관로공사, 계약변경요청, 하수관확장공사 계약금지급, 설계변경 내역 등의 서류에 총장 및 이사장 결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기안자나 주임 등 실무자선에서 임의로 처리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포착됐다.

특히 공사비의 경우 김포학사 이전사업과 관련된 당초 예산이 약 300억원 이었으나 현재 시공사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400억원을 넘고 있으며, 이전비까지 포함하면 초기예산의 40%를 상회하는 43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 설계나 하도급 공사계약에 명시돼 있는 공사들이 '본공사외 별도발주'라는 2중계약 때문이며, 설계감리비의 경우 업계의 관행과 달리 2배에 달하는 지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가연동변경계약'이 총공사비의 20%에 이르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사 감독관이 초창기 7개월간 파견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정상 중요한 시점인 98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18개월간 감독관없이 감리업체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포학사 대책특위는 또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의 관리부재로 설계 및 계약변경등 승인이 경솔하게 처리돼 추가 공사비의 발생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단은 김포학사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도로설계의 경우 별도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를 지출하는 등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조사반은 시공사가 요청한 359억8천여만원중 추가된 공사비 80억7천여만원을 감액하고 279억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창종 제 20주년 기념 및 나라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敎界 大德큰스님과 四部大衆 十方諸位께 불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대한불교 원융종에서는 창종 제20주년 기념 및 나라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敎界 大德큰스님과 四部大衆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수희 동참하셔서 법회의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라옵니다.

불기 2544년 3월 일

♣ 일시 : 불기 2544년 3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 캐피탈 대연회장
♣ 전화 : 총무원 02)857-5094

회 주 : 영산 일공
고문 : 최법신, 황법운, 정선명, 송보인, 현천호, 박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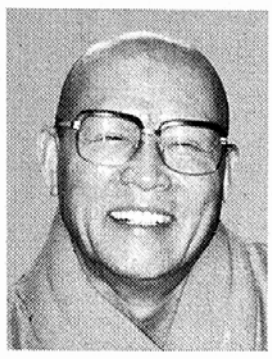
◆ 봉 행 위 원 ◆
· 봉행위원장 : 최법륜
· 봉행부위원장 : 박대월, 김선진
· 봉 행 위 원 :
체관, 체승, 보광, 대천, 체원, 체도, 체성, 체인, 요암, 명문, 성문, 추광, 광명, 진운, 도선, 보운, 성욱 혜천, 선재, 무량 해운, 체덕, 김삼매화, 구정연화

◆ 추 진 위 원 ◆
· 추진위원장 : 조성관
· 추진부위원장 : 김인관, 조성견
· 추 진 위 원 :
체의, 정광, 혜림, 천호, 무송, 지관, 성도, 해공, 선덕, 진연, 명허, 체두, 선혜, 혜청, 체선, 체혜, 체혼, 체명, 체정, 진담, 진여, 체초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최 법 륜 합장

"원효사상·저술 체계있게 정리"

원효학연구원 2대회장 도업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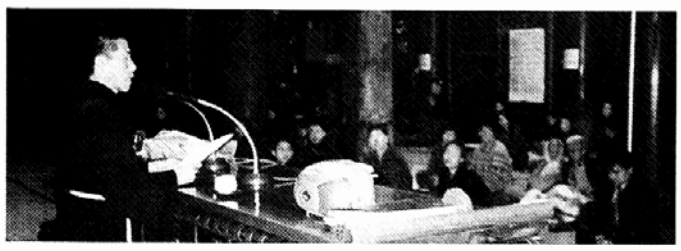
"갈등과 반목의 사회에서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원효스님이 오늘날까지 추앙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도업스님(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이 1일 원효학연구원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95년 11월 창립한 원효학연구원은 원효봉찬대제와 원효문예대제전 등을 통해 스님을 추모하는 한편 매년 원효학술회의를 열어 스님의 학덕을 계승해 오고 있다. 올해도 경주에서 열리는 신라문화제 등에서 민족의 스승인 원효스님의 가르침을 보다 널리 전할 예정이다.

도업스님은 "역사, 문학, 불교 등 원효스님과 관련한 국내외 저술들을 종합해 목록을 작성, 보다 효율적으로 스님의 저술을 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10월 경 '원효성사의 실천행'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꾸준히 스님의 사상과 저술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절에 온 천주교 수사 "종교는 공동선 추구"

조계사 청년회(회장 전준호)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가톨릭 조 베드로 수사(성프란체스코성당)를 법사로 '21세기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새봄맞이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 베드로 수사의 초청은 지난해 성탄절에 조계사 원심회 덕신스님이 성프란체스코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준데 대한 답례차원에서 이뤄진 것.

조 베드로 수사는 법회에서 "21세기 종교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영적인 실존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협력과 나눔을 통해 공동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종교간에도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각자 종교의 영역 안에서 그 종교 본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종교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범패 체계적 연구"

박사 도전하는 가수 김태곤



불자가수 김태곤씨가 박사학위에 도전한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해 온 김씨는 〈동음집에 나타난 짓소리 연구〉를 주제로 최근 석사학위를 받고, 경산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범패를 연구하게 됐다.

김씨는 석사논문에서 짓소리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인성(引聲)'과 '거령산(擧靈山)'을 직접 채보해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김씨는 96년부터 봉원사 불교범음대학에서 故 송암스님에게 범패를 공부해 왔으며, 이번 논문집 뒷부분에는 범패에 박자 개념을 도입해 오선지 악보에 인성과 거령산 등을 옮겨 놓았다. 또한 범패에도 조바꿈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범패를 음악적으로 연구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응용할 것"이라는 김씨는 "범패를 부르는 것이 심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일주문

중국 불교유적 답사



진제 부산 해운정사 조실은 15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안휘성 호북성 하북성 등 불교유적을 답사한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학봉 조동종 총무원장은 11일 원효사에서 총무원장 취임 1주년 기념 자축연을 가진 후 효창동사무소를 방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불교신문 창간 40돌 축하연



영담 불교신문사장은 21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축하연을 연다. (02)733-1604

'통일의 도덕성' 주제강연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는 18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통일의 도덕성'을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국악예술고 교장 맡아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3일자로 경기도 시흥 소재 국악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광덕스님과 불교음악' 특강

박범훈 중앙대 교수는 12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신도들에게 '광덕스님과 현대 불교음악'을 주제로 특강했다.



진열스님 초청법회



유원근 경기불교회관 거사회 마하연 회장은 10일 진열스님 초청법회를 열었다. 거사회가 1일 창립한 이후 첫 법회로 매월 둘째 주에 법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출가절 100일 기도 입재



김태제 경기불교회관장은 경기불교회관 불자들과 함께 13일 출가재일부터 100일기도에 입재해 6월20일 회향한다.

민주노동당 입당

이문옥 양심선언자회 회장은 2월 25일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변호사 사무실 개소

박준수 전 서울지방법원 민사 1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16 서초동현빌딩 402호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02)3481-1115

실직자 의료지원 공로패 받아



강경구 선재마을의료회 회장은 2월 29일 권문용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 구내 실직자 1000명에 대한 의료지원의 공헌으로 공로패를 받았다.

법주사주지 지명스님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는 9일 산중총회를 열어 지명스님을 새 주지로 추천키로 하고 총무원에 임명을 품신키로 했다.

지명스님은 혜정스님을 은사로 법주사에서 출가해 62년 사미계, 9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템플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계종총무원 기획실장, 9대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 청계사 주지, 종회의원.

혜안스님 홈페이지 개설



조계종 기획국장 혜안스님이 '혜안스님의 불교서각전'이라는 타이틀의 홈페이지를 9일 개설했다. 주소는 www.heaan.co.kr.

혜안스님은 그동안 동화사 개산대재 초대전 등 20여회의 개인전과 협회전을 열어 작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는 혜안스님의 작품세계, 서각갤러리, 서각배움터, 서각이야기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인 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화예술대학원장 안민수 △경영대학장 김태홍 △가상대학장 박부권 △창업지원단장 이종옥 ◇경주캠퍼스 △의료원장 서정육 △관광대학장 서태양 △의과대학장 황정수 △기획처장 오출세 △언어연구교육원장 정내원 △관광산업연구소장 하헌국

위덕대 △정교실장 권영택 △대학원장/불교대학원장 김무생 △경영대학원장/교육대학원장 배도순 △교무처장 권영규 △입학처장 신봉수 △비서실장 정해상 △학술정보원장 홍욱헌



본사-조폐공 차문화에 고승메달 증정

현대불교신문(사장 김광삼)과 한국조폐공사(사장 유인학)가 20세기를 결산하는 문화사업으로 공동 주최한 '근세 100년 고승기념메달' 1.2차분 각 1세트씩이 6일 문화관광부 장관실에서 박지원 장관에게 증정됐다.

조폐공사 유인학 사장 현대불교신문 이창호 편집위원으로부터 메달 세트를 전달받은 박 장관은 "사회적으로 IMF를 극복하려는 시점에서 큰스님들의 생애를 거울삼아 의지를 고취시킨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종교계가 국민심성 순화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기에 문화부도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작년대비 2배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취임법회

계룡산 호국 계룡대는 5일 제26대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취임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문 대각회 이사장스님, 김말환 군승단장, 해군참모총장, 윤군 인사처장을 비롯 군불자등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중고생 25명에 장학금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스님)은 1일 선원 2층 회의실에서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6명 등 모범학생 25명에게 1년치 학비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한마음선원은 지난 91년부터 해마다 모범학생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 출판법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8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월운 동국대 역경원장, 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등 1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노인·소년가장에 자비 베풀터"

총지종에 둥지 튼 '함께하는…' 대표 장윤창 씨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장윤창씨(前 국가대표 배구선수)는 2월 26일 강남구 역삼동 총지종 통리원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현판식을 봉행하고, 총지종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난 98년 12월에 첫 결성된 국가대표 선수출신의 체육인 봉사모임으로, 그동안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어른을 공경합시다'라는 연중봉사활동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영조(마라톤), 김택수(타구), 장재근(육상), 김수녕(양궁), 천은숙(농구), 방수현(배드민턴), 전이경(쇼트트랙) 등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및 국가대표 출신의 쟁쟁한 체육인 16명이 회원이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탑골공원 음료 및 물품봉사 ▲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경기 무료 관람권 발급 ▲소년소녀가장 여름 캠프 등 올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새 천년 개혁불교

대한불교 선각종 창종 공고

새천년 새로운 흐름에 즈음하여, 불법이 중생교화의 만대 지침이 되어 목암산 자락에 자리잡은 **영험의 천불·신비의 천탑** 지장기도 도량인 **옴천사**에서 오늘 비상하는 새종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되도록 종도대중은 화합 안정을 실천하여 청정 종풍을 확립하여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하리라. 또한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의 깃발아래 투명성과 일관성 그리고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 종무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지혜와 자비의 불타 정신을 사회에 구현할 것이다.
삼가 불타의 가호아래 장인정신으로 외길만을 닦아 온 우리 종도들이 개혁과 중흥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전국을 포용하는 **포교전법종단**이 될것임을 다짐하면서 이에 창종을 공고하는 바이다.

불기 2544년 3월 일

대한불교 선각종 종정 영담 정업 대종사

※ **창종법회** · 일시 : 2544년 3월 16일 (목요일) 오후2시
· 장소 : 강진 옴천사

⊙ 창종대표 ⊙

· 종 정 : 영담 정업 대종사
· 상임고문 : 추경 김병완, 법장 박성빈
· 부 종 정 : 용암 선 사
· 총무원장 : 청삼 정 암 종사
· 종책연구실장 : 다 보
· 원로원장 : 혜 공 (원각사)
· 종회의장 : 대 운 (정토사)
· 교육원장 : 원 각 (보현사)
· 포교원장 : 벽 해 (고산사)
· 승정원장 : 원 해 (불광사)
· 사회복지원장 : 진 각 (선홍사)
· 문화원장 : 청 호 (금성사)
· 사정원장 : 송 암 (용화사)
· 교화원장 : 법 전 (승덕사)
· 환경원장 : 정 각 (청연사)
· 비구니선원장 : 명 지 (자성사)

⊙ 종단 전국 교구원장 ⊙

· 서울교구종무원장 : 진 보 (원각포교원장)
· 강원교구종무원장 : 회 성 (관음정사)
· 충북교구종무원장 : 성 청 (백련사)
· 전북교구종무원장 : 대 각 (청보사)
· 부산교구종무원장 : 지 암 (운진사)
· 인천교구종무원장 : 진 원 (보현사)
· 대전교구종무원장 : 다 보 (청화사)
· 광주교구종무원장 : 원 보 (억불암)
· 경기교구종무원장 : 인 덕 (지장사)
· 충남교구종무원장 : 호 암 (억향사)
· 전남교구종무원장 : 진 운 (불설정사)
· 경북교구종무원장 : 태 허 (법인사)
· 경남교구종무원장 : 청 명 (해동사)
· 대구교구종무원장 : 금 륜 (광명사)
· 울산교구종무원장 : 공 란

※ 부원장·부·국·과장은 지면관계상 공고를 생략함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 **목암산 옴천사**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TEL : 0638)433-2233~4
FAX : 0638)433-2311

■ 총무원광주사무처: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84-4 (능인불교회관 내)
TEL : 062)224-1080

한전 연합불자회 내달 발족

14개 지회 700여회원 신행활동 지원

회칙제정·회보발행…기념음악회도 추진

전국 각 사업소에 있는 한국전력 14개 불자회의 연합체인 한국전력인불자연합회가 발족된다.

연합회가 구성되면 한전 내 각 사업소의 불자회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불자회 결성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연합회는 각 사업소 임원진이 모여 기본적인 회칙을 제정했고 이후 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회칙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의 후원을 받아 연합회보도 4월1일자로 발간하기로 했다. 한전 본사 반야회 이순형 사두국장은 본사 반야회 창립 행사 일정을 보고하고 연합회 창립식을 같이 거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 창립식은 4월8일 한전 본사 반야회 창립 10주년 행사와 함께 봉행되며 부대행사로 '한전인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해 전체 한국전력 임직원들에게 흥겨운 연주를 들려주는 10년 회향의 자리도 마련한다.

한전 반야회를 비롯한 각 사업소 불자회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은 450여명이다. 이 회원들 외에도 한전 내부에서 반야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활동하는 불자들은 250여명 정도로 700여명의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 사업소 8개 불자회는 5일 영동 반야사에 모여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연합회 창립건 외에 각 사업소 별 불자회의 활동사례 등을 보고하고 서로의 결속을 다졌다. 한국전력의 각 지역 불자회는 각기 특색을 지니면서 알차게 법회를 꾸려가고 있다.

한전 본사 반야회는 70여명의 회원이 매주 목요일 정기법회를 10년째 꾸준히 꾸려 나가고 있는 등 신행활동에 열심이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수련회, 수계법회, 기초교리강좌, 구도정진법회, 순례법회 등 매달 다른 주제의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월성원자력 반야회·마야부인회, 삼랑진양수 보림회 등은 98년 이미 자체법당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펼치고 있다. 보림회는 16명의 회원이 근교 암자를 찾아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등 자체법당 활용 외에도 인근 사찰과의 교류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영광원자력 선우회는 불갑사에 불교대학을 설립해 15일 개강 하는등 지역 내 불교활성화에도 공헌하고 있다. 선우회 최동룡 회장은 법회 내용이 너무 교리적인 것에 치우치거나 현실에 걸맞지 않게 딱딱한 것보다는 재미와 자신한테 얻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끌어가고자 수시로 회원들과 토론한다.

인천화력 법우회는 강화 선원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긴밀한 연계하에 활동하고 있고, 한전 경주지점 서광회는 성지순례 위주로 신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창립을 준비 중인 보령화력 불자회에서는 실무자인 이상곤 과장이 수련회에 참석해 준비과정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올해 안에 부산지역 한전사법소에서 2개 정도의 불자회가 더 결성될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이버 선법회는 20~40대 직장인들이 주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 법회 100회 돌파

하불동 '선법회' 극락선원서 기념법회

인터넷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통신 공간이지만 불자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사이버 법회를 100회째 꾸려오고 있는 모임이 있다. 사이버 세상에서 만나 법회를 운영해 온 하이텔 사이버 선법회(선방지킴이 유인자)가 바로 그곳이다. 사이버 선법회는 4~5일 양일간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100회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무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에는 서울지역은 물론, 강원·충청·경남·경북·부산·호남 등 전국 각지에서 80여명의 선법회 회원들이 모여 신심을 다졌다.

4일 저녁 7시 통도사 극락선원에 모인 회원들은 9시부터 법회를 갖고 1시간 동안 좌선으로 마음을 닦았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는 각 지역 참석자 소개 및 하불동 선법회 연혁 발표를 갖고 새벽예불 전까지 차담을 나누는 등 회원 간의 결속을 공고히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열리는 참선 법회에 가장 많이 동참한 13명을 선정, 시상했다. 대상은 60회를 동참한 이상연씨가 수상했다.

유인자 〈2기 명예기자〉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신 도 성
〈대전일보 논설위원〉

"이제 부처님 앞에서 죄를 참회하고 수계를 받는 마당에 높은 놈이 어디 있고, 낮은 놈이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받으려면 당장 물러 가시오!"

1978년 8월15일 한여름, 폭염이 내려쬐는 전방부대 연병장에서 열린 수계식 도중 터진 호통소리였다. 당시 육군졸병이었던 필자는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사단 호국득도사에서 수백명의 군장병들이 운경 큰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던 중간에 스님의 사자후가 대중을 내리친 것이다. 그날 날씨가 워낙 덥다보니까 연병장에 무릎꿇고 참회진언을 외우는 병들과 달리, 장교들과 부인들은 본부석 옆 그늘에 서서 수계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큰스님의 호통소리에 놀란 연대장을 비롯한 장교는 물론이고 부인들까지 연병장에 무릎꿇고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를 연신 따라했다. 그 때의 장면은 우리 졸병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평상시 할아버지가 손자 대하듯 인자한 목소리로 얘기하시던 스님이 기에 그런 호통은 뜻밖이었다. 바다와 같은 평등사상이 큰 방망이로 시현한 것처럼 통쾌했다.



군대시절 부처님 가피를 입고 사회에 나온 필자는 백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는 자세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게을러서 제대로 안될 때가 많다. 그래서 자주 참회한다. 게으름을 참회하고 입으로만 떠든 것을 참회하고,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를 참회한다. 그나마 참회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위주로 처신하여 남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하루 하루 살기에 급급한 별 수 없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도 참회한다. IMF의 참담한 시련 속에 동료들이 가슴 아픈 실업자가 되어 퇴직할 때 강건너 불보듯 한 일도 참회한다.

거창하게 생각하면 남을 돕는 일은 그림의 떡이 될지도 모른다. 언젠가 매우 추운 겨울 저녁에 도심 길거리에서 광고전단지를 돌리는 한 할머니가 생각난다. 그 할머니는 혹독한 날씨 속에 광고전단지를 수백명의 사람에게 한장씩 정확하게 돌려야 2천원을 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추워서인지 데이트족등 젊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한 장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전단지를 받았다. 그리고는 차시간에 쫓겨 대전역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러자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습니다. 복많이 받으세요"라며 연신 절을 하는게 아닌가. 그 이후 필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길가다 광고전단지를 받으라고 권유한다.

올해 초 코카콜라 새회장인 더글러스 대프트의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메시지가 인상깊게 떠오른다. "삶이란 공중에서 다섯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 게임입니다. 각각의 공에 일, 가족, 건강, 친구, 나(영혼)라고 붙여 봅시다. 그중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어서 떨어뜨리더라도 바로 튀어 오릅니다. 그러나 다른 네개는 유리공이어서 떨어뜨리면 닳고 긁히고 깨져 다시는 전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중략-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진 마세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을 음미하는 여행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장 중시하고 현재에 충실히 살 것을 권유하는 그의 메시지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오늘이라는 선물은 화두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중생이기에 베푸는 삶보다 가지지 못해 안달하며 빼앗는 삶이 되지 않았나 참회한다. "독경하지 않으면 말씨에 먼지가 끼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에 먼지가 끼며, 엄하지 않으면 음란의 때가 끼듯이, 방일하면 일에 먼지가 긴다"는 성현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는다. 나날이 좋은 날이 되도록 참회하면서 베풀줄 아는 삶이 되기를 부처님께 서원해본다.

"현재 충실하며 베푸는 삶"

색상 눈에띄게…글자 맵시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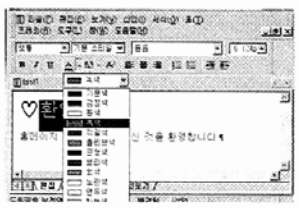
홈페이지 만들기 ⑥

글자 크기 조정이 익숙해졌다면 이번엔 글자의 색깔을 바꿔 보자. '환영'을 블록 설정한 후 서식 도구막대의 '글자색' 아이콘 옆의 역삼각형 단추를 누른다. 색상표가 나오면 원하는 색깔을 지정한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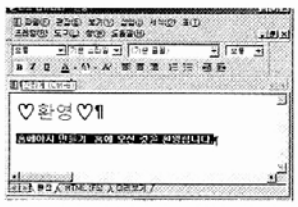
색상표에 마음에 드는 색이 없다면 사용자 정의를 눌러 찾아볼 수 있다. '색상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색을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에 추가'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 단 글자색이 배경과 달라야 한다. 비슷한 색을 사용하면 홈을 방문해서 글이 잘 보이지 않아 불편을 끼치게 된다.

글자의 굵기도 조절할 수 있다. 문장을 블록 설정한 후 서식 도구막대의 '진하게' 아이콘(B)을 누른다.〈그림2〉 블록으로 선택된 글자가 굵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진하게'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가늘어진다.

기울어진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을 블록 설정한 후 서식 도구막대의 '이탤릭' 아이콘(I)을 누르면 글자가 기울어진다.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그림2〉

밑줄이 있는 글자를 만들려면 문장을 블록 설정한 후 서식 도구막대의 '밑줄' 아이콘(U)을 누르면 된다. 밑줄이 있는 문장은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곳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면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내 제공 무료 E메일 사이트

1면에서 계속

◇깨비메일-http://www.kebi.com/k/mindex/27407W952043952.html
◇네띠앙-http://www.netian.com
◇대구넷-http://www.taegu.net
◇미래메일-http://star.tfc.ac.kr/k/index
◇신비로-http://www.shinbiro.com/index.html
◇에듀넷-http://www.edunet4u.net/top.html
◇윈메일-http://www.winmail.net
◇키텔-http://www.kitel.co.kr
◇터보메일-http://www.turbomail.net:8081
◇하니메일-http://www.hani.co.kr/hanimail/index.html
◇시티넷-http://www.citynet.co.kr
◇Kmail-http://www.kmail.com
◇한미르 메일-http://rmail2.hanmir.com/Y/index.php?x=952046861
◇SBS http://ps.sbs.co.kr/sbsmail/index.html
◇오르지오 메일-http://www.orgio.net/
◇T2N Wide mail-http://www.t2n.net
◇프리챌-http://www.freechal.com
◇아시안넷-http://www.asiancityweb.com/index-k.html

클릭! 새 홈페이지

■이용호의 즉견여래(卽見如來)(http://i.kebi.com/~vajna)-이용호의 즉견여래. 부처님 말씀,경전 소개 및 해설, 선 어록 등을 볼 수 있다.

■수도사(http://user.chollian.net/~sudosa1)-수도사 홈. 수도사 소개, 주요 행사 일정, 납골당 안내, 행사 및 공지사항, 교통편 안내 등도 볼 수 있다.

■군승사관후보생(http://www.freechal.com/sangga)-2월22일 개설. 동국대학교(서울, 경주)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남학우 중 군에서 불교를 대표하여 법회와 설법을 통하여 불법을 전하는 성직자와 국군장교의 길을 가고자 모인 청년 불자들의 단체.

■청보리 학림(學林)(http://www.freechal.com/haklim)-2월22일 개설. 불국토 건설을 지향하는 불자들의 만남의 장.

■머시마셋가시나셋(http://cafe.daum.net/m3w3)-2월24일 개설. 경성대학교불교학생회의 어느 한 기수만의 카페이다. 불교에 관심있는 이들은 글을 남길 수 있다.

■삼양사청년회(http://cafe.daum.net/samyangsa20)-2월24일 개설. 삼양사 청년회 회원들은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법고불(http://cafe.daum.net/BUBGOBUL)-2월28일 개설. 수원 과학대학 불교 학생회 법고불 출신 회원들의 공간.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시민선원 개원 안내

천축사 무문관은 근세의 선지식들과 큰스님들께서
수년간 두문불출, 수행정진하여 한국 선 불교에 첫 무문관을
꽃피우고 선을 대중화한 근본도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진하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인 수행 수련원으로 개방합니다.
초발심자 및 참선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불자님들의 동참을바랍니다.

다 음

· 일시 및 기간 : 매주 금요일 오후3시 입재
월요일 새벽4시 30분 회향 (3박4일간)
· 제1기 입방일 : 2000년 3월 31일(금요일)
· 입 방 인 원 : 남녀 20-25명선(전화상담과 면담후 입방여부 결정)
· 입 방 규 제 : 술, 담배금지, 묵언(청규 불이행시 퇴방)
· 준 비 물 : 입방원서, 청규이행서(천축사 종무소에서 배부)
입회비(5만원), 세면도구, 법복(권장)
· 접수 및 문의 : 천축사 종무소
☎ 02-954-1474, 02-955-7234 / FAX: 02-955-7179
(팩스이용 전화 상담접수 가능)
※ 온라인 구좌번호 (국민은행 : 057-01-0591-272 천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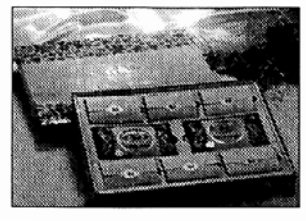
철야기도 봉행

천축사에서는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철야기도를 봉행합니다.
기도내용 : 관음기도, 신중기도, 금강경독송, 야참좌담회
108참회, 좌선(기도비 없음)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공평하고 당당한 사면

조계종 종단의 대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4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한 종헌 개정안은,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래의 피징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사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한국 최대의 종교 종단이면서도 내부적 갈등에 발목을 잡혀 힘찬 날개짓을 하지 못해 온 조계종 50년의 악업을 청산하기 위하여 대승적인 자세를 보인 조계종 총무원의 결단에 대하여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뒤따른 사면 대상자들의 참회와 호응으로 조계종이 명실상부한 대화합을 이루어 그동안 추락된 불교의 위신을 일신하는 청정 화합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불자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만약 이번 기회에도 이러한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조계종은 한국의 종교계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종단의 자리를 상실해 갈 것이며, 자연 한국의 불교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아직 종회의 개정 결의라는 중요한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일단 종회에서는 어떤 특정 대상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큰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애당초 어떤 대상자를 염두에 둔 사면 조치라면, 그것은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화합을 위한 화합으로 흐르기 쉬우며, 더 큰 분쟁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사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대사면을 위해 이러한 개정이 불가피한 것이냐가 원칙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공평하고도 당당한 사면의 시행이다.

대화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 종단이 당당한 권위를 회복하고, 사면 대상자들에 대하여 불법의 정통성에 있어서, 또 도덕성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한발 앞장서서 대승적 조치를 취해 나아가되, 그 시행에 있어 특정 대상자들을 고려하여 파행을 빚는 일없이 밝고 투명하게 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시 바삐 그 동안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어 온 종단 내부의 요소들을 척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의 갈등 당사자이며, 아직까지 여러 건의 법적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정화회의에 대하여도, 그들이 근본적인 참회 없이 종단의 분열 획책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회복하려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계종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열린 자세를 보이되 당당하고 엄정하게 사면을 시행하며, 뼈를 깎는 개혁으로 사면 주체의 청정성과 권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사면 시행의 원동력을 키워 나아가기 바란다.

포교사단에 투자하자

포교사들의 전국조직인 조계종 포교사단이 지난 12일 출범했다. 81년 종단에서 포교사를 처음 배출한 이후 19년만에 처음으로 지역별, 전문기능별로 활동하는 전국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정법포교사를 양성하고 불교적 가치를 사회에 실천하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포교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겠다는 포교사단의 의지가 돋보인다. 또 2007년까지 4단계 사업을 추진해 팀 활동을 확대하고 지침서를 개발하며 전문포교사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포교사단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기대가 된다.

포교사단의 출범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 우선 포교사단의 김기병단장은 자체회비로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목표액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투명한 재정운용과 포교역량 제고에 더욱 힘쓰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포교사단의 활동에는 무엇보다 종단을 비롯해 스님이나 사찰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까도 미지수다. 혹시 포교사단의 출범이 포교전법의 신기원이 마련됐다고 보기보다는 재가불자들의 조직화에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승가 구성원은 없는지 모를 일이다.

조계종은 지난 1997년을 전법의 해로 설정하고 여섯 군데의 포교시범사찰과 두 군데의 포교거점사찰을 지정한바 있다. 한국불교가 교세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지금도 불교계의 풍토나 포교전법의 혁신조짐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나 진배없다.

포교는 백년대계를 향한 종단적 투자다. 이를 스님이나 불자들이 다른 이유를 내세워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긴다면 포교사단의 출범은 무의미와 다름없다. 거종단적인 획기적인 각오와 지원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포교와 전법이라는 구두선이 남발되는 가운데 한국불교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이 기회에 종단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다.

열린마당

거사회 활성화 방안

수원포교당 거사회가 거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거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치마불교 보살불교로 불릴 정도로 여성신도수가 절대 우세했다. 그러나 '사부대중'이라는 말처럼 불교가 균형있게 발전하려면 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성들을 신행활동에 적극 가담시켜 사찰마다 거사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사회의 역할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육바라밀 실천 적극 앞장"

선각〈수원포교당 도감〉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등 불교에는 유명한 거사들이 많다. 이들은 재가자이지만 수행자 못지 않게 고도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증득한 성인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으며 출가수행자에게도 훌륭한 선지식이다.

이러한 거사들의 사상적 토대는 〈유마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마거사의 법문을 통해 출가니 재가니 하는 세속적인 분별을 벗어나서 만인의 평등함을 제창하는 불교의 근본정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마거사는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불교수행자들에게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의 육바라밀을 잘 수행해 지혜를 증장시키고, 실천수행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성찰을 통한 자각과 그에 따른 증득된 과정, 즉 실천을 통한 신행생활이 되지 못하면 한국불교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고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대소신료들은 불교사상으로 문화와 관습을 타파하는 등 민중의식을 일깨웠기에 고려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이룰 수 있었다. 나라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한 주역들이 최고의 불교 지성을 가진 거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거사들이 육바라밀행을 실천함으로써 창조적인 지혜와 실천으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주역이 되어야 하겠다.

전국의 거사회가 불교발전에 주역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표상이 되었으면 한다.

"법회·봉사등 다양한 운영"

이병수〈정법회거사림회 회장〉



1964년 대구 보현사에서 11명으로 출발한 정법회거사림은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했다. 35년동안 매주 수요법회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수계법회, 대덕스님 초청대법회, 성지순례 등을 하고 있다. 85년에는 회원들의 모금으로 자체법당을 마련했고 97년부터는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35년 동안 매주 법회를 치르다 보니 법회운영과 회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다. 우선 수요일 저녁7시에 하는 정기법회는 청소년·청년층에서 참석이 어려워 청년회원 양성이 지지부진했다. 질 위주의 회원관리를 하다보니 초청법사들이 보기에 단출하다는 인상을 주게 돼 사기 저하 현상도 일어났다. 상임법사 네명이 번갈아 법문하는 과정에서 회원 전체 수준에 알맞는 교재선택이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회일을 토요일로 옮겨 청소년·청년층을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또 각계 각층의 불자들이 회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법문 수준을 바꾸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초교리는 물론이고 경전강의, 설법, 참선, 회원연구발표회 등 다양한 주제의 법회 운영이 필요하다. 대구에는 40여개의 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신행단체들을 거사들이 중심이 되어 끌어나가야 한다. 거사들은 여성 불자들에 비해 사찰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이 취약하다. *불교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 등을 통한 보시행 실천도 필요하다.

"사찰·단체와 유기적 연계"

엄영건〈부산불교거사림회 회장〉



한국불교를 흔히 보살불교라고 한다. 거사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에 쫓겨 종교를 의존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거사회 활동의 근간은 개인의 수행과 정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개인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알음알이의 종교는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며 생활속의 전법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탐·진·치 삼독심을 비워나가기 위한 철저한 실천 수행으로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기본부터 바로 세워나가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 수행을 바탕으로 거사회 활동을 통해 다진 신행과 깨달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거사회가 사회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직장내의 거사모임을 활성화하고 적극 구성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거사회가 배타적인 거사들만의 모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승가나 보살회, 기타 신행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랜 거사림회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다.

그리고 조직의 발전은 반드시 투명한 재정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각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주인의식 고취로 이어져 조직의 기반을 튼튼히 해 줄 것이다.

혼탁해진 세상에서 맑은 법을 지켜나가는 거사회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변화만이 침체된 거사회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독자투고

도올강의 진리왜곡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도올 김용옥선생은 경력으로나 학문으로나 대중에게 알려진 이력으로 보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세속적인 유명세나 학문의 경지 또는 학벌이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문은 일종의 개념에 대한 약속체계이다. 학문은 학자들의 불성에 새겨진 기록물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학문에 의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과학적인 이론이나 법칙들도 현재까지는 모든 자연현상을 그 법칙들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도구가 개발되어 새롭게 발견된 자연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어질 때 그 법칙과 이론은 수정되어야 하므로 영구 불변하는 진리는 아니다.

나는 도올선생의 강의중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남는 것은 역사이며, 육체나 정신은 다 사라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진라를 참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역대의 영웅호걸들은 역사속에 살아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의 영원불멸의 불성이다. 그 불성을 그 분들이 보아(견성), 그 입장에 서면 모든 선문답의 의지를 알게 되고 앙산의 여래선과 조사선의 도리도 확연해 지는 것이다. 도올선생은 진리를 그릇 오도한 발설지옥의 과보를 두려워 해야 할 것이다.

박민수
(참선교육원, minsoozen.pe.kr)

목탁소리

불교왜곡 대응 시점은

김 중 근 〈취재2부 기자〉

불교가 수승한 것은 대자대비한 불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자들은 이러한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무책임했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거침없이 밀려드는 각 종교의 치열한 선교의 한 가운데서 불법은 방치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율·론에 대해 잘못된 해석과 주장이 난무해도 항변하는 이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거물급(?)이면 불교계는 미동도 못했다. 김용옥씨의 경우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오류가 있음에도 대부분이 내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방관만 해온 것이 저간의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불교는 도둑이 주인행세를 해도 아무말이 없는 형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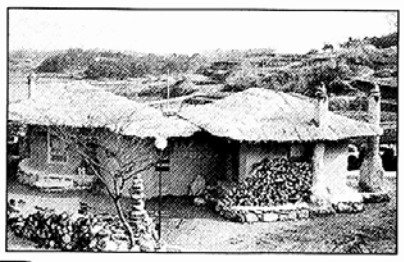
우리는 질문에 대한 무반응이 거절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불교가 동그라미인데, 세모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는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지속돼다보면 정법의 자리에 사법이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무반응은 곧 불교왜곡의 시발점이란 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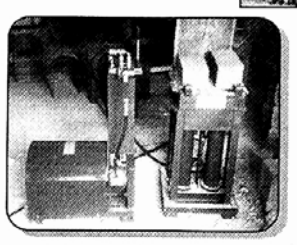
변상섭씨의 신간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가 출간되면서 김용옥씨에 대한 불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옹호론을 펴는 쪽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이제야 형성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의 문제는 바로 이 점이다.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말이 없다는 것이다. 불교인들의 깨어난 의식과 진취적 정신이 새삼 아쉬워진다. 이제는 불보살의 명호를 염송하고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는 불자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들이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사이 외부의 힘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한 소장학자가 이런 상황에 '정법수호'란 역사적인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으로 오랜만에 많은 불자들의 호응을 얻은 쾌사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이다. 무엇보다 불교지식인들이 먼저 깨어나야 할 것이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불재를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을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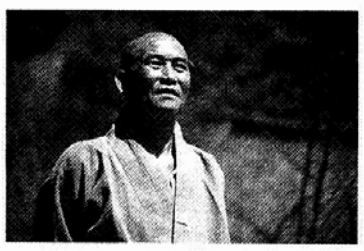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를 맑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 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불면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
선식 검정콩 '金단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8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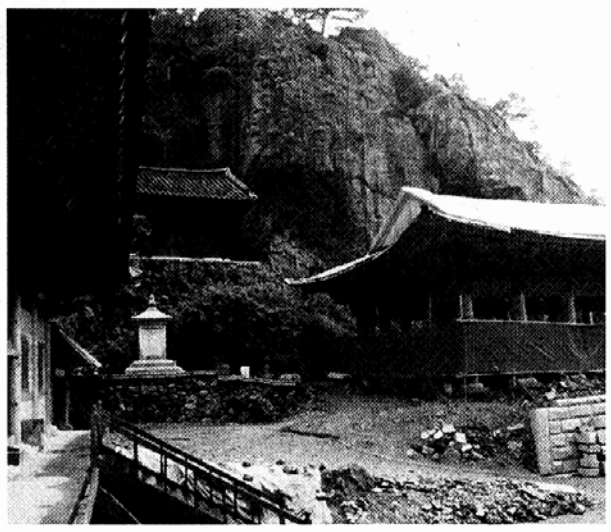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무분별한 증·개축 멍드는 전통사찰

주변환경 조화무시 크고 화려하게

846곳중 100여곳만 원형 그대로



◇대구시 남구 대명동 비슬산에 위치한 전통사찰 안일사 대웅전 개축전경. 97년 시작된 공사는 건자재를 잘못 쓰는 등 부실시공으로 중단되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지만 전통사찰의 풍모를 잃은지 오래다.

지난해 6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S사(寺)는 진입로에 새로운 요사채를 짓고자 했다. 이 지역의 대표적 전통사찰인 S사는 당초 겹처마에 대리석 주초석과 원통형 대들보 등의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겹처마는 홑처마로, 대리석은 자연석으로, 원주는 각주로 각각 바뀌었다. 이미 들어선 전각과 요사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은 주변과의 조화를 무시한 채 거대한 건물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S사와 같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한다.

현재 전통사찰 수는 총 846개(99년 8월 기준). 고건축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찰의 수는 100개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 고창 선운사와 익산 숭림사에는 승방이 새로 들어섰고, 전북 승주군 송광사에는 비좁고 낡은 대웅전 전면에 4배에 달하는 대웅전이 세워져 고찰의 조형미를 잃은지 오래다. 종합예술학교 김봉렬 교수는 "전통사찰의 증·개축은 문화재 보수·복원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에는 절 살림의 규모를 키우기에 집착한 나머지 본래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복원은 '보존'의 한 형태이다. 여기에는 △문화재를 쓰면서 보존하는 활용보존 △유물 형태로 보존하는 유물보존 △복원으로 나뉘는데, 이중 문화재 보존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활용보존'이다. 그 다음이 '유물보존'이며, 이도 불가능할 경우 비로소 복원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통사찰의 건축물인 경우, 완벽하게 과거를 재현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될 정도이다.

이처럼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특별한 가치'를 갖는 데에는 고미술품으로서의 입체성과 역사유물로서의 현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전통사찰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증·개축은 이같은 방향과 동떨어지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 공사 역시 그렇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문화재보호법·전통건축보존법 등 법적 장치가 있지만, 대부분의 전통사찰에서는 재산권 행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구잡이식' 중창불사를 하고 있어 전통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매장유물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98년 4월 성보보존위원회령을 통해 전통사찰의 증·개축시 종단의 사전 심의를 권고했으나, 이 절차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개월 동안 종단의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겨우 24건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들 사찰 대부분 기초 공사를 시작한 상태라는 게 조계종 총무원의 설명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미술공예실장은 "국가 지정 고건축물이 있는 사찰은 문화재청에서 관여하고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경우, 고건축 자체가 훼손될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에 대한 해당 사찰 주지스님의 인식 부족이 건축물 하나하나에 함축된 '절제미' '조형미'를 외면한 채 무조건 화려하고 장엄하게만 치장하려는 과욕으로 연결되어 졸속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재 논의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은 전통사찰 보존 방식 자체를 바꾸고 종단 내 '건축위원회'(가칭)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즉 전통사찰 내 특정 건축물만 문화재로 지정해 그것만 유지 보수하는 '부분 보존'으로부터 건물을 둘러싼 전체 공간을 유지 보수하는 '전체 보존'으로 보존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공사의 범위, 방법, 범위 등을 세심히 검토하고 관단해 전통사찰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안무 - 백현순
의상 - 이기향
영상 - 육정학

의기투합

무용극 '비늘' 무대로

세 사람의 불자 예술가가 의기투합해 새로운 형태의 무용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11일 서울 대학로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무용제전에서 선보인 현대무용 '비늘'이 바로 그것. 백현순씨(창원시립무용단 상임 안무가)와 이기향교수(한성대 의상학부), 육정학 교수(경북외국어테크노대 영상제작학부)가 함께 고민하고 제작한 이 작품은 척박한 불교무용계의 현실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무용 '비늘'은 업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본래 자기 안에 내재돼 있는 불성(佛性)을 되찾아 해탈한다는 주제를 춤과 의상 그리고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단순히 불교적 소재를 차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인간의 내면세계를 번뇌와 불성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총 3장으로 구성해 보여준다.

제1장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향해 꿈틀거리는 정자의 이미지를 12명의 무용수가 표현한다. 그 앞에서 본래 부처인 주인공이 비늘같은 느낌의 의상을 뒤집어 쓰고, 내면의 모습을 관조하는 동작을 춤으로 나타낸다.

제2장에서는 탐진치 삼독에 물든 고통 가득한 인간의 삶을 검은색과 흰색, 강렬한 주홍색, 파스텔색조의 의상과 몸짓으로 표현해 내고, 업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드러낸다.



◇11일 대학로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무용제전에서 초연된 현대무용 '비늘'

이윽고 깨달음에 다가가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윤가미같은 번뇌를 하나둘씩 벗어내고, 환희하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제3장에서 섬세하게 표출해 내고 있다.

'비늘'을 안무하고, 공연에 직접 나선 백씨는 "업의 소산인 나라는 존재가 업 이전의 세계를 관조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해탈하는 과정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이기향 교수가 제작한 의상과 육정학교수의 영상을 통해 춤의 주제를 더욱 명확히 나타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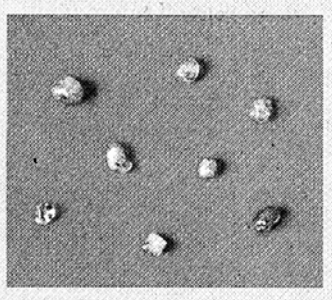
이 무용에서 의상을 맡은 이교수는 업의 굴레를 종이고리를 일일이 말아 연결한 독특한 형태로, 다양한 인간의 번뇌는 나뭇가지와 색색깔의 의상으로 구현했다. 무용가 백씨의 남편이기도 한 육교수는 떨어지는 물방울과 도심 한복판에서 꿈틀대는 물고기의 형상, 시냇물을 따라 흐르는 불상의 모습 등으로 내면의 갈등 과정을 춤과의 절묘한 영상조화로 이뤄냈다. 또한 구음(口音)과, 북장단, 목탁소리 등을 이용해 범패같은 느낌을 주는 배경 음악까지 한데 어울려 불교 현대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지난해 9월 영산회상의 극적인 이미지를 승화시킨 작품전 '영취산의 환희'를 통해 이미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이기향교수와 백현순씨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새로운 무대를 준비한다.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비늘'과 '영취산의 환희' 등 기존 공연물과 새로운 창작물을 통해 '반만년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경 대구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이교수는 "전통의 기반 위에 불교문화를 응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춤과 의상, 영상이 만나는 예술적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화엄사 동오층석탑 유물 공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7일 부처님 진신사리로 추정되는 사리 8과 등 구례 화엄사 동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유물 10여점을 공개했다.

연구소는 "사리 8과는 지난해 10월 동오층탑을 해체하던 중 1층 탑신부에서 나온 것"이라며 "납성분이 많이 포함된 사리병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 이전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엄사에서는 이전에 서오층석탑 탑신부에서도 부처님 진신사리로 추정되는 사리가 나온 바 있다.

연구소는 이밖에도 "동오층탑에서 불상 뒤에 붙이는 금동광배와 불상좌대는 나왔으나 정작 불상은 발굴되지 않았다"며 "일제시대 등 후대에 탑의 내용물이 도굴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높이 9.5㎝, 폭 5.7㎝의 금동광배는 가장자리를 화염문으로 장식하고 내부는 연화당초문을 배치하였다.

오종욱 기자

결식아동돕기 합창제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25일 안양문예회관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이 결식아동돕기 합창제를 25일 오후 7시 안양문예회관에서 연다.

이번 합창제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끼니를 거르는 결식 아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같은 또래의 어린이 불자들이 평소에 닦은 음악적 기량을 통해 모금을 하고, 이를 결식아동을 위해 사용한다는데 의의가 깊다.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은 90년 창단 이후 동국대가 주최하는 '연꽃합창제' 등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지난해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운문스님 기념음악회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날 합창제에서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은 '내 마음의 주인' '안에서 찾자' 등의 선법가와 창작동요, 수화노래 등을 선보이며, 한마음선원 거사합창단과 청년부 합창단도 찬조출연한다. (0343)470-3100

불교인터넷TV '봄단장'

7개 채널 특화 볼거리 제공

불교인터넷TV(대표 임동민)가 13일 봄철을 맞아 계층별 기호에 따라 시사보도, 어린이, 강좌, 다큐 등 7개 채널로 분류해 특화하는 새 단장을 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동국대 연극영화과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돼 선(禪), 사찰, 불교교리 등 불교를 소재로 제작하는 5분 안팎의 인터넷 드라마 '동상이몽'. 이 프로는 한 주제를 가지고 연속극 형식으로 만들어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겠다는 의도로 기획됐다. 또 'BIT 단편극장'을 신설해 국내외 우수 단편 영화를 2주마다 한 편씩 소개한다.

사이버 법당도 기존보다 한단계 발전시켜 사이버 주지 원광스님을 모시고 사이버 공간에서 완전한 신행 생활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찬불가 코너, 영상 설법, 사이버 축원 등을 신설해 포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강좌 채널도 다양한 볼거리가 풍성하다. 특히 원효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소장학자 고영섭씨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 설명해 주는 '고영섭의 원효기행'과 동국대 최봉수교수가 초심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최봉수의 불교 입문'도 불자들의 신행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신시대(新時代) 신세대(新世代)를 위한 신행수첩!

진작에 이런 경전이 나왔어야 했다.

선물용(膳物用)으로 최적(最適)!

■ 시스템 다이어리식으로 기획 · 제작되었다.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하다.

■ 불자(佛子)들이 원하는 내용은 거의 망라되었다.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물에 젖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에 인쇄되었다.
- YUPO지에 인쇄되었다.

■ 가로쓰기에 내용이 미려하다.
- 원색인쇄를 했다.



■ 중요내용을 찾기가 아주쉽다.
- P.V.C. 인덱스를 다섯부분으로 배치하였다.

■ 법당에서 독송하기 편하다.

■ 신행생활(信行生活)에 유익한 공간이 기획 되었다.
- 신행생활(信行生活)과 성지참배기(聖地參拜記)를 요약기록할 수 있다.

■ 내용을 재구성 하기가 편리하다.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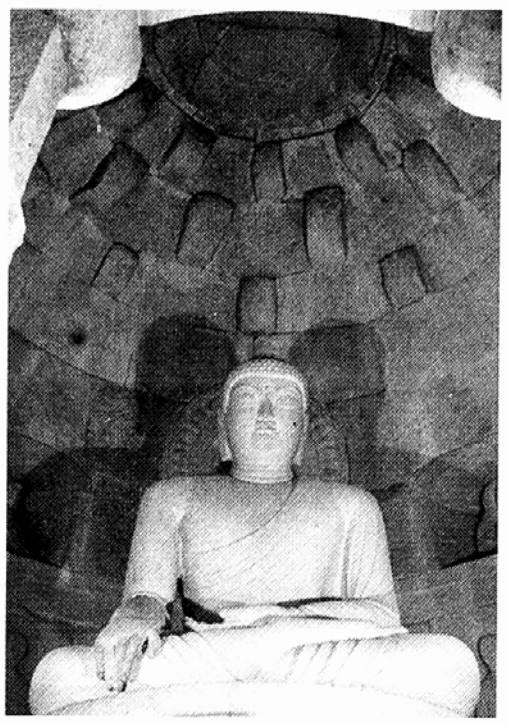


拏元企劃 TEL. 02)3492-5885 H.P. 017-742-8815 정가:25.000원



"석굴암 본존불은 항마석가불상"

문명대 교수 '토함산 석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토함산 석굴. 이 석굴의 형태는 신라시대 범종과 유사한 원뿔형의 수미산 모습으로 불국의 우주를 상징하며, 본존불은 〈관불삼매해경〉〈다라니집경〉 등 대승불교의 도상경전에 따라 조성된 '항마석가불상'이다.

20여년간 불교미술 연구에만 몰두해 온 동국대 문명대 교수(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장)가 토함산 석굴의 소의경전과 원형을 추적한 〈토함산석굴〉(한언)을 출간했다.

도상경전 따라 조성

이 책에서 문교수는 "본존불은 〈관불삼매해경〉〈다라니집경〉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군이나 마녀들에게도 항복 받고 이들을 영원히 구제하는 대승정신의 결정체인 항마석가불상"이라고 설명한다.

미술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석굴 본존불의 소의경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방광대장엄경〉 등에 근거하고 있는 석가팔상도로, 깨닫을 때의 일시적이고 소승적인 항마성도상이라고 언급해 왔다.

문교수에 따르면 석굴암은 전세와 현세의 부모를 기리고 또 외적으로부터 국가의 평안을 염원하는 데에서 조성했다는 〈삼국유사〉 등 문헌의 기록들은 〈관불삼매해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된다고 한다. 특히 불상의 방향과 크기 등 세부적인 면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문교수는 이 책에서, 신라시대 고승 현장·법현 스님 등이 인도와 간다라 지역을 순례하고 남긴 〈대당서역기〉등의 문헌에서 당시 신라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부근의 나건하라 석굴의 본존불에 대한 도상학적 특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신라인들은 토함산 석굴을 통해 나건하라 본존불을 재현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나건하라 석굴의 본존불 역시 〈관불삼매해경〉의 도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은 간다라 지역인 파키스탄의 스와트 붓카라 제2사원 석굴에서 토함산 석굴의 원형을 찾고 있다. 붓카라 제2사원지는 흙산을 절단하고 작은 전석(傳石)으로 쌓은 축조 석굴로, 커다란 판석으로 축조한 석굴암 석굴과 건축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교수는 "돌을 쌓아 만든 석굴은 간다라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서역과 중국 그리고 신라로 전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층목조전실 가능성

또 이 책은 석굴의 외부 구조가 현재와 같이 단층목조전실이 아닌 2층 이상의 '다층목조전실'이었음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석굴암보다 조성시기가 앞선 중국의 돈황·운강·용문석굴 등에는 모두 2층 이상의 목조전실이 있다.

408쪽 분량으로 엮인 이 책은 토함산 석굴 관련 학술 논문 이외에도 3년간 촬영한 토함산 석굴 컬러 도판 150장과 실측도면 46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토함산 석굴과 불상군에 대한 완전한 원색 도판과 3구의 석불상에 대한 정밀한 실측도면을 갖춘 경주 석굴암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연구 저서로 크게 주목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참나 만나는 깨달음이야기

우학스님 수필집 '산위의 눈뜬 물고기'



"깜깜한 밤에 산길을 나섰다. 나를 따라붙는 한 청년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사람이 무섭지 않게 되었다. 깡패든, 도둑이든 말을 붙이면 좋은 친구다…."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를 펴내 화제를 모았던 우학스님(영남불교대학 학장)이 '참나를 만나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산위의 눈뜬 물고기〉(해들누리)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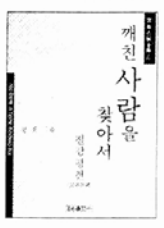
불자들을 바른 삶과 신행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이 책은, 우학스님이 법회, 상담 등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참나를 찾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아는 것은 남의 것이고 깨닫은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남의 것에 불과한 것이다. 깨닫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며 "그 깨달음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때)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우학스님의 〈산위의 눈뜬 물고기〉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자신의 거울을 닦아 참나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참으로 반가운 책이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정휴스님 전집 셋째권

'깨친 사람을 찾아서'



만공·한암·용성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에게 '판치생모(板齒生毛·앞 이빨에 털난 소식을 아는가)'의 화두로 깨침을 인가받고 그들과의 법거량을 통해 선풍 진작의 한 획을 그었던 전강선사의 평전인 〈깨친 사람을 찾아서〉(우리출판사)가 정휴스님 전집 세번째 권으로 출간됐다.

전강선사는 경허와 만공선사의 법맥을 전승한 선지식이었고 생사를 자재하는 선기를 지닌 대종장이었다. 누구나 선사 앞에 가면 범부는 성인이 되고 번뇌는 깨달음으로 변해 출신활로를 열어 주었으며, 미혹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자성을 통해 부처를 빚어내도록 한 지혜가 있었다고 회자되었던 선승이다. 전강선사는 우리에게 일생동안 바른 깨달음과 견해를 갖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게 그를 접해 본 후학과 문중스님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냉엄하면서도 한없이 자비스런 마음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 주었던 전강스님은 중국선사들의 선풍을 궤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할과 방을 스님 특유의 선풍으로 진작시켜 간직했고 이를 통해 후학들을 지도했다.

〈깨친 사람을 찾아서-전강평전〉은 전강선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법어를 통해 스님의 선과 수행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오색시리즈' 완간한 구미래씨

"행간마다 삶의 지혜 가득"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
다섯 주제별로 엮은 잠언집

"게송 등 짧막한 이야기를 통해 불법의 진수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최근 〈지혜의 길로 이끄는 이야기〉와 〈죽음의 재를 태우는 이야기〉(한세)를 끝으로 다섯 권의 오색시리즈를 완간한 구미래씨(44·도서출판 한세 대표)는, 불서를 펴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곧 신행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지난 98년 첫선을 보인 오색시리즈는 행복, 사랑, 수행, 지혜, 죽음이라는 삶의 다섯 가지 주제로 엮은 잠언집이다. 이 시리즈가 주목을 받는 것은 행간에 숨어 있는 삶의 지혜이다. 뚜렷한 주제 없이 동서양의 우화들을 모아 엮은 기존 잠언집이나 우화집과는 달리,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이야기에 담긴 참뜻을 풀어놓고 있다. 또 이야기마다 수록된 변상도(變相圖)도 이해의 폭을 넓게 해 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 경전의 교리적 의미를 한 폭의 그림으로 요약·함축한 변상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전의 세계로 친근하게 이끄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 구씨의 생각이다. 이 책에 실린 변상도는 고려·조선시대 목판 경전의 그림으로 이야기의 상황에 맞게 수록했다.

이야기의 출처도 방대하다. 이에 대해 구씨는 "우리 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일본 등 동양 여러 나라의 불교 경전과 고서에 기록된 내용, 스님들의 일화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롭고 사색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구씨가 오색시리즈를 내게된 것은 선배의 권유로 〈Zen Flesh, Zen Bones〉을 번역하면서부터이다. 그는 '골선육선(骨禪肉禪)'이라는 제목으로 선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모아 엮은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선(禪)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선은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그중 하나. 구씨는 '선의 보편화'를 위해 92년부터 불교경전과 고서의 번역본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수집한 교훈적인 이야기는 약 2천여 개. 이를 바탕으로 93년 〈마음으로 보는 지혜〉(책과 사람들)를 출간했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그래서 구씨는 고민 끝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 사랑, 수행, 지혜, 죽음'이라는 주제로 바꾸어 새롭게 출간했다. 그 책이 바로 오색시리즈 5권이다. 최근에는 법보시용으로도 많이 찾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

구씨는 "이야기들을 읽고 모으면서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경전 곳곳에 묻혀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지침서가 될 것 같아 출간하게 됐다"고 오색시리즈 완간의 의미를 밝혔다. 값 각권 4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떠나라, 그대 낯선 곳으로**(법현스님 지음, 들녘)= '젤로 켜는 비구니'로 잘 알려진 법현스님의 자전 에세이집. 아버지의 가출로 동생들을 공부시키며 힘겹게 살아온 젊은 날의 이야기에서부터 출가한 사연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인생 역정을 털어놓고 있다. 특히 농부의 겸손함, 고아가 가르쳐준 보시의 의미, 부석사에서 깨달은 자연에 대한 경의감 등은 진한 감동으로 다가 온다. 값 7천원.

▲**세포여행**(프랜보크월 지음, 막볼프 그림, 한현숙 옮김, 승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벨상 수상자까지 모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만화 스타일의 책. 인체는 수백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피부, 근육, 뼈를 만들어 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세균과 싸우기도 한다. 이 그림책은 그 많은 세포들이 단 하나의 세포에서 성장하여 결국은 사람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91년 코퍼스 과학 도서상 수상작. 값 4천5백원.

▲**시들지 않는 또 하나의 시간**(김주곤 시집, 새미)= 경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주곤 교수의 시집. 고향과 어버이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1부 '향수에 젖은 마음'을 비롯 '사랑의 소야곡', '잎 지면 눈 내리고', '솔바람 짙은 향기' 등 모두 8부로 구성된 이 시집에는 95편의 시가 들어 있다. 문무학(문학평론가)씨는 "만년 청년 김 교수의 푸른 정신과 불심이 시들지 않는 또 하나의 시간으로 연결된다"고 평했다. 값 5천원.

▲**어머니와 나**(서돈각 외 62인, 연꽃마을)= 어머니! 여기에 더 어떤 수식어가 필요할까. 구구절절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을 비롯 시인 신경림, 국회의원 조성준씨, 성악가 엄정행씨 등 63인이 털어놓은 어머니에 대한 옛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 값 8천원.

▲**불사 및 기도 안내문 모음집**(설법연구원 엮음, 솔바람)= 대웅전, 극락전 등의 전각 건립에서부터 불상조성·종·탑·가사·단청·개금 불사에 대한 모연문이 총망라돼 있다. 부처님오신날, 우란분절, 성도·출가·열반재일 등 주요법회와 관련된 안내문도 수록돼 있어 요긴하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상섭	시공사
3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4	금강경 강해	김용옥	통나무
5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림
6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7	노자와 21세기(상)	김용옥	통나무
8	선방일기	지·허	여시아문
9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10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미첼	여시아문

도서 안내:(02)737-0695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책들입니다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화제의 신간



첨단 의학의 틈새를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비방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체질을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호흡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12,000원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에세이!
끌리지도 말고 몰리서지도 말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오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스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에세이!
한 스님의 좌충우돌로 맺어지는 인연의 야단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자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비디오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스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 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스 한 장이면 뚝! 각종 '남산스님의 파스요법'이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판매공급처 :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값 20,000원

※ 관절염, 류머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방문사절, 전화상담- 0502)988-6565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대표전화 3471-5008 팩스 :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신국판/140쪽/값 5,000원

원혜 스님의 아름다운 생활수행

당신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제가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 처음으로 출가 발심할 때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이라면, 첫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첫 아기의 미소를 바라볼 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
처음 절에 왔을 때, 처음 절에서 마주쳤을 때의 당신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표정이 상대를 부처님의 품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환희심에 가득찬 신행생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활수행> 중에서





<아름다운 생활수행>에는 원혜 스님의 깊고 따뜻한 사려가 담겨 있다. 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예절', 특히 사찰 예절과 대중 화합 공동체 및 가정 생활 등에서 불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예절로 풀어 놓았다.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을 닦는 것'이니 곧 수행의 연장이라는 원혜 스님의 예절론이 신선하다.

저자 원혜 스님은
마곡사에서 득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봉은사 주지 소임중.

봉·은·출·판·부
전 화 (02) 547-4255
팩 스 (02) 516-6885

21세기와 역경

1.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2.역경원은 불교학의 견인차
3.디지털시대와 역경
4.역경사업 활성화 과제

예산확보-인력양성-용어통일

한글대장경 개정 '오늘의 언어로'
도서관용서 탈피 누구나 읽도록

고전에 대한 해석은 늘 새로워야 한다. 그래야만 오늘의 언어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바꾸는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번역 사업또한 불교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경전의 번역은 여타의 고전 번역보다 훨씬 까다롭다. 번역어의 선택, 교리, 종교적 관습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간과 더불어 시작되는 역경원의 〈한글대장경〉 개정작업도 이러한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작업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역경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탓이다.

역경원 편집부 김두재 과장은 "역경원에서 정부에 개정작업을 위한 예산 신청을 해 놓았지만 10년내 300권이 넘는 분량을 CD롬 작업 위주로 개정한다는 자체가 무리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번역의 내용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하나 양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다시 지난날의 전철을 밟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 8명의 편집부 인력으로는 교정하고, 편집하는 작업만도 벅차다는 것이다.

역경원은 설립 이후부터 항상 재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는 곧 제작의 어려움으로 직결됐다. 역경원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국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역경사업은 늘 난제에 부딪쳤다. 현재 역경원이 개정작업 지원금을 신청해 놓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조계종은 이미 62년 역경을 종단 삼대 사업의 하나로 천명한 바 있지만 여전히 역경은 여타 종단 사업들에 밀려 뒷전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말로만 종단 삼대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계종의 지원도 더 확대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역경원이 공격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창출해 내는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현재의 〈한글대장경〉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생소한 경전들도 많아서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강경〉 〈법구경〉 〈법화경〉 등과 같은 유명 경전을 읽기 쉽고, 휴대하기 쉬운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그 이윤을 〈한글대장경〉 개정작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팔릴 수 있는 책을 만들지 않고서, 수익성 없는 사업에 무조건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근본 대책은 아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맡겨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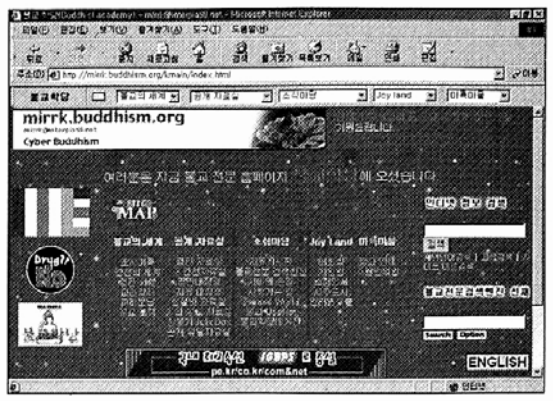
역경 인력의 확충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현재까지 1백여명이 〈한글대장경〉 번역에 참가했으나 체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설립 초기에는 용주사 역장에서 교육을 받은 스님과 역경사들이 역경을 맡아했으나, 중간에 흐지부지되자 역경사업 역시 침체를 맞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94년 역경사업이 본격화되고서는 역경을 전담할 인력이 부족해 민족문화추진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번역자들과 한문학자들을 시역을 통해 충원했다. 또 각 전공별 젊은 학자들을 역경위원으로 위촉해 번역내규를 정하는 수준에서 번역을 맡겼는데, 이는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 역경이라는 것이 한문만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부분적인 불교이해로 해결되는 단순한 일이 아니어서 곳곳에서 오역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인력난이 도움을 줄 중앙승가대학 불전국역연구원이 93년 설립되었지만 역경원의 역경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인재가 없어서 역경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라 역경사업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역경사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경 용어 통일도 풀어야 할 과제다. 용어 통일 문제가 해결해야 개정작업도 원만히 할 수 있다. 〈한글대장경〉내에서도 한문 원전의 용어가 구역이냐 신역이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실례로 갠지즈강의 경우 어느 경전에서는 '항하'로 음역하는가 하면, 또다른 경전에서는 '갠지즈강'이라는 인도 현지음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처럼 〈한글대장경〉내에 역사적 시제만 다르고,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들은 표준화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같은 용어의 통일은 결국 〈한글대장경〉을 모본으로 실시될 영역화 작업과 전산화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역경사업은 더 이상 역경원만의 일이 아니라 범불교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역경사업의 난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위에 열거한 활성화 방안은 이전에도 수차례 논의돼 왔던 것이다. 이들을 그저 과제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역경사업의 주체라는 인식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2000년대에도 역경사업은 여전히 대형 건물 불사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학당

교리강좌·문화재 정보등 제공
온라인 공부방 개설…토론장도

불교와 사회, 불교와 문화 등 불교를 이해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국내 불교 관련 사이트를 꼽자면 단연 '불교학당'이다. 21세기를 선도하는 불교 전문사이트를 표방한 이 사이트는 98년 12월 개설된 이래 수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불교학당은 서비스의 양적 수준에서 다른 불교 관련 사이트와 차별화된다. 다른 사이트들이 단편적이거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비해, 불교학당은 적멸보궁, 이달의 법문, 경전의 세계, 자유게시판, 기초교리, 교리·신행문답, 불교 관련 링크, 불교 관련 자료실, 불교 신간 안내, 메일링 리스트, 문화 센터, 쇼핑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에서는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중계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며, ▲불교 관련 자료실에서는 각종 경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교 관련 링크에서는 추천 불교사이트, 불교 단체 및 기관, 각 사찰 홈페이지, 불교 행사 및 대회, 불교 관련 개인 홈페이지, 불교문화 및 불교 관련 사이트 등 분야별로 각종 불교 관련 사이트들을 링크시켰으며, ▲불교문화센터에서는 문학, 음악, 미술 등 장르별로 각종 자료를 등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불교학당 메일 매거진 서비스를 개설해, 사이버 포교당인 불교학당의 소식뿐 아니라 교리강좌, 문화재, 교계 뉴스, 실참 수행, 생활정보 등의 정보를 '이지 페이퍼'나 '인포메일'을 통해 불자 네티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현재 10대에서 40대까지의 3백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불교정보 공유화'를 추구하고 있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온라인 공부방을 개설해 놓고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추천한 불교 서적을 읽은 불자 네티즌이라면 누구든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여곡의 찬불가를 서비스하는 '찬불가 주크박스(Juke Box)'를 이용해 법음도 들을 수 있고, '불교유즈넷'과 '인터넷 호출기'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법우들을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인터넷 상에서 '장경각'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불교학당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철학·종교 분야에서 '한국 웹 100'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이트의 그래픽이 아직은 깔끔하지 못하고, 자료 역시 지속적인 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웹 디렉터 박형근씨는 "온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등록하고 서비스를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현재 불교전문 검색 엔진인 '선재'를 완성하고 시험운영 중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mirrk.buddhism.org

"주희 공부론 체계완성 불교·도교의 영향컸다"

김미영씨 '주희의 불교관…'서 주장

대표적인 유학자인 주희의 공부론(工夫論) 체계 완성은 불교수행론의 유학화다.

김미영씨(고려대 강사)는 11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월례발표회에서 '주희의 불교관에 나타난 유불수행론의 경계'를 통해 "유교의 수행론인 공부론이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불교의 수행론을 차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발표문에서 불교중심사회에서 유학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상계의 풍토는 유불상호간의 교섭을 통한 상호전환에서 이뤄어졌다고 보고, 주희를 통해서 송대 이후 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불교를 넘어서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게 되었는가를 살폈다.

김씨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불교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인식됐던 공론과 견성론에 대한 주희의 입장을 고찰하고, 주희의 공부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격물공부((格物工夫)는 바로 실(實)로서 이(理)를 강조하는 전제에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철저히 현세간 중심이던 유학은 현세간에서의 행위 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고 옳은 것을 배양하고 삿된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행의 방향을 체계화시켰으며, 그 옳고 그름의 잣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론적 근원이 이(理)라고 밝혔다. 또한 공론과 견성론에 대한 비판은 주희가 불교비판을 통해서 수립하게 된 공부론의 성격 내지는 이론적인 틀을 형성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루게 된 사상적인 성과는 기존의 다른 사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했던 유학의 수행론인 공부론 측면의 체계화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결국 불교나 도교에 비해 수행이론이 미약했던 유가가 명청대에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학자들이 당대 유행했던 불교나 도교의 수행체계를 흡수하여 자신의 이론에 맞게 재구성한 결과"라면서 "수행체계에서 방법론상의 유사성은 많으나 독자성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자 기자

불교학술단체 월례발표회 잇달아

봄을 맞아 각 학술단체들이 월례발표회를 재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매월 새로운 주제로 전문분야의 연구자를 선별해 진행하는 형식의 월례발표회는 최근 1~2년 들어 학술단체들의 새로운 학회운영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 월례발표회에는 전문연구자나 소장학자뿐 아니라 해당분야의 학문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어, 기존의 학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한국선학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에서 제1회 월례발표회를 연다. '북미주 학계의 선불교 연구현황'과 '수선사의 현실 참여와 간화선'에 대해 논의한다.(02)2260-3135

한민족운동사연구회 월례발표회는 18일 오후 2시 대우재단 빌딩 3층 강연실에서 진행된다. 제1주제 '1910년대 30본산연합사무소의 설립과 변화', 제2주제 '1930년대 조선불교계의 심전개발운동', 제3주제 '광복군의 OSS활동' 등이 발표된다.(02)780-3158

보조사상연구원도 제26차 월례발표회를 25일 오후 2시30분 법련사 불일회관에서 연다. '보조지눌과 동학의 수심체계 비교연구'에 대해 정혜정박사(동국대 교육학)가 발표하고, 이덕진박사(고려대 철학과)가 논평한다.(02)733-5335

한편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는 1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인문관 8층 대강의실에서 제8차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이은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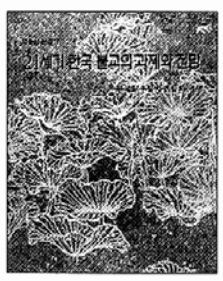
학술단신

교수불자들 논집 출간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가 교불련 논집 제7집 〈21세기 한국불교의 과제와 전망〉을 발간했다.

이번 논집에는 '20세기 종언과 21세기 시작을 위한 불교의 역할' '21세기 한국불교의 좌표' '한국불교 정보화과제' 등 총 17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법륜불자교수회(회장 신준식)도 〈불교와 학문의 만남〉을 펴냈다. 총3부로 구성된 이 책은 회원들의 논문18편과 고승대덕의 법문11편, 회원들의 수행 에세이 6편 등 총35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학술연구비 지원 공모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연구 논문 지원'과 '윤독회 지원'의 두 분야에 걸쳐 학술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 논문지원분야는 선불교와 그 관련 분야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한 참신한 내용으로 불교학의 지평을 연 논문이어야 한다. 각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 지방승가대학 강사이상 지원 가능하다. 윤독회 지원은 선어록 및 불교학 관계 원전으로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윤독회가 대상이다. (02)744-1542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 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열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대중 청정·화합위해 계 제정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0>

오계상경-4

계 받아 범하지 않으면 성불 인연
범계 후 참회하면 삼악도 벗어나

서계분(序啓分)(經序)

이와 같이 들었다.

한 때에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迦維羅衛國)에 계셨다. 그 때 정반왕이 부처님 처소에 와서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어 예경드리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스로 제도하기를 청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의 뜻을 애민히 여겨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왕이 구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를 위하여 계의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원컨대 여래께서는 또한 저희들 우바새를 위하여 오계에 있어서 참회할 수 있는 것과 참회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시어 계상(戒相)을 잘 알아 의혹이 없게 하소서."

가유라위는 중천축에 있는 나라 이름이다. 의역하여 '황적성' 또는 '묘덕성'이라 한다. 세존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석가족의 국토인데 현재는 이 성이 황무지로 되어 있다. 정반왕은 중인도 가유라위국의 성주이고 세존의 아버지이다. 왕후는 마야 부인이고 왕비는 마하파사파제이다. 정반왕은 76세에 임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에서 부왕(父王)을 근기로 해서 오계의 법상을 청하는 것은, 이 오계법이 삼세 제불의 아버지임을 나타낸 것이다. 오계에 의지함으로써 시방삼세의 일체 제불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교담(Gautama)이여. 나도 본래 오래 전부터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우바새들에게 오계를 분별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선남자가 있어 잘 받아 지녀서 범하지 않는 이는 이러한 인연으로 마땅히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고, 범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이는 항상 삼악도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부처님의 뜻에 계합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기 때문에 두 번이나 찬탄하시면서 '훌륭하고 훌륭하다' 하신 것이다.

불교 계율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부처님이 계율을 미리 정해 두고 그것을 지키도록 제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떤 행위가 승단의 청정과 화합을 깨뜨리는 문제를 야기했을 때 대중의 청정과 화합과 이익을 위해 그런 잘못된 행위를 제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오래도록 하셨지만 청법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부처님의 부왕이신 정반왕이 친히 재가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법을 청하였기 때문에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거듭 찬탄하신 것이다. 인도에서는 성을 부르는 것이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임에도 '교담이여!' 하고 부른 것이다.

누구나 계를 받아서 잘 지켜야 하겠지만 범하지 않으면 곧 부처가 되고, 범하였다 하더라도 참회하지 않으면 삼악도에 떨어진다. 오계를 법계라고도 하는데, 십법계(불·보살·연각·성문·천상·인간·아수라·아귀·축생·지옥)에는 오계를 근거로 나아가는 곳도 있고 오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나아가는 곳도 있다.

계를 잘 받아 지키면서 범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도를 이루겠지만, 계를 받고서 범하는 이는 성불할 수 있을까? 또 계를 범하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항상 삼악도(지옥·아귀·축생)에 머물러 있게 되겠지만, 계를 범하고 난 후 참회를 하는 이는 삼악도에 떨어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계를 받고 범하는 이도 마땅히 성불하게 되지만, 계를 받지 않은 이는 영원히 성불할 인연이 없게 된다. 범하였더라도 참회를 하는 이는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범계의 내용이 상중하로 나누어지고, 참회하는 데도 작법참회, 취상참회, 무생참회의 세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치상으로도 각각의 계에 저마다 밝혀져 있는 것이 다르므로 한 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범하였다 하더라도 참회를 하는 이는 역시 성불할 수 있다.

다음 주에 그 예와 세 가지 참회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해인총림 율원장〉

"받기보다 주며 사는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법회증계

의정부포교원

〈2000년 3월 5일〉



혜승스님
〈의정부포교 원장〉

가정 종교 국가위해 나 버릴 수 있으면 세상도 바꿀 수 있어

며칠 전에 봉선사 운경 큰스님이 열반했습니다. 운경스님은 원래 자비하시고 포교에 적극적이었지요. 종단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면 기꺼이 응하며 도움주시고 법문해 주셨어요. 항상 스님들에게도 포교해야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열반하기 전에 스님을 친견하며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느냐고 여쭈니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하다며 웃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미 스님이 된 사람들은 '나'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대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운경 큰스님이 야말로 바로 그렇게 살다 가신 스님이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님을 생각하며 우리 불자들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한번 품은 계획과 원력을 잊으면 안됩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침 기도 후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원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또 저녁 기도 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다보면 보람있는 일을 했다면 기쁠 것이고, 잘못됐으면 참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1일 광동여고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만해 한용운 스님을 되돌아봤어요. 만해스님의 정신은 우리 시대에 기필코 재현해야 합니다. 만해스님은 용성스님 등 민족대표 33인들과 함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다시 파고다공원으로 와서 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한민족의 독립을 선언했지요. 이날부터 3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은 결국 붙잡혀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민족대표중에도 형을 감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들이 변해갔어요. 그러자 만해스님이 비분강개하여 "너희들이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냐"하면서 오물통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스님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 나라를 찾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뜻을 굽힌 민족대표와 조선총독부를 보지도 않기 위해 총독부 반대편에 자리잡은 심우장에서 줄곧 사셨습니다. 부당한 것에 뜻을 굽히지 않았던 만해스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 불자들은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요즘 이 사회를 보면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는가'라는 회의가 들어요. 3·1절날 희생된 영령들에게 묵념을 올리기보다는 쉬는 날이라고 놀러 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하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관한 일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들고 나로 인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위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모두 고르게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을 잘 받들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바뀝니다. 불자들은 개인주의를 추구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가족, 종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행동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 사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 불자들이 더욱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불자가 됩시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문학성 높은 불서 읽으며 불교 접근

세계의 불교학 <10> 러시아 ①

17~18세기 몽골족서 불교 도입
제정러시아 불학연구 적극 장려



◇러시아에서 초연된 불교창작연극 '먹구름을 뚫고, 태양을 향해'의 공연장면.

도스토예프스키, 부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문인을 배출한 러시아. 이곳의 지식인들은 불교의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언술에 커다란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사론〉과 같은 논장을 주로 연구하고, 〈니카야(아함경 일종)〉〈자타카(본생담)〉등 문학적 요소가 많은 불서들을 즐겨 읽는다.

러시아가 최초로 불교를 수용한 것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부르야트(Burjat), 갈묵(kalmuk) 등 북방 몽골계 민족들의 영토를 식민화할 때의 일이었다. 이들 북방 몽골계 종족은 원나라 이후로 주로 샤머니즘과 습합된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트손카파(Tsonkapa·1357~1419) 계통의 겔룩파(Gelukpa)가 종심적 위치를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제정 러시아는 불학 연구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 국립 동양학 기관 내에서의 불교 연구를 적극 권장했다. 이들 러시아 초기 불교학자가 소속된 동양학 기관 중에서 러시아 과학원 부속 동양학실, 카잔 대학교 동양학부, 성페테르부르그 대학교 동양학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학자 중에서 최초로 불학의 기틀을 잡은 사람은 독일계 러시아 동양학자인 아삭 야콥 슈미드(Issak Yaob Schmidt·1779~1847)였다. 당시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갈묵 민속 연구로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그 후에 점차 관심을 서장학과 불교학 쪽으로 돌리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서장본 〈금강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인도불교사〉를 독어로 역주하는 등 다양한 연구서를 남겼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독어로 쓰인 그의 논문과 번역본들이 서구 학계에 소개되어 널리 읽혀졌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 불학이 처음부터 서구 불교 연구자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라나 서구 불교 연구 발전에 부단히 기여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슈미드와 같은 또 한명의 독일계 러시아 불교학자 로버트 렌츠(Robert Lentz·1808~1836)는 런던에서 필사본 〈보요경(Lalitavistara)〉을 발견해 유명해졌다. 슈미드의 연구 주제를 이어받은 코발레브스키(O.M.Kovakevskiy·1801~1878)는 또한 현재에도 널리 읽히고 있는 〈불교 우주관〉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갈묵학이나 서장학 등의 지역 연구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 불학을 성립시킨 사람은 코발레브스키의 제자인 성페테르부르그대학교 동양학부 교수 바실레트(V.P.Vasilyev·1818~1900)였다. 중국학을 전공하여 청나라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는 중국·서장·몽골·만주 등의 동양 언어의 각종 불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존의 개별 연구에서 벗어나 대·소승의 철학적 요지를 체계화하고 인도·서장·중국불교사 등을 서로 연관지어 연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커다란 계획을 실천에 다옮기 못한 채 〈불교의 교리, 역사, 교화〉 상권만 남기고 생을 마쳤다. 이후 인도학자 미나예프(I.P.Minayev·1840~1890)는 인도 전통 문화의 일부로서 불교의 대의를 파악하려고 하였고, 올덴부르그(S.F.Oldenburg·1863~1934)는 〈본생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등 불교의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바쳤다.

19세기말부터 감지되기 시작한 산업 사회의 내재적 모순에 대한 위기의식은 서구 지식인 사회의 불교 관심을 상당히 높였다. 러시아도 물론 예외일 수 없었다. 이외에도 정권과의 오랜 결탁으로 극히 타락하여 지나친 의식 위주와 미신·기복성으로 진보 지식인의 멸시를 샀던 러시아 정교(Orthodox Church)에 대한 지식인 계층의 부정적 태도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일부 러시아 지식들의 호의적인 수용 태세는 정교와 일부 사상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회 지도층 지식인들의 '종교적 변질'을 감지한 정·교계는 불교에 대한 치열한 사상적 반격을 가하였다. 물론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갈묵이나 부리야트의 전통적 라마교 신앙이 아니라 정치가·시인·소설가들의 친불교적 태도였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름 제4천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래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심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전자신문 인터넷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춤사위에 부처님 가르침 담아요"

산문밖의 一聞 무용가 손재현 동국대 교수

불교 포교무용단 작년 창단
발레에 불교 접목 새장르 개척
무용극 '에밀레종' 초파일 재공연



문화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거세다. 음악은 물론 미술, 무용, 연극, 영상 등 각 분야에 걸쳐 이질적인 것들의 뒤섞임 속에서 또하나의 문화가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기도 하고 음악과 미술이 어울린 자리에 연극적인 퍼포먼스가 행해지기도 한다. 예술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이른바 '퓨전(fusion)푸드' 라는 것이 생겨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국적 불명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장르의 벽을 허물 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길을 트는 이러한 움직임은 '2000, 새로운 예술의 해' 의 주제이기도 하다. 불교계에서도 이런 추세를 이끌며 전통 발레에 불교문화를 접목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포교 무용가가 있다. 지난해 불교 포교 무용단인 '손재현무용단' 을 창단한 동국대 체육학과 무용담당 손재현교수(40세)가 바로 그다.

"대학 시절 스승이 춤을 통해 제자들에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는 목사님의 설교나 인쇄 매체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춤의 선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용을 통해 불교를 일반인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지요."

그러나 손교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 무용의 주류를 이룬 한국 전통 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는 발레만을 고집했다. 이렇게 서양 무용만을 공부해온 그에게 포교 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그가 본격적으로 불교예술과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전. 대중들 앞에 나서서 공연하길 좋아하는 무대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는 무대를 떠나 90년부터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길을 선택했다. 동국대는 무용과가 정규 학과로 개설되지 않아 조건이 좋은편은 아니었지만 종립학교라는 이점 때문에 자신의 공인 서양의 춤과 불교를 혼합한 포교 퓨전 무용을 펼치기엔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서양 무용의 기교 위에 불교 문화를 효과적으로 맛있게 비벼 한국적인 재창조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란 화두는 동국대 부임 첫날부터 줄곧 제 뇌리를 떠나지 않은 큰 화두였습니다."

7~8년 동안 마음 속에만 간직했던 화두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3일. '손재현 포교 무용단' 창단기념으로 동국대 문화예술극장에서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의 주조 과정에 녹아 있는 불심을 주제로 한 불교무용극 '넋의 소리' 를 공연하면서부터다. '넋의 소리' 는 신체언어인 서양 발레에 대사를 삽입한 교계 최초의 무용극이었다. 물론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이었다.

'넋의 소리' 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어 낸 신라인들의 불심과 장인 정신, 그 속에 서려 있는 한과 넋 등을 현대 창작 발레로 표현했다.

"과거에 발레를 공연할 때면 무대에서 내려 온 뒤 왠지 모를 허탈감에 휩싸인 적이 많았습니다. 완벽한 공연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던 과정들이 춤 한동작, 한 몸짓에 실려 순간적으로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무대 밖에서 무용수들을 보니 최선을 다한 춤사위는 관객들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돼 평생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춤사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체의 동작이 아니라 마음 즉 영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포교 무용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넋의 소리' 서울 공연 한달 뒤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일 주일 간 네델란드와 이스라엘에서도 공연되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단일 행사로는 세계 최대 무용페스티발인 '카미엘 국제 댄스페스티발'에 참가해 약 20만명의 관객 앞에서 총 5회에 걸쳐 공연하기도 했다.

"춤이란 게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예요. 춤사위의 한동작 한동작이 바로 '내 마음이 가 있는 자리' 입니다. 무대에 들어서면 무용수는 일단 모든 생각을 무(無)의 상태로 돌려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춤추는 행위 그 자체에만 몰입하여, 춤이 나인지 내가 춤인지 구별이 안가는 경지까지 가야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요."

천년이 저물어 가는 지난해 12월 16일 밀레니엄 페스티발의 기획으로 공연됐던 '월광무' 는 바로 그가 주장하는 몰입의 경지가 잘 배어나온 작품이었다. 비단검무를 비롯해 우리굿과 사물, 국악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신명나는 춤판이었다.

그는 지금 또하나의 작품 구상에 몰입해 있다. 사찰 입구에서 도량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의 표정을 볼 때마다 그들이 짓고 있는 각기 다른 표정들을 무용으로 각색해 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다. 현대 발레와 사천왕의 이미지를 결합해 재미있게 표현한다면 일반인들에게 불교의 상징물을 알릴 수 있는 또하나의 포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그는 올 '부처님 오신 날' 을 전후해 지난해 무대에 올랐던 '넋의 소리' 를, 출연 무용수들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스님역에 실제 스님을 출연시키는 등 내용과 형식면에서 현실감 있게 보완 각색한 '에밀레종' 을 공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주종장들이 종을 만드는 과정과 쌀을 바치면서까지 불도에 귀의하는 정아 어머니의 승화된 불심이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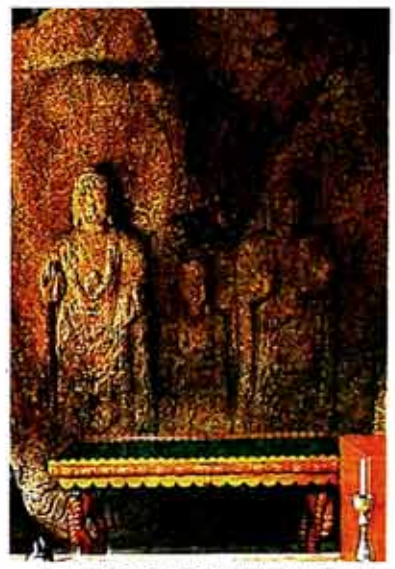


◇지난해 6월3일 동국대 문화예술극장에서 공연된 불교 무용극 '넋의 소리', 주종장들의 역동적이고 빠른 몸놀림이 돋보인다.



◇천년이 저물어 가는 지난해 12월16일 밀레니엄 페스티발로 기획된 '월광무', 서양 발레와 비단검무, 국악, 사물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는 한마당을 꾸몄다.

◇서양의 전통 발레에 불교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장르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손교수는 무용의 동작에서도 심매의 경지를 강조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강건하면서도 세련된 백제불상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태안 마애삼존불.

마애불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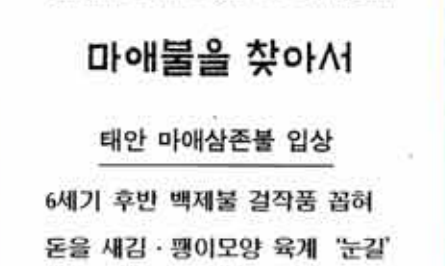
태안 마애삼존불 입상

6세기 후반 백제불 걸작품 꼽혀

돋을 새김 · 팽이모양 육계 '눈길'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서해가 내려다 보이는 백화산의 돌출한 바위에 돋을 새김으로 새겨져 있는 이 마애불은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바위를 파서 감실모양을 이루면서 부조된 이 불상은 우선 중국의 석굴 바깥벽에 새겨진 불상들과 닮았기 때문에 중국 문화와 해상교류의 흔적 내지는 중국 석굴의 영향이 보이는 최초의 예로서 주목되고 있다. 또한 석주에 새긴 예산 사방불을 제외하고는 돌에 새긴 불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는 점도 중시되어 왔다. 이 불상의 팽이모양의 육계, 강건한 얼굴, 당당한 신체와 묵중한 법의 등은 6세기 후반기의 백제불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걸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런 형식은 현재까지 발견된 세계 유일의 예로, 강건하면서도 세련된 백제불상 양식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함께 이 불상의 진가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보물 제432호.

글 · 사진 = 불지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개발
숙면, 쾌변 그리고 氣…
장안 최제 특별! 실용신안 등록 출원(20-0039448)
황토 물침대 겸용 돌침대 탄생!!

옥단 902
딱딱한 돌침대를 물침대로…
2Way Bed … 돌침대로! 물침대로!
돌침대 만들기 10년, 업계가 전자파 제거 기능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특허(등록 0157651호)제품
돌침대의 효능…
◆봄(가을)에 불을 안 넣으면 방바닥이 차고 … 항할 돌침대가 필요할때
◆여름에 세면버닥 축축하고 눅눅한 냄기에 … 리빙스톤으로 시원하게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합니다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분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초정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풍천궁을 풀어줍니다.
◆음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해옙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8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 원적외선의 풍부함을 온가족이 맛 볼 수 있는 기회!
돌침대의 벽을 깼다! 11세대 부터 노어른까지!
주문 밀려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전국 무료 배송!!
돌침대의 名家
氣 리빙스톤 (옥스톤)
본사 · 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

★ '시방세계' 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석

달마 혈맥론(血脈論) ⑥

問曰 汝作夢之時
문왈 여작몽지시
是汝本身否
시여본신부
答曰 是本身
답왈 시본신
又問 汝言語施爲運動
우문 여언어시위운동
以汝別不別
이여별불별
答曰 不別
답왈 불별

물었다. "그대가 꿈을 꿀 때, 꿈 꾼 것이 그대의 육신인가?"
대답했다. "예 저의 육신입니다."
또 물었다. "그대가 말하고 활동하는 것이 그대와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
대답했다. "다르지 않습니다."

師云 既若不別
사운 기약불별
卽此身 是汝本法身
즉차신 시여본법신
卽此法身 是汝本心
卽此法身 是汝本心

透五蘊山 渡生死河
투오온산 도중생하
一切業 拘此法身不得
일체업 구차법신부득

스님이 대답했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며, 이 법신이 곧 그대의 근본 마음이다. 이 마음이란 끝없는 옛적부터 지금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서 생사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생멸(生滅)도 없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함도 없으며, 좋거나 나쁜 것도 없으며, 오거나 가는 것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승속(僧俗)이나 노소(老少)도 없으며, 성인도 범부도 없으며,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으며, 인과도 없으며, 힘도 없고 모양도 없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산이나 강, 석벽(石壁) 따위도 장애가 되지 않으며, 나타나거나 숨거나 가고 옴에 자재하고도 신통하다. 오온(五蘊 : 물질과 정신의 양면에 걸치는 일체의 유

마음이란 옛날과 지금 다를 바 없고

옳고 그름도 성인도 범부도 없다

즉차법신 시여본심
此心從無始曠大劫來
차심종무시광대겁래
與如今不別
여여금불별
未曾有生死 不生不滅
미증유생사 불생불멸
不增不減 不垢不淨
부증불감 불구부정
不好不惡 不來不去
불호불오 불래불거
亦無是非 亦無男女相
역무시비 역무남여상
亦無僧俗老少
역무승속노소
無聖無凡 亦無佛亦無衆生
무성무범 역무불역무중생
亦無修證 亦無因果 亦無筋力
역무수증 역무인과 역무근력
亦無相貌 猶如虛空
亦無相貌 猶如虛空
역무상모 유여허공
取不得捨不得
취부득사부득
山河石壁 不能爲碍
산하석벽 불능위애
出沒往來 自在神通
출몰왕래 자재신통

위법)의 산을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므로 모든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此心微妙難見 此心不同色相
차심미묘난견 차심부동색상
此心是佛 人皆欲得見
차심시불 인개욕득견
於此光明中 運手動足者
於此光明中 運手動足者
어차광명중 운수동족자
如恒河沙 及乎問着
여항하사 급호문착
憶道不得 猶如木人相似
憶道不得 猶如木人相似
총도부득 유여목인상사
憶是自己受用 因何不識
憶是自己受用 因何不識
총시자기수용 인하불식

이 마음은 미묘해서 보기 어렵고, 이 마음은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으며, 이 마음은 곧 부처이다. 사람들이 다 보려고 하지만 광명한 가운데서 손발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마치 강가의 모래알 같지만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함이 마치 허수아비 같다. 모두가 자기의 활동인데도 어째서 알지 못하는가.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지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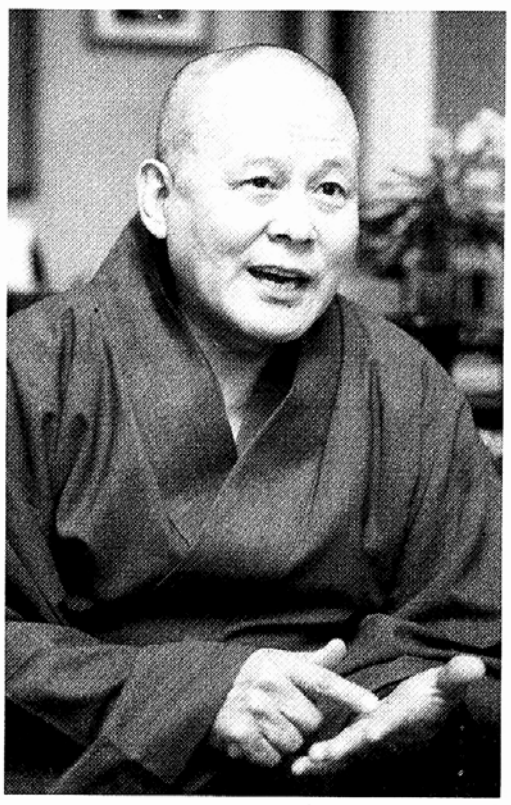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대학로는 분명 젊은이들의 거리다. 그래서 때론 위태위태하다. 늘 거리의 가수들이 공연을 벌이는가 하면, 폭주족들이 굉음을 쏟아내며 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문예회관, 학술진흥재단, 한국방송대학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곳은 비로소 문화의 거리가 된다.

지관 큰스님께서 삼장(三藏)의 밭을 일구시며 후학을 길러내시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도 거기에 있다. 현실과 아득히 먼 것 같은 불교가 현실 한복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상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대학로에서 지관 큰스님을 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대 사회의 제문제들, 이를테면 정보화나 환경문제 등에 대한 큰스님의 고견을 들었다.

"불자로서의 자긍심 찾자"



· 1932년 경북 영일 生
· 47년 해인사에서 자운(慈雲) 스님을 은사로 득도
· 57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
· 63년 마산대 종교학과 졸
· 76년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졸(철학박사)
· 60~70년 해인사 강원 강주
· 70~72, 93~96년 해인사 주지
· 74년 중앙종회 의원
· 75~98년 동국대 선학과 교수(현 선학과 명예교수)
· 86~90년 동국대학교 총장
· 87년 문화재 전문위원
· 90년(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현재)

— 최근 들어 '21세기 인류의 대안은 불교다' 하는 말들이 여러 방면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안'은 구체성을 확보해 가지 못하고 '구호'에 머물고 있는 듯 보이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우선 '한국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대화 이후 한국불교는 급격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적응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서구화의 과정에서 오는 혼돈과 새로운 모색 사이에서 늘 힘겨워했다고 하는 것이 온당한 진단일 테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불교권뿐 아니라 전통 사회의 가치 체계를 온축하고 있는 여타의 집단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급하게 불교가 무엇을 했느냐고 다그치기 전에, 오히려 전승 승가의 가치체계가 그 대극점에 선 서구화 또는 자본주의화 라는 변혁과 욕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본연을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긍정적으로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사회가 뒤늦게 '불교가 대안이다' 하고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행 착오가 따랐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불교의 현대화 등 비주체적이고 일방적인 불교의 사회적응 논리가 강하게 있었으니까요.

— 어설픈 사회 적응 또는 현대화는 '세속화'이기 쉽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불교가 대안이다' 할 때 '불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교'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정당하게 사회화해 온 교단의 전통과 그 영향권의 문화까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봅니다. 관념적인 불교의 진리만을 자산으로 보지 말고 1600여년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고등하고 올바른 승가와 불교 문화의 역사적 자산을 재인식하고 대안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교인 스스로가 자기 비하나 냉소주의를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어쩌면 냉소와 비하감은 서구 자본주의가 초래한 무의식적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단내 구성원들은 무게 있는 자산을 자랑스런 터전으로 힘찬 자신감과 건강한 비판 그리고 따뜻한 화합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사찰을 중심으로 불가의 전통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한편으론 대부분의 전통 사찰이 대형화, 관광지화되는 바람에 갈수록 불교 문화는 박제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사찰의 대형화나 물량 위주의 현대화 또는 관광지화가 국가기관의 행정력과 손잡고 무비판적으로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단내 구성원들의 생태적 자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전통 사찰의 문화 유산들이 관광의 대상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살아 있는 수행 승가는 성스럽게 지켜져야할 '미래 사회의 소중한 대안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행 승가의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대안도 교단 내에서 활발하게 의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림 등 전통 사찰의 경제적 기반이 대부분 관광정책의 범주에 예속되어 있으니까요. 선원을 담으로 가린다고 하여 또는 사하촌의 관광지화를 저지한다고 그 성스러움이 지켜진다고 믿는 것도 지나치게 소박한 생각입니다.

수행 승가가 본분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의 눈높은 정책과 교단의 지도력이 발휘되고, 나아가 수행 승가 구성원 모두가 사회와 인류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벼아프게 수행할 때 한국 승가는 반드시 '인류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승가는 역동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과 석굴암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인류가 지켜야할 유산이란 뜻이죠. 따라서, 그 유산이 있게 한 불교 정신의 전승 주체인 수행 승가도 분명히 인류의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 그렇다면 재가 불자 또한 기본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는지요.

▲우선 자긍심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자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실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생태주의적 삶은 지구 보편의 도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오계를 지켜온 재가 불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앞서가는 환경지킴이였음이 분명합니다. 함부로 살생하지 않아 생태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았으며(살생하지 말라), 순결의 서약을 지켜 가정과 사회를 청정히 하였으며(사음하지 말라), 사물의 정직한 분배로 경제윤리를 수호하였으며(거짓말하지 말며,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음주하지 말라) 즉 오계를 지키는 일은 생태 · 경제 · 사회윤리를 아우르는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새로운 삶의 원리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결코 새로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의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할 텐데,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분량에서부터 압도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읽어야 할 경전이 있을 법한데요.

▲저는 평소 세 가지 경전만큼은 꼭 읽기를 권합니다. 〈범망경〉과 〈화엄경의 보현행원품〉 그리고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입니다. 대승의 심지법문을 기반으로, 대승의 윤리의식과 계율정신을 아름답게 설한 '범망경'은 포살을 통해 독송과 교육을 정례화해 왔습니다. 이 전통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없는 자비심의 발로인 관음신앙의 소의경전인 '보문품'은 독송의례를 통해 이미 대중화한 경전이며, 수행과 원행의 더없는 이상적 모델인 '보현행원'은 더할 수 없는 보살의 표상입니다. 더불어 정진하는 선종의 뿌리깊

신간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바라밀!
4×6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은 수행가풍을 몸에 익혀 힘을 얻는다면, 이 땅의 불자로 태어난 인연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불법의 요체를 터득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그런데 오늘날 한국 불교의 풍토는 지나치게 선 우위여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투철한 믿음의 부재도 선 우위의 풍토가 빚어낸 폐단의 하나로 보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선종의 가르침이나 그 전통을 왜곡되게 또는 부실하게 전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선의 정신은 뼈아픈 자기통찰과 혁명적 현실변혁의 힘으로 수행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분별성의 타파에 관건이 되는 중요한 수행 전통입니다. 이러한 간화선 문화는 한국불교의 저력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원효, 원측 등에 의해 구축된 원융교학시대를 기반으로 구산선문의 황금기를 구가하며 선교의 고등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선의 정신을 명징하게 계승시키고 교학을 실답고 정직하게 학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교단내 승가 교육과 재가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한편 선의 정신이 왜곡되거나 경박해진 데에는 불교만이 아닌 사회적 배경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과정의 철학을 중시하지 않고, 속도와 물량을 능사로 삼아왔던 데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 또한 불교의 전통은 악화일로에 있는 지구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불교가 현 인류를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할 부분도 바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우공양도 대안 중 하나일 테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대형 불사는 불교의 기본 정신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한 큰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오계를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환경 문제에 있어서 불교는 역설적으로도 가장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새로운 대안입니다. 가히 혁명적이지요. 경전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도 '인간'이란 독립된 개념이 없습니다. 태란습화(胎卵濕化) 사생(四生) 중의 하나요, 육도(六途: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중에 한 부류일 뿐이며,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로 자연에 회귀할 임시적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대승불교에서는 뭇생류를 아낌없이 구제하고 사랑함에 있어 가장 인연이 깊은 생류로 보살을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보살은 발보리심한 고등한 생류이지만 만물을 자기보다 더욱더 섬기는 하심(下心)의 천재일 뿐입니다. 이보다 더한 우주적 생명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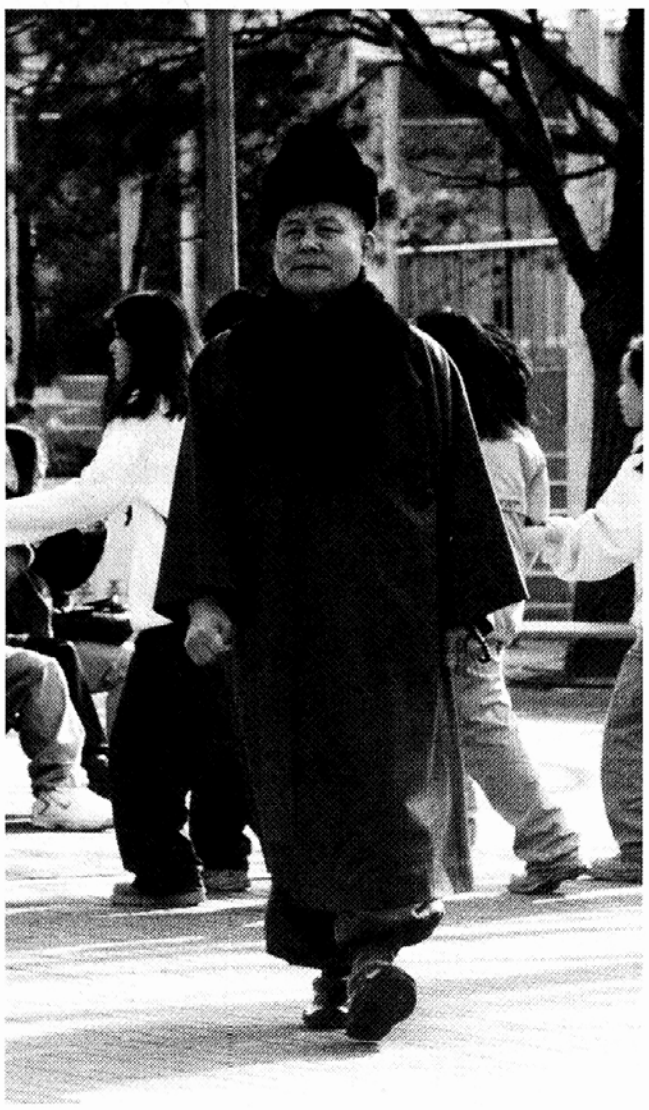
엄격히 말하면 환경이란 말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미흡한 개념입니다. 환경이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나 외의 경계를 지칭하는 대타적 말로 연기동체관에서 보면 소극적 표현입니다. 지구를 분별의 자아로 보면 태양계가, 태양계를 독립된 자아로 보면 은하계가 환경이겠지요. 그러나 무아의 연기동체로 파악하면 환경이란 없습니다. 단지 '한 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자비는 필연적인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대형불사의 폐단은 앞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우공양이나 스님들의 의식주 전통에서 살아있는 자연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생활 방식은 적극적으로 사회화하면 좋겠습니다. 스님들은 주로 채식을 하고 자연섬유로 옷을 지어 입으며, 동물의 털로 이불을 만들지 않으며, 고에너지가 필요한 가구나 일용품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전통을 승가는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재가불자들도 불가의 전통들을 사회화할 선도그룹이 되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계는 생태-경제-사회윤리"

"일상의 삶으로 가르침 실천"



◇가끔씩 대학로를 산책하시며 젊은이들의 모습도 눈여겨 보시고 비둘기들에게 먹이도 주신다. 이제 지관 큰스님은 대학로의 큰스님이시다.

— 그러고 보니 요즘은 사이버 즉 가상 공간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더해졌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과 이에 대한 불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물량 위주의 자본주의가 그리고 냉전시대의 사회주의가, 결국 총체적으로 비판받는 오늘을 예견했던들 20세기 동안 그렇게 왕성하게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보화라는 것도 부분적인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리라 생각됩니다. 인류는 가치론적 지향보다 욕망의 흐름을 관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 정신사에 있어 석가세존과 공자 그리고 예수의 자각을 넘어서는 진보는 없었습니다. 특히 정보화의 문제점은 '자각의 주체가 간섭할 수 없는 기술과 악명의 진화'로 내달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폐해가 눈앞에 드러날 때는 이미 늦은 순간입니다. 불교와 정보화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젊은이들은 늘 이 점을 명심하시고 진지한 논의를 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 큰스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대안 문화로서의 불교 문화는 주류 문화의 병폐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가와 재가가 구조적 차원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가와 승가교육이 개선되고 향상되어야 하겠지요. 사회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어야할 불교 교육은 사회 지도 이념을 비판하고 선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NGO시대에 있어 불교는 NGO위의 NIGO로서 시민사회 운동의 본질적 이념이 되고,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나 승가 모두 자기 혁신이 요구됩니다. 정보화와 시민사회시대의 대응 방안은 교계언론이나 사부대중이 지속적이고도 진지한 담론을 통해 도출해야 할 신중한 과제라고 봅니다.

— 큰스님의 저술은 이미 한국사회의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고승비문 연구라든가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 율장 비교 연구 등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산학보와 사전 작업 외에도 계획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한말씀 일러 주시고 그 일에 불자들이 동참할 방법에 대해서도 귀띔 좀 해 주십시오.

▲작년 1월에 출간된 1, 2권에 이어 얼마 안 있어 〈불교대사림〉 3권이 출간됩니다. 그리고 1차고승비문 교감역주 전6권을 작년에 마감하고 연이어 조선조 이후 최근까지 흩어져 있던 고승들의 비문을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묶고 있습니다. 고승 비문들은 찬란하고도 성스러운 우리 교단의 역사입니다. 힘닿는 대로 정리하여 후학들에게 남기려 합니다. 대중들의 동참이 많아지면 15권이나 되는 〈불교대사림〉의 완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산학술총서'로 기획된 수행 주석 논서들이 하나씩 출간될 것입니다.

오래전 저희 연구원 세미나를 위해 30~40대 후배들에게 '의지하는 삼장이 무엇인가', 특히 '소의하는 수행논서는 무엇인가' 설문하였더니 '없다거나 알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참으로 선배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였습니다.

삼장(三藏)은 불교인의 필독 교과서이고, 수행정진은 승가의 본분사이며, 승가는 사회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려고 우리 가산 가족들과 함께 쉬지 않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대담=윤제학 부장
(yunjh@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묘운스님 (上)

"고향을 떠난 지 서른 해 돌아와 보니/ 사람은 가고 없고 마을은 황폐해졌다/ 청산은 말이 없고 봄날은 저물었는데/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오는 소쩍새 우는 소리(三十年來還故鄕 人亡宅敗又村荒 靑山不語春天暮 杜宇一聲啣花)"

봄이 오고 있다. 양지볕에 앉으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리워지는 때이다. 벌써 고향을 떠나 스님이 된지도 어언 서른 해를 훌쩍 넘어섰다.

고독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수행자가 될 수 없다고 했던가.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없이 고독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봄이 오는 산사는 수행자의 마음을 더욱 고독하게 한다. 위의 시는 저 유명한 서산 청허선사가 지은 것이다. 선사가 이 시를 지을 때는 아마 내 나이 정도였던가 보다. 왜냐하면 청허선사는 출가한 나이가 나와 비슷하고 시에 나타나고 있는 '三十年來還故鄕'에서 볼 수 있듯이 출가한지 삼십년 정도의 나이에 지은 것이고, 나역시 출가한 지 삼십년을 수년전에 넘어섰기 때문이다. 선사는 생전에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전란을 겪었지만 이 시를 지을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왜 선사가 고향을 찾았을 때 마을이 황폐해 있었을까? 못된 탐관오리 탓일 수도 있고….

돌보는 이 없는 병든 처사와 어질고 인정많은 비구니스님

나역시 가끔 고향을 찾아가면 이 시에서 느끼는 그런 감회를 갖게 된다. 마을은 황폐해졌고 어린시절의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만날 수가 없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친구가 어찌 고향의 친구뿐이겠는가. 삼십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보니 주변의 아까운 도반이 하나 둘씩 가고 없는 경우도 많다. 그들 가운데는 얼굴은 기억이 나지만 법명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름은 기억하는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도반도 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비구니 묘운스님이다. 나와는 인연이 참으로 기묘했다.

어느해 여름 가까운 도반 종태스님과 지리산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회중(會衆)에 결제 하러 가는 것을 어찌어찌 하다가 놓친 것이다. 어느 날 마천에서 상연대라고 하는 암자를 찾아 올라가다가 그만 소낙비를 만났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문수암인가 하는 비구니스님들의 처소를 찾아들었다. 한여름인데도 우리 둘은 솜누더기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비를 맞자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암자에는 마침 스님들은 없고 젊은 보살이 한명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 보살은 본래 비구니였는데 환속을 해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고 했다. 그리고 그 보살의 고향이 내 고향 마을 하고 바로 이웃하고 있었다. 막연히 고향사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반가와 하고 그랬다. 그 보살은 암자에 잠시 다니러 왔다고 했다. 주로 수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보살은 비록 환속은 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으로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했다. 아니 승려생활때보다 더 열심히 수행을 한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2~3년 지나서였다. 젊은 스님 하나가 찾아왔다.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신은 출가한지 일년정도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년전에 지리산에서 만난 보살을 기억하느냐고 했다. 기억한다고 했더니 자신은 그 보살의 동생으로 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 결국 스님이 되었다고 했다. "누님이, 스님이 되려면 지철스님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여러 곳에 수소문해서 찾아다녔는데 찾아가면 스님이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로 출가했고 지금은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같은 고향이고 또 그가 중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지내자고 했다.

그리고 또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간간히 그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나는 운수납자이고 그는 학인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경북 울진 포교당 객실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객실에는 그와 나밖에 없었다. 우리는 밤이 늦도록 얘기했다. "우리 누님은 정말 보기드문 도인이고 대승보살입니다"하며 그가 전해준 그의 누님의 삶 내력은 정말 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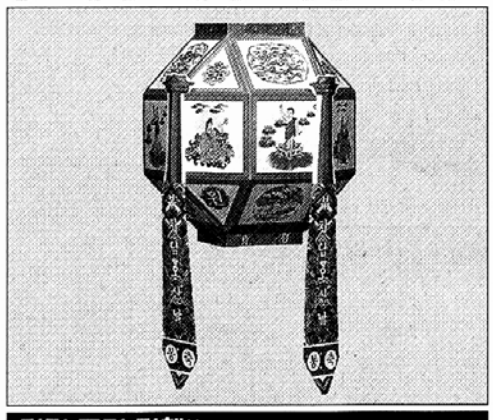
그의 누님이 처음 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였다고 한다. 집안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 되자 경소에 부모님이 다니던 절의 스님을 찾아간 것이 그만 절에서 살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고 스님이 되었다고 했다. 누님은 타고난 천성이 어질고 인정이 많았다. 큰절 옆에 있는 작은 암자에서 살았는데, 큰 절에는 일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처사가 있었다.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크고 작은 일을 하며 살아왔다. 어려서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물정은 아는 것이 없었다. 또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글도 몰랐다. 나이가 들었지만 장가도 못갔다. 그냥 그렇게 일평생 절에서 일만 하고 살아온 것이다. 요즘은 형편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큰절에는 꼭 있었다. 그러한 처사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다.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천대를 받으면서도 살 수는 있었다. 헌데 몸이 병들자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었다. 버려진 신세가 된 것이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때 암자에 살고 있던 젊은 비구니스님이 처사를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그가 바로 그의 누님이다. 〈계속〉



그림 · 문병성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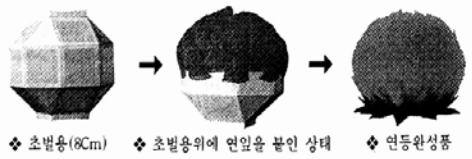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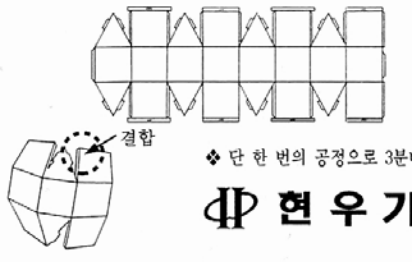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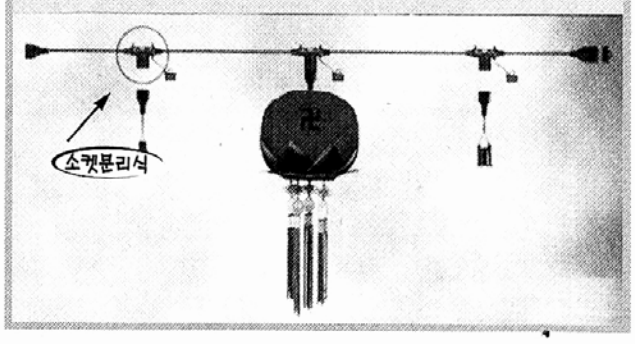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본사 영업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 · 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화암사의 빼어난 점은 환상적인 입지와 드라마틱한 진입로, 잘 짜여진 전체 구성등 건물뿐 아니라 주변자연과의 탁월한 조화에 있다. 화암사의 중심곽인 우화루 전경.

천연요새에 지은 城같은 고찰

화암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23

국내유일 하앙 건축물
입지 · 짜임새 빼어나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불명산 깊은 산속에 화암사라는 작은 고찰이 있다. 이 절의 극락전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하앙구조를 갖고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하앙(下昂)이라는 부재는 기둥 위에 벼열된 포작과 서까래 사이에 끼워진 긴 막대기 모양의 부재를 말한다. 그 위에 서까래를 얹으면 그만큼 처마를 길게 뺄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겹 서까래 구조라 이해해도 무방하다. 하앙구조는 중국과 일본의 건물에는 흔히 쓰이는 형식이지만,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고려조의 청동탑 모형 등에서만 확인됐을 뿐이다. 이를 빌미로 일본학자들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하앙법이 직수입됐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1970년대 화암사 극락전에 하앙이 있다는 보고는 일본측에는 충격이었고, 한국에는 더없이 반가운 발견이었다. 심지어는 "건조물 문화재계의 해방 이후 최대의 발견"이라는 극찬까지 받았다.

그러나 희귀한 구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도 이 절의 환상적인 입지와 드라마틱한 진입로, 그리고 잘 짜여진 전체 구성만으로도 최고의 건축이다. 이처럼 고졸하게 남아있는 사찰이 또 어디 있을까. 몇 년전까지만 해도 아직 차량으로 닿을 수 없는 몇 안되는 사찰이었다. 아름다운 계곡을 타고 오르면 버랑이 가로막고 버랑 사이 한사람이 겨우 오를 정도의 아슬아슬한 길이 바위 끝으로 이어진다. 예전에 다니던 진입로였다. 너무 통행에 힘들어 1983년 옆의 축포 위로 철제 계단과 다리를 놓았다. 통행에는 편해졌지만, 운치가 없고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 절도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신라 때 의상이 창건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 절은 서해에서 경주에 이르는 옛길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임진란 때 충청도 금산에서 이치대첩(梨峙大捷)의 큰 전과를 거두었때 이곳에까지 병화의 피해가 번져 불타 버렸다. 전쟁 직후인 1604년 서둘러 중창되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이 절은 순수한 종교시설이라기보다는 풍수적 관점의 비보용이나 군사적 목적을 띠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성채와 같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적묵당은 뒤쪽으로 두 날개채를 가진 ㄷ자 평면의 승방이다. 자연스레 만들어진 뒷마당(後院)은 스님들의 생활공간이다. 일반 신도들은 넓은 부엌을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기도 하다. 건물에는 툇다루가 달려 생활에 더욱 편리하도록 되었고, 마당 앞으로는 지연 암반이 솟아있고, 그 위에 소박한 장독대를 마련했다. 장독대 옆에는 정말 작은 산신각이 '엎혀져' 있다.

절의 서쪽은 암반으로 이루어진 넓은 계곡이고 여기에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 아래 폭포의 원류가 되고 있다. 물줄기 중간에는 지그재그형으로 배열된 5개의 둥근 웅덩이가 파져 있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분명한 이 시설물은 경주의 포석정과 같이 물놀이용의 시설이었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빨래터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단히 절묘한 아이디어였다. 화암사는 너무나 깊은 산속에 외로이 있어서, 일반 신도들 보다는 스님네들의 작은 수행공간으로서, 마치 성채나 수도원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도록 건축되었다.

그러나 화암사 마저도 변형과 파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산 뒤쪽으로 자동차 길을 만들어 절 위까지 차량이 올라올 수 있도록 했고, 서쪽 암반에 흉한 콘크리트 덩어리 축대를 쌓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승방이나 극락전 우화루를 손대지 않고 있지만, 화암사 건축의 빼어난 점은 건물 뿐 아니라, 주변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 건물만 보존하고 자연을 손댄다면, 화암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불교기아기구 **네팔에 학교 두곳 설립**

내년 개교…문맹퇴치 · 불교교류 기대

불교 NGO 「兎」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네팔 주민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재일 회장.

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는 올해 안에 네팔 카필라바스트, 포카라에 초등학교를 각각 설립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재일 회장은 지난 2월22일부터 3월1일까지 네팔 현지 당국자와 주민 대표들을 만나 학교설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약속을 얻어냈다.

대지 2000여평에 교실 10여칸의 공간에 교사 5명 정도로 운영될 초등학교는 네팔의 문맹퇴치는 물론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해 양국간의 불교문화 교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재일 회장은 "네팔 불자들을 위한 교육사업은 문맹퇴치를 통한 근원적인 기아 해결책의 하나이자, 불제자로서 부처님나라에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드라망' 대중결사 강화

올사업 수립…소식지 발행
친환경농업교육장도 설치

창립 후 첫 돌을 맞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상임공동대표 도법)가 조직의 정체성 확립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생태적 대중결사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상임공동대표 도법)는 지난 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1차 정기 총회를 열고 △정체성 확립 △5대 영역 사업 안정화(귀농운동, 생협운동, 공동체 형성운동, 대안교육운동, 환경연대운동) △대중적 결사운동으로의 전환 모색 등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인드라망 이념의 확산을 위해 실무일꾼 능력 배양을 위한 일꾼 수련프로그램 개발, 대내외적 이념 확립을 위한 정기 대화광장인 '화엄광장' 개설, 격월간 '인드라망' 발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또한 올해 안에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설치해 생명존중의 불교적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기농농업교육장은 6월중에 실상사 인근 폐교를 매입해 올해 말까지 건물 개축 및 신규시설 준비를 끝내고 내년 1월까지 귀농전문학교를 이곳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쓰던 물건 가져오면 바꿔 줍니다

재활용품 중개소 '초록이'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은 4월초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20여평 규모의 재활용품 중개소인 '내친구 초록이'를 오픈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수집하거나 폐품을 활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수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이 알뜰가게는 지역 불자나 시민이 가져온 물건의 가치를 평가, '내친구 초록이'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맞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리사이클링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웃을돕는사람들은 YMCA의 '녹색가게'와 같은 형태로 알뜰가게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환경 친화적인 이벤트를 마련하는 한편 '내친구 초록이'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사진)와 조형물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내친구 초록이'의 수익금은 △네팔 등 제3세계의 이웃을 위한 직업훈련학교 및 의료 사업 지원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 · 소녀 가장 후원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실직노숙자 자활 프로그램 실시 등의 기금으로 활용된다. 한편 이웃을돕는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이름으로 후원회원에 가입하는 '다람쥐 회원'을 모집한다.

김재경 기자

"나눔과 참여없으면 통일은 헛구호"
박노해시인 통일특강



박노해 시인은 10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열린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 주최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 143' 통일강좌에서 '문명의 전환기에서 바라본 통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의내용을 요약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내부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개혁없이는 우리 미래에 진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북한 동포 돕기에 참여하며 동강살리기운동에도 나서고, 시민운동에 구체적으로 내가 단돈 천 원이라도 회비를 내고, 한시간이라도 자원봉사 캠페인에 나가는 생활화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없이는 우리의 미래 통일은 헛구호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눔과 참여로 나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육친적인 애정의 동질성과 감수성을 갖는 것, 그리고 다름과 차이에 대한 긍정과 대화의 시작, 우리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운동의 참여,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김재경 기자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com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苦는 근본으로 이끄는 주인공의 손짓



그림 · 최주현

나 이끌고 가는 자성줄 놓지말고 살아야 일체생명 더불어 살기에 나는 空한 존재

간염을 10년째 앓고 있어요

문 스님, 저는 10년 가까이 간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해 많은 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심자인 제가 앞으로라도 이 일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주인공자리에 놓고 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10년 가까이 병을 앓았으니 그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만, 자성(自性) 부처님은 견딜 만큼의 시련으로써 나를 기르고, 계발시키며,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에게 닥쳐온 공부의 과제를 남에게만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살겠습니까. 그냥 송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근본, 자기의 영원한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만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뜰 앞에 나무가 뿌리더러 하는 소리가 "뿌리야 뿌리야, 너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누렇게 떴으니 네 싹을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하고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소리가 "너가 나를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러면 내가 모든 영양분을 올려 보내마 " 하고 좋아하더니만 싹이 푸르러졌다고 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믿고 맡겨놓으세요.

지금 내 앞에 닥친 병고와 액난이, 나를 근본으로 향하게 하려는 주인공의 손짓임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게 한 근본에 되돌려 놓으십시오.

우주탑이 7층인 까닭

문 저는 절에서 어린이 법회에 나가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집에서 한마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곤 하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황금빛으로 된 7개의 둥근 원이 올려져 있는 탑이 그려진 화면을 보곤 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뜻으로 저렇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에 '주인공, 저것이 왜 일곱 개인지 너만이 알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관을 하며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좀처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절 위에 공 같은 것이 왜 있는지, 또 제가 관하는 것이 틀렸는지, 만약 틀렸다면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 어린이 법회에 나오는 어린 학생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 평소에 법회에 와서 스님과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군요. 그래요, 선원 지붕 위에 있는 금색의 탑을 우주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칠탑인 우주탑은 우리의 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깐 둥근 원을 일곱 개의 탑으로 올린 것은, 공부하는 분들이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하라고 방편으로 세운 겁니다. 방편이라는 말 알죠? 그런데 방편 아닌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응신으로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의 통신처라고도 합니다. 글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은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아주 현명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인공 공부도 열심히 할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아무튼 열심히 해요.

사람마다 다른 삶 사는 이유

문 저는 윤회나 전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만 왜 사람들은 각기 차이가 나는 생을 살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아프면서 살기도 하는 등 별의별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되기까지는 육도만행을 다 거쳐야 하고, 육도 중생의 길을 다 겪어야만 합니다. 지옥에서 나와도 그렇고, 또 아귀 축생에서 나와도 그렇고 모두가 연결해서 다 돌아가죠. 떨어지는 놈은 떨어지고 올라오는 놈은 올라오고 해서 연방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섯 단계를 돌고 돌아서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거든요. 아귀나 축생, 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인간되기 이전에도 수천번, 그 모습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수없이 피를 토하고 수없이 죽고 그러다가 한 찰나에 그냥 바뀌어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인연 따라서 그 마음이 아주 한 찰나에 돌면서 환생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화할 때에는 한 찰나에 화하게 되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 최고의 과정인 인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나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각기 다른 생들이 그냥 주어지는게 아니라 각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저 뭐든지 나쁘게 쓰려고 애쓰지도 말고 좋게 쓰려고 애쓰지도 말고 스스로 그냥 잘 이끌어 가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이끌어 간다면은 참 좋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흔들려서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윤회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습니다. 무엇이 고정됨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군데만 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전부, 어느 것 하나 고정된 것이 없어요.

자식이었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부모일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는 남편이나 아내일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을 먹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며 어느 것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이 몇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또 나거든 본인이 하루를 살면서 쉴새없이 얼마나 바뀌어 돌아가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얼마나 제각기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죽어가는 동물을 위한 관법

문 요즘 TV를 통해서 보면 야산 등지에서 밀렵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올가미에 걸려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즉은 채로 냉장고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가끔씩 보도되곤 하는데요, 제가 동물을 참 좋아해서 그런 동물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자기의 차원대로 살고 죽고 하지만, 그런 동물들을 볼 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체의 모든 것, 즉 이 우주 천지의 모든 것들이 나온 근본이,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되맡겨 놓아야 합니다. 진실히 맡겨 놓을 때, 즉 그 짐승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과응보가, 나은 그 자리에다가 다시 믿고 맡겨 놓는 동시에 그것이 연결이 돼서 그 동물도 옷을 벗고 인도환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인공 당신만이 그 짐승들이 보다 진화된 몸 받아서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지극하게 맡기신다면 간절한 그 한 생각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 한 생각이 과연 그럴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스런 그 한 생각 한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일체와 직결된 내 안에 모두 놓아나간다면 전부 재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 오직 내 안의 통신처를 믿고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하는 속에서 다가오는 인연들을 자비롭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소중한 결실로 피어날 겁니다.

먼저 마음공부 하고 싶어요

문 저는 올해에 17살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기술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교나, 기독교, 여러 가지 종교를 대하고 또 철학을 공부하다보니 그 내용이 재미있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기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대하기 전에는 기술자 말고, 다른 직업을 꿈꾸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종교공부와 철학공부가 저를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단전호흡도 수련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어제는 달마에 대한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로 저런 조용하고 평온한 곳에서 평생동안 종교공부를 하고 명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입을 위해 수능시험을 봐야하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해요.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서 종교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답 물론 학생이 생각하는 길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50%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노릇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생활이 공부라고 했습니다. 생활이 교재라고 했습니다. 불교라는 말도 그냥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불' 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 라는 것은 생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라고 굳이 말을 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원인이 어디느냐? 사람은 살면서 내 근본의 줄을 항상 놓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즉 나를 이끌고 가는 이것은 나의 근본이기 때문에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산에 올라가는데, 천야만야한 산을 타는데 줄이 없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들 제각기 줄이 본래 다 있습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을, 그걸 잡고 그 언덕을 넘어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줄은 누구나가 다, 어려웁게 살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이걸 떠나서, 하다 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들도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삼·부·농·산·은·슈·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숙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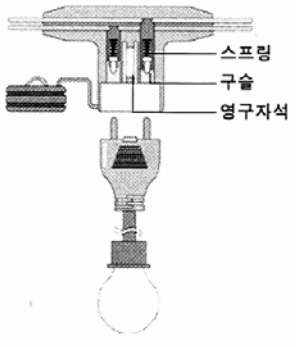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 부 농 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연등 배선의 혁신

연등배선의 혁신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연등배선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 일체형도 생산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 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규 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특 징
1.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자석의 특성을 살려 배선의 설치 및 수거가 용이 합니다.
3.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력이 강합니다.(자력2.5Kg)
4. 접촉불량이 없으며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5. 한국 · 일본 동시 특허 출원
6.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사찰용도 전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 시공시 조광기를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생각하는 기업
S2 신성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공장 0341)988-168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com ● FAX: (0343)470-3116

내면 믿고 관하는건 진리의 길

☞ 15면에서 계속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이, 불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불성은 있으니 불교라고 했죠. 그렇듯이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게 그냥 불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에 내가 공했다는 걸 알고, 내 전체 몸 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공해서 한 개체가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한 개체가 사는 '나'가 없다면 상대가 전부 없어요, 나만 없다면. 그래서 나의 나무는 나의 뿌리를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줄타기에서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을 잡게 하지 않고 잡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 이름만 부르든가 뭐 이런 걸 믿어라, 이렇게만 자꾸 나간다면 자기는 그 위의, 언덕 위의 맛을 못보고 항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심부름꾼 노릇밖에 할 수 없겠죠. 자기 부처를 자기가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헤매면서 말입니다.

다가오는 경계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미리 판단말고
내안 근본자리에
믿음으로 되돌려
놓는다면
일체에 걸림없고
주장자 세우는 일

내가 공해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 내 몸속의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했을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가 부처란 얘기죠.

내 몸뚱이가 살아서도 체가 없는데, 내 것이 없는데, 세울 게 없는데, 또 본래 있는 걸 찾을 게 없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나간다면 내가 이 생활을 떠나서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뭘 찾아야겠다 뭘 구해야겠다 하는 자체가 아주 한계가 많은 자기의 생각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만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수행하는 마음가짐으로, 학교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내게 닥쳐있는 이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을 믿고 생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거든 또 질문하도록 하고,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래요.

결단을 내릴 때의 마음자세

문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사회 초년생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으로 희미하게나마 마음공부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고 힘차게 한 발 내딛기에는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요즈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스님의 가르침의 근본은 단언하면 모든 것, 나를 포함한 일체를 몰록 놓아 버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질문이 나오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놓아도 놓아도 다시 나타나는 나를 보면 아직도 공부가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에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

스님께서는 내외에서 다가오는 일체 경계를 놓아버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부가 무르익지 않은 저에게 있어서 경계를 놓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결단의 순간 즉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관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주위의 상황이 저를 계속 어떤 빠져나갈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주인공의 가르침의 방편이라 생각하고 상황에 순응하고 닥쳐오는 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주인공에게 일임해야 할까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기에, 아직 공부가 미흡한 저로서는 갈피를 잡기가 힘듭니다. 큰스님의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답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했지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나로 인해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벌어지니 나를 다스리면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내면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용광로에다 헌쇠 넣듯, 모든 것을 거기서 하게끔 감사하는 마음으로 놓아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도 거기요, 일체 만법 역시 거기서 들고 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내게 닥쳤다면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 또 놓으세요. 그래야 다가오는 경계에 끄달려서 입력된 의식에 맹종해서 갈피를 못잡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모든 이치를 바로 알아서 올바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미리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내 안의 근본자리에 의지해서 일체를 믿고 맡겨놓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해야할 일을 걸림없이 해나가면서 그대로 자기가 주장자를 올바로 세우고 나가는 공부를 하게 되겠지요.

바르게 돌려놓는 방법

문 스님! 생각을 돌려놓을 때에 꼭 생각을 다시 일으켜서 놓아야만 합니까?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생각을 일으키는 게 번거롭게 생각됩니다.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따로이 생각을 내고 싶지 않고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면 일부러 머리에 일이 잘 되어진 이미지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답 어느 회사에 직원들이 수천 수만이 있다 해도 사장님 한 생각에 직원들이 다 움직이게 되고 사장님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뤄서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모두가 따르는 것처럼, 내가 한 번 과감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거기에 믿고 놓아야만이 결정적인 결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재를 해서 내려야 모두 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하나 하나를 우주간 법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기권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걸 조절해서 좋은 거는 들이고 나쁜 거는 내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뚱이도 이 지구의 대기권과 같이 세포 하나 하나에서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다 조절합니다.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한 번 내리면 결재가 된 거와 같아서 두뇌로 통신이 되고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전체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모자라는 걸 안에서 채워서 하고, 또 바깥의 일이 위태롭게 될 때는 바로 세포



그림 · 최주현

생활이 마음공부 할 수 있는 재료·
맡겼으면 도로 쥐고 나오지 말아야

외 법계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마음 속으로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 즉 일체 만법은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리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결정을 너리지 못하면서 된다 안된다는 생각에 끄달리면 안됩니다.

한 생각 일으키는 게 바로 회사에서 상사에게 결재 서류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결재 서류를 맡겼다가 다시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하는 데도 될 수 있으면 주인공에 맡겨 놓고 도로 쥐고 나오지 마세요. 맡겼는데도 그걸 또 들추어내어 사량으로 걱정을 하는 건 맡겼던 서류를 도로 들고 나오는 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몇 사람 안되고 전부 들고 나와요. 도로. 그리고는 안되느니 되느니 하고 야단이죠. 왜 맡겼는데도 안되느냐 이겁니다. 잘 맡겼으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못 맡겼으니깐 그렇죠.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놓고 맡길게 없어

문 저는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주인공에게 놓고 맡길 일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제가 큰 병에 걸렸거나 큰 고난을 만났다면 좋은 공부 재료가 될지도 모르나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놓고 맡겨야 할까요? 꼭 어떤 큰일이 닥쳐야 공부가 되는 건지 그냥 별일 없는 사람은 무엇을 맡겨서 결과를 보는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 좀 잘되고 나 좀 편하자는데 내심으로 뜻을 두고 놓고 맡긴다면 이기심을 부린다는 불교의 의미와 좀 다른데 어떤지요?

답 그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세심하게 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것을 등한시한 채 크고 감동적인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크고 작은 것도 없는 것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자기가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 하나 해나가면서 근본을 믿는 힘을 길러갈 수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근본과 감응이 되기도 하고, 상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는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히 지나쳐 버리기 쉬운 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지켜볼 수 있으려면 지극하게 자신의 근본을 믿고 관해야 합니다. 마치 흙탕물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듯이, 바깥으로 끄달리는 마음을 근본으로 향하고 자신이 이 마음공부를 꼭 해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만이 물 속을 훤히 비쳐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이 기복이 아닌가 물으셨는데,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처의 길이자 진리의 길입니다. 내면을 믿고 관하고 믿는 것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 자리를 발현하기 위한 수행의 길이니까요. 그 길은 나와 너가 없어진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한 생각을 내는 것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체를 살리고 일체를 진화시키는 믿음의 한생각이니까요. 그러니 지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근본을 지켜보십시오. 그 길에서부터 이 마음공부는 시작되고 또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준 부적 지녀야 하는지…

문 평소 큰스님 말씀을 생활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젊은이입니다. 기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큰스님 말씀을 접한 이후로 기복이나 타력에 대해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저의 어머님이 절에서 빌었다면서 부적을 몸에 지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제 자신은 물론 부적이니 하는 것들을 믿지도 않고 그런 행운을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에라도 의지하신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지니지 않게 되면 어머님의 정성을 너무 쉽게 미신이다 기복이다 치부하면서 무시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머님과 떨어져 사는 까닭에 어머님께 큰스님의 마음법을 이야기 드릴 기회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면으로 들어가 한생각 내는건
일체를 살리고 진화시키는 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근본
지켜보는게 마음공부 시작과 끝

답 부모가 아무리 옳지않다 하더라도 자식을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조금 싫다고 해서 "지금 세상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아버지, 이제는 세대가 다르니 그 구태의연한 말씀 좀 고만하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이러면서 짜증이나 내면 안됩니다. 융통성 있고 지혜롭다면 "예, 아버지""예, 어머니. 어머니가 잘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깊이깊이 새기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설사 그렇게 안할지언정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잘된 줄 알고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늘 생활이 교재라고 말하죠. 부모님이 이런 마음공부를 모른다고해서 뭐, 이런 걸 아실까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 공부하고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그런 걸 아시든 모르시든 마음으로는 계속 '주인공, 돌이 아닌 마음이니 당신만이 부모님의 마음도 둘 아니게 밝아지게 할 수 있잖아' 하고 통신을 보내면 본인의 기분도 좋을 뿐 아니라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밝아지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서로 한마음이 된다면 그까짓 것,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할 때, 그건 말을 해서도 아니되는 거고 때려서도 아니되는 거고 욕을 해서도 아니되는 거니까, 마음과 마음을 이끌어주는 힘이 있어야만이 그냥 저절로, 몸뚱인 저절로 끌려온다는 얘기죠. 그러고 그러한 짓을 안하게 되는 것도 관하니까, 그 아이의 마음 컴퓨터에 관하면 둘이 아닌 까닭에 거기 들어가면은 바로 그 앞서의 입력됐던 게 없어짐으로써 그 애의 마음은 밝게 불이 들어오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도리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살아나가다 모습을 바꿀 때에 실오라기 하나 걸칠 게 없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재물이나 보물은 방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집이 아무리 좋아도 대문 안에서 인사를 할 것이고, 친척, 부부지간,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동구밖에서 인사를 할 뿐이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만이 그림자처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업식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고초는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 마시고 꼭 알아야 하고 진실로써 조그맣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때에 진실한 실천궁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법이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바로 굴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굴려놓는다고 하면서 다시 끄집어내서 착을 가지고 다시 쥐고 놓질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가정에 어떠한 애고가 닥쳐도 타파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놓고 가는 도리입니다. 지혜롭게 바로 돌려놓는 그 자체 말입니다. 돌려놓는다, 돌려놓는다 하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고 닥쳐오는 경계는 체가 없는 데서부터 체가 있는 데로 나옵니다. 일이 꼬여 들어가도 마음으로부터 일이 벌어져서 바깥으로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마음으로 하고 마음으로 꼬여진 거니까 마음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상대가 되고, 벌어지고, 엉켜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밖에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단지 이러한 마음의 도리를 머리로 이해하려 해서는 허탕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일체가 벌어지고, 일체가 마음으로 인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하나하나 실행을 해 보아야만이 알 수가 있고, 체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체는 오직 주인공안에서 들고 난다는 것을 알고, 일상 생활 속에서 내 근본의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일체를 그 근본에 맡겨 놓으며, 내 무심의 한생각이 일체와 둘 아니게 연결이 돼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믿음과 만족을 드리는 동천 황토마을
황토방 흙벽돌 제조 · 판매
황토방 시공전문
대표 이 해 구 합장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210번지
0594)867-1988,4037

강좌

범통 범음 범패 수강생 수시 모집
매주 월 · 화요일 오전 10시~5시
기간 6개월
■초심반: 각단 예경의식
■발심반: 각단 불공시식 의식
■자경반: 사십구재의식 및 영산재
■연구반: 바라춤 승무작법 사물일절
대한불교 남파종문회 범음 범패 연수원
051)332-0289/018)398-3022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철학 강좌
사주, 관상, 작명, 부적
▶ 초급반, 고급반, 개업반
▶ 강의시간 1교시:11:00부터
2교시:14:00부터
3교시:16:00부터 (월~금 주5일)
▶ 스님직강 3개월 완성(월 8만원)
※ 사주보실분 (1만원)
군천불사관
☎ 02)946-0078

구인구직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543)954-0391

구 혼
본인은 경인생 사찰을 창건한 창건주 독신 처사입니다. 직업은 건설업이며, 사찰을 돌보며 생을 같이 하실 독신 보살님(40대 전후)연락바랍니다.
0339)375-2223

경관 수려한 서해 바닷가 사찰
신심 있는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58세이하)
안면암
0455)673-2333
011)9810-8887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30~50세)
일본어 가능한 사무원 구합니다
(25~35세)
수행하며 공부할 행자스님을 모십니다
0417)566-6301
011)9803-6301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구함
보덕사
0348)952-7905

진주 어느 사찰에 계시는 **혜공성 보살님.** 제가 연락드렸는데 알려주신 번호가 결번으로 나오는군요 제가 잘못 적었는지… 저 아시겠죠? 제 전화번호는 3/1일자 현대불교 신문 17면을 참조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모십니다
스님들이 야생사철쑥과 자연산 약초로 제조한 건강보조 식품을 전국에 공급하고자합니다.
대리점이나 판매하실 처사님이나 보살님을 모시고자합니다.(20~55세)
02)980-4773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사주 명리 배우실분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이사방위 진로선택 등 기초부터 끝까지 책임 완성해 드립니다.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주2회 4개월간
■개 강 일: 3월 17일(금요일)
■장 소: 마포구 망원2동 474-15
선 주 상 사
☎02)323-4050/4480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범치 소탁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기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가정집 김밥 전문
■서울,인천근교
■방생법회, 성지순례 및 각종 법회(행사)시 주문 환영
※ 2일전 주문 바랍니다.
신따라 물따라 김밥
02)736-0368 (주간)
032)464-1461(야간)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 천혜의 명당 사찰
◆ 도심에 위치, 대단위 주거지 인접
◆ 임산 배수의 형(한강조망)
◆ 사회 복지시설 용도 최적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 면적 : 377평(주거지역 대지)
◆ 평당/1,700,000원 정도(시세의 절반 가격)
◆ 융자 알선(2억 정도)
현지답사 안내: 011-236-6918(소유자),
011-727-165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소재
◆ 대지 : 300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9천
◆ 특징 : 포교도량 최적지
(준도시 형성됨)
0595)883-2448
011)831-4712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시내권
(시내서 5분~10분거리)
◆ 법당 20평, 요사 50평,
강당 40평, 땅이 국유지
◆ 가액 : 7천만원
0653)856-6413

포교원 안내
(사찰 운영관계로 사정상 급매)
◆위치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평수 : - 39평 3층 요사채 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최신설비
- 38평 4층 법당, 주지실, 상담실, 욕실
◆가격 : 1천만원 - 월 100만원
(월세만도 가능함)
시설완벽, 신도확보, 교통, 시장 편리함
0343)469-1562,443-9733
016)363-1562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법당 : 15평
◇요사 : 40평
◇부지 : 560평
◇가액 : 1억 6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법당 : 35평
◇요사 : 45평
◇부지 : 60평
◇가액 : 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예산
◆대지 : 700평
◆건물 : 조립식45평
(법당15평 요사30평)
◆가액 : 6천 5백만원
(답사후 가격절충)
0458)333-1163

사찰 안내
◆위치 : 울산 언양
◆대지 : 70평, 법당20평, 요사 40평 방5, 공양실16평, 욕실2개, 화장실2개
◆가격: 8천만원
◆실공사비 1억 3천만원 들었음.
052)254-1969/254-1929
011)9525-1969
※ 인연이 되시는 스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건물 : 법당 大1,
요사채1(방1, 부엌1)
◆평수 : 대지 20평
◆가액 : 전세 1,300만원
011)491-1247
053)653-4846

포교당 안내
◆위치 : 광주서 5분거리
◆지하수 150m, 암반수, 샘우물 有
◆평수 : 236평 주차장 78평 건평65평
◆교통좋으며, 큰도로옆에 있음
◆가액 : 전화상담후 결정
018)611-3908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보령시 대천 시내권 서해안에 제일의 절경
◆지방문화재 마애불, 법당-가건물, 요사채-구옥, 산13400평
◆가격 : 전화문의
◆역사 : 경순왕말엽
※ 부산에서 8일날 대천오셔서 9일날 가신 스님 연락바랍니다.
017)402-0108

포교당 안내
◆위치 : 구리시내 포교당
◆평수 : 법당 50평, 요사채 50평
◆부대시설 완벽함
◆가액 : 답사후 결정
※ 인연 닿는분에게 무조건 인수인계함
011)751-7960
(스님 직접)

사찰 안내
◆위치 : 군포시 당동
◆대지 : 120평(3면도로접)
◆건평 : 120평
◆법당 : 30평
◆주택, 상가 90평
◆가액 : 5억 3천(절충가능)
0343)454-1133
011)386-6467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 건물 : 법당 목조12평,
산신각4평 요사채 13평
◆ 대지 : 97평
◆ 월세부지 240평 (1년 80,000)
◆ 가액 : 6천만원
0418)533-8636

사찰 (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인고면
◆ 건물 : 법당17평 ,요사채17평
◆ 평수 : 103평
◆ 가액 : 2천 5백만원
※ 외국가는 사정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0563)336-8466
011)802-2210

사찰 안내
◆위치 : 수원시
◆부지 100평 건평180평
◆가격 : 5억 3천
◆특징 : 현대식 5층 건물의 도심 사찰로, 교통이 편리하며 도심 포교지로 적지임
◆남양주, 강릉, 마산, 김천, 동해, 서울 부산 인근지역 사찰 급히 구합니다.
동진불사 서 울 02)3666-9020
대 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공주시
◆부지 : 400평
법당17평, 요사 30평
◆가격 : 6천만원
◆특징 : 고찰로 국보급 석탑문화재가 있고, 주위경관이 수려하며 기도처로서 적지임.
◆수원, 청평, 사천, 하동, 진주, 음성, 진천, 함양, 청명지역 사찰 구하는 분 연락요망
동진불사 서 울 02)3666-9020
대 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1리 75
◆전체평수 : 1,950평 ◆대지 477평
40평 전통한옥 내 임법당 9~10평, 사무실 7평~8평, 방 5개
◆국도에서 1km 내에 위치
◆도로 좌우로 2차선 완성, 주차장 완비
◆야산밑에 한덩어리로 묶여져 있음
◆가격 : 7천만원 이내 상담후 결정
0654)7818378/ 011)655-3883

사찰 안내
◆위치 : 이천시 대포동
◆대지 188평, 법당 23평, 주택 32평
◆가격: 1억 2천만원(사정상 싸게 양도)
전세가 6천5백만원
(장기 5년~10년 가능함)
◆이천시내에서 2km,
서울에서 45분거리 <이천시까지 2007년도 전철예정지임>
0336)633-3183/018)238-1760

포교당 안내
◆위치: 올산시 아파트
밀집 지역
◆건물: 2층 42평
◆가격: 전세2천 (월 30)
◆권리금·시설물:1,700만원
011)429-0222

사찰 안내
◆ 위치 : 창녕읍
(시내에서 5분거리)
◆ 건물 : 법당15평, 산신각,
미륵불, 요사채 30평
◆ 대지 : 15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559)533-4203
011)832-3348

토굴 안내
◆위치 : 경남 삼천포 와룡산
◆건물 80평, 임야 4천5백평 , 방11개
◆가액: 2억 5천 (절충가능)
◆안대수려, 차량진입, 수질양호
※ 부전스님 모십니다.
0591)746-2478/011)830-2880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 31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 60평, 방 8개, 주방 2개, 지하 요사채 20평, 명부전 9평 단청필
주지실 사무실 기타건물평
◆ 건물 완공은 4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
◆총 공사비가10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부지 : 1000평
◆건물 : 법당 25평(목조), 요사채90평 (서라벌 목조)
◆오래된 고찰이며, 청정도량임.
◆가액 : 3억 5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전국소재 사찰이나 암자 양도양수하실분 찾습니다.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덕유산 부근 (동쪽방향)
◆ 부지 : 250평
◆ 건물 : 임법당, 요사채, 황토방, 맥반석방 각 1개씩
◆ 가액 : 5천만원(전세가 2천만원)
※ 태고종 창진 스님을 찾습니다.
0597)962-3528
011)842-3525

토굴 안내
◆ 위치 : 경기도 합천군 쌍책면
◆ 건물 : 법당1동, 요사채
(방3개, 입식부엌)
◆ 대지 : 78평
◆ 가액 : 3천만원
053)312-5689
011)511-963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200평
◆ 22평건물1동에 소법당, 방1칸
◆요사채 25평 건물1동에 방2칸, 마루, 화장실
◆요사채12평 1동에 방1, 부엌, 주방, 나무맴
◆용왕당, 창고1, 주차장, 화장실
◆특징 : 산자수려하고 물이 음양수로 나와 청정약수가 나오며, 사찰 길은 주위 장애물 없이 단독 산속으로 절 도로만 되어있음.
◆ 가액 : 1억 6천만원
0594)862-6199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시장
3층
◆ 평수 : 35평, 10년되었음
◆ 가격 : 5천만원
02)2618-0767

사찰 안내
◆위치
◆면적 : 330평
◆법당, 요사채, 유치원
◆가액 : 8억(가격 조정됨)
062)224-6696/011)601-6663

불자 세상보기

조선족 인권유린 '이젠 그만'

임금 못받고 강제추방 항의 자해

시민단체 '국내체류자 처우개선' 촉구

7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0개 사회단체가 국내 조선족의 처우개선과 불법체류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공공연한 사실일만큼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왔다. 물론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이 문제에 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선족들에게 돌아간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강제추방 뿐이었다.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달 24일 한 조선족 동포가 우리정부의 강제추방 조처에 항의해 자신의 배를 면도칼로 그어 20여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은 사건 때문이었다. 이 조선족 동포는 밀린 임금 36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다음날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이었다. 밀린 돈을 받고 중국에 가겠다고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부뿐이었다.

인권유린 사례는 이뿐만 아니다. 조선족보호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은 한 겨울에도 홑겹 죄수복을 걸치고, 운동은 커녕 신문도 보지 못하는가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히고 있다. 사기나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조선족 동포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조선족에 군림하고 이들을 멸시하는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과 사업가들의 천박한 행태도 비난받고 있다.

최근 중국 조선족의 잇따른 한국인 납치사건은 이처럼 조선족을 이민족 대하듯 차별하고 경계해 온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 재외동포법 제정 때 혜택 대상에서 조선족 동포를 제외한 것은 이들의 울분을 극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다행히 8일 법무부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줘준 돈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체불임금 문제 등이 해결될 때까지 강제추방을 면하게 해주기로 하는 등의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환영할만하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낱 미물에 대해서도 그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생명과 그 생명이 누려야 하는 존엄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다.

또 〈화엄경〉에서는 "온갖 사물은 특질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실체가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생기는 일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본래 청정한 까닭에 평등하다. 유와 무가 불이(不二)인 까닭에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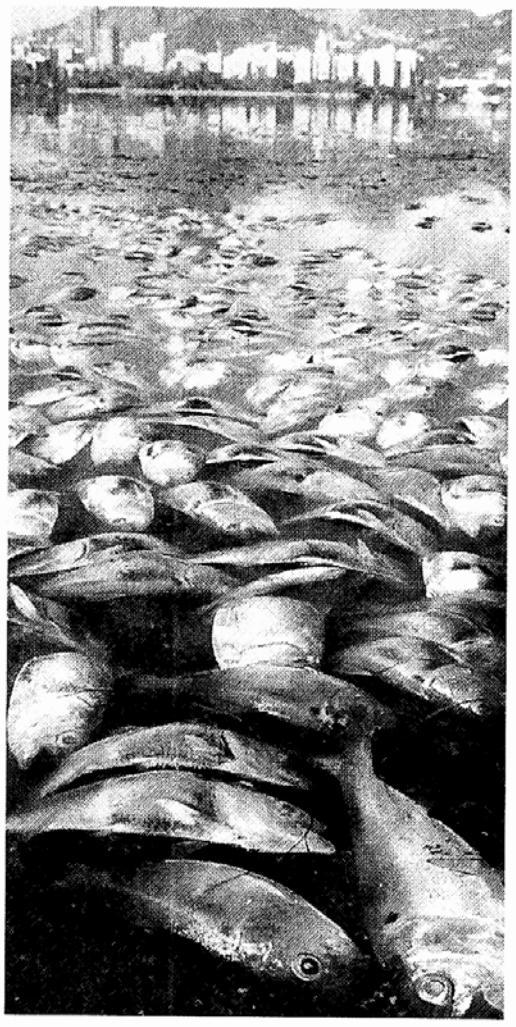
조선족 동포는 우리와 남이 아니라 한 핏줄이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존엄은 불교의 근본사상이자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지금부터라도 동포들을 끌어안고 감싸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살아있는 절약교육

교복 물려주기 '붐'

교복값을 절약하자는 운동이 전국 중·고교에서 줄을 잇고 있다. 서인천고교와 대전문지중학교가 시중가보다 절반이나 싼 값에 교복을 제공해 주는 공급업체를 선정했는가 하면 서울 한양대 사범대 부속여고생들은 지난달 11일 졸업식 후 교복 1백20벌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도. 또 경기 수원 곡선중 등 전국 2백30개 중학교에서 2만4천여벌을, 진각종 종립학교인 진선여고 등 1백76개 고등학교가 1만9천여벌을 후배들에게 각각 전달했으며, 대전시 교육청이 지난달 벌인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도 중·고생 1만9천6백여명(전체의 44%)이 참여해 2만2천여벌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었다.

불교는 예로부터 절약을 미덕으로 삼아왔다. 그렇기에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며,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교복 물려주기'야 말로 물질만능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인 셈이다.



'호수를 덮은 물고기 떼죽음' 수질오염으로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 인근 로드리고데 프레이타스 호수의 물고기 수천마리가 6일 떼죽음을 당한 채 수면 위에 떠올랐다. 바로 옆에서 리우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던 그때였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과 무성의를 생생히 느끼게 한다.

교황청 '교회의 범죄' 고백

십자군 원정·유대인 박해 등 과오 인정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교회가 인류에게 범했던 각종 과오를 공식 인정한 지난 5일 로마 교황청의 발표는 일단 용기있는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황청은 '회상과 화해:교회의 과거범죄'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십자군 원정으로 인한 많은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의 학살, 유대인 박해, 중세에 자행된 각종 고문형, 신대륙의 원주민 말살에 앞장선 일 등을 세세히 밝혔다. 교회 스스로 '범죄'라고 부른 기독교의 과거 역사는 이처럼 다른 종교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공격성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유대인 쪽에서는 교황청의 참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우리의 역사에도 기독교와 얽힌 매듭들이 있다. 국내 개신교 지도자 200여명도 지난 9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480돌을 맞아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와 유신정권 지지, 5·6공 정권에 대한 협조 등을 회개하는 '한국교회참회록'을 발표한 바 있다.

교황청의 참회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일제때 우리나라 천주교 책임자로 온 미텔주교가 일제의 한국침략을 정당화한 것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한국불교는 우리 민족사에, 세계불교는 세계사에 잘못한 일이 없는지 곰곰이 되짚어 참회할 것이 있으면 기독교처럼 마땅히 참회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업계 '서비스 뒷전'

소비자 피해상담 1위

옛날 어떤 상인이 남에게 돈 반 푼을 빌려쓰고 오랫동안 갚지 못하였다. 그는 빚을 갚으러 떠났다. 그 앞길에는 큰 강이 있었다. 뱃삯으로 두 냥을 주어야 건너갈 수 있었다. 그는 빚을 갚으려고 갔으나 때마침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강을 건너 돌아오면서 또 두 냥을 써 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반 푼 빚을 갚으려다 도리어 네 냥의 돈을 손해보고 말았다. 진 빚은 극히 적었으나 손해는 아주 많아 결국 여러 사람들의 비웃음만 당하였다.

〈백유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휴대전화 업체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될만하다.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비해 서비스는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99년에 피해해결을 의뢰받은 분야가운데 휴대전화 관련 문제가 12.4%(1714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힌 데서도 이 같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더욱이 이 수치는 98년의 302건보다 5.7배나 증가한 것이고, 휴대전화 관련 상담건수도 6267건에서 1만433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난 상태. 하지만 휴대전화 업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필요한 사람이 불편은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다.

사람들의 비웃음만 산 그 상인은 작은 명예와 이익을 구하다가 도리어 큰 손실을 보았다. 바른 상도의로 장사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반드시 괴로움의 갚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휴대전화 업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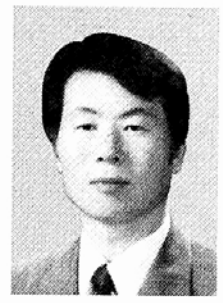
시론

조기유학 열풍

단순히 영어실력을 길러주고자 사회의 극히 일부 계층에서만 이루어지던 해외 조기유학이 드디어 "열풍"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불신이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뼈아픈 성찰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성공률 10%…탈선 조심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조기유학 열풍은 분명 우리 나라 초·중등 교육의 수 십년에 걸쳐 누적된 여러 가지 헛점과 외국에 나가서 영어라도 한 가지 잘 해오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회생활이 보장된다는 선진국 교육에 대한 사대주의적 맹신의 결합에 의해 연기한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성기서
〈서원대 영어교육과 교수〉

조기유학 성공률이 10%를 밑도는 현실 앞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조기유학을 보낸다 해서 모두가 국제적 명성을 얻은 바이얼니스트 정경화씨나 김영욱씨 처럼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술·담배·마약,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에 빠져들어 자녀의 삶이 조기에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인간조건을 딛고 일어서 열반적정에 이르는 고귀한 진리를 깨달으신 것과 같이, 자녀의 조기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들, 특히 불자 학부모들은 "불법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인도성지를 순례한 혜초스님이나, 당나라에 유학해서 스승을 뛰어넘는 지혜와 학덕을 갖추어 우리 나라 화엄불교의 시조가 되신 의상대사"와 같은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보살의 원력을 가져야 한다.

불자가 된다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해 전 생애를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조기유학을 꼭 시켜야겠다는 불자 학부모들은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信), 이해하고(解), 실천하고(行), 증명하듯(證),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외국에 나가서도 보고 배우는 바를 듣고(聞), 깊이 생각하고(思), 삶 속에서 그 진위를 시험해 보는(修) 자세를 기르도록 해야한다. 단순히 학비를 대주는 돈 많고 열성적인 학부모가 아닌, 함께 진리를 체득하고자 하는 자상하고 정다운 선지식과 도반으로서 끊임없이 자녀를 지켜보는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폴란드의 작곡가 쇼팽은 조국을 떠나면서 한 줌의 흙을 가져갔다고 한다. 유학 가는 자녀에게 적어도 한 차례의 사찰 수련회와 경주를 비롯한 문화유적 답사와 우리 문화에 대한 대략적인 입문을 반드시 거친 다음, 가방 속에 '홍익인간과 재세이화(在世理化)'의 민족정신이 들어있는 국사책 한 권과, 어려울 때 부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된 예불문과' 사홍서원이 들어있는 불서를 한 권쯤 넣어 주는 세심한 배려와 준비에, "얘야, 아빠 엄마도 매일 예불과 사홍서원으로 하루를 열고 닫을테니 너도 그렇게 해보렴." 하는 따스한 한마디를 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世界一花)! 영어를 어차피 해야 한다면, 영어를 잘 배워 나라와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민족과 그 문화에 대한 긍지에다 국제적 정세를 현명히 판단하는 안목과 능력을 갖춘 창조적인 국제시민, 나아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갖춘 세계적 청년 보살들을 조기유학을 통해서도 분명히 길러낼 수 있다.

불서와 국사책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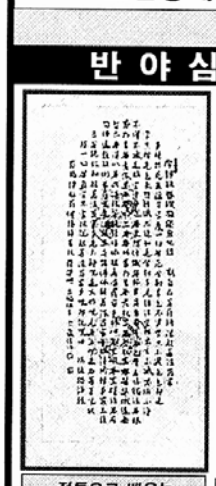
조기유학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는 학부모들은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다.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원효대사, 보조국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진묵대사,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인(聖人)과 위인(偉人)들이 조기유학했다는 말씀을 누구도 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法眼), 지혜의 눈(慧眼), 부처님의 눈(佛眼)을 어디 외국에서만 얻을 수 있으랴!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떠나지 않으리라.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붙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새천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온누리 자비 광명(光明)으로
두루하신 부처님!
21세기를 향하여 떠오르는
밝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현대결혼연구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 지향적인
혼인문화를 새로운 각도로 구상하고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더큰 사랑으로 현대를 지켜봐
주십시요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누구나 바로 그날부터 氣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레이키(Reiki)법을 전수 받으십시오.
레이키법은 기공수련을 한 일이 없는 분도 그날부터 氣 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세계 유일의 氣능력자 (氣치료능력자· 氣응용능력자) 양성법입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등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능력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튠먼트는 소주천을 여러 해씩 수련하지 않고도 바로 대주천의 우주 기운을 끌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레이키 에너지(氣=우주생명에너지=빛=파동=자비=사랑)는 어튠먼트를 받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흐르고, 생활환경을 포함하여 사람,동식물,생활용품,부적등 형상에너지 물품, 광물 등 만물에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 레이키 요법과 여타의 氣치료법의 다른점
① 자기가 자기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셀프힐링의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
② 원격 치료를 식은 죽 먹기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③ 단 한 가지 치료방법으로 수 천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어 치료방법이 간소하다. 따라서 누구나 그날로 치료법을 배울 수 있다.
④ 환자와 치료가 모두에게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치료가의 氣가 소모되지 않는다.
·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나(박희준)의 자격
저 박희준(朴熙俊)은 지난 20년간 氣, 정신세계 분야의 번역 저술가로 활동해 오는 동안 10권 이상의 저서와 100권 이상의 저서를 냈지만 氣치료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1997년부터 레이키법을 만나 외국의 여러 레이키스쿨에서 다채롭게 레이키법을 전수 받은 결과 이제는 굴지의 능력 전수 능력을 가진 세계에 손색없는 레이키 마스터가 되었습니다.이제는 이런 토대위에서 한국적 레이키법을 독창적으로 체계 세우는 일을 차근 차근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레이키법을 전수받기를 권합니다.
▶ 모든 생활인, 모든 의료, 건강 사업 종사자
▶ 만성병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 정신적·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분
⊙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2~5일소요 70만원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구한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전화 : 02)720-5682 /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지도자: 박희준(우스이레이키마스터·카루나레이키마스터)번역저술가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字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액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액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신비의 기도처
육지속의 섬 국내유일의 영험도량
금수산 천진사
삼천배 정진 기도 동참안내
일 시
· 매월 2째주 토요일 저녁 8시 - 새벽 5시 (철야정
위 치
· 축북 단양 금수산 (단양팔경 구단봉 맞은편)
교 통 편
· 서울(동서울) ~ 단양 매시 고속버스 정시운행
· 단양 - 천진사 셔틀버스 운행
※ 참가하실 분은 전화 연락 바랍니다.
문의 0444) 423-2083
011) 786-9379
※ 4째주 토요일 9시 - 12까지
대다라니 주력기도 합니다.

대학 불교학생회 새내기회원 확보 고심

N세대 붙잡으려 홈페이지·CD 만들어 홍보
일부大 법회중단…인터넷·어학등 소모임 필요

고대등 10곳은 회원 늘어

회원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 서울시내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활발한 신행활동을 보이며 대학생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서울 지부에 가입돼 있는 불교 동아리는 총 41개. 이중 회원수의 증가를 보이며 알차게 운영되는 곳은 고려대, 국민대, 광운대 등 10여곳이다.

이중 눈길을 끄는 곳은 37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97년까지 20명에 불과했던 고려대 불교학생회(이하 고불회). 고불회는 대학생 불교 포교에 원력을 세운 도헌스님(승가대 4년)이 지도법사 소임을 맡은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법회를 봉행하는 열성을 보이면서 현재는 2배 가까이 회원수가 늘어났다. 지난해 자체 홈페이지 제작을 마친 고불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안암 법당에 모여 법회를 봉행하며 학기가 끝날 때마다 인근 사찰을 찾아가 포살법회를 개최하는 등 법우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불심을 다지고 있다. 광운대 불교학생회는 지난해 10월 동아리의 역사와 활동사항, 역대 회원 목록 등을 담은 CD롬을 제작 보급해 교우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국민대불교학생회도 한달에 두 번씩 제부도 지역의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해 신행 활동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한양대불교학생회는 정기적으로 불국토 순례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덕여대 불교학생회도 1년에 두번씩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연합 법회를 봉행하는 등 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고불회 지도법사인 도헌스님은 "불교 동아리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지도법사는 법회를 주재하는 것 외에 대학생들의 주 관심사인 이성 및 취업문제 등 인생상담사의 역할도 함께 병행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N세대인 신입생들에게 인기 있는 인터넷과 취업에 유리한 어학 관련 동아리들로 발길을 옮기는 새내기들이 늘어나면서 회원이 급격히 감소해 법회마저 안하는 학교도 생겨나 우려를 낳고 있다. 3년전까지만 해도 잘 운영되던 건국대는 지난해부터 법회를 중단했고 졸업생들의 모임인 '금불회'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와 서울시립대도 5명 정도의 회원이 고작이어서 사실상 동아리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불련 서울지부장 이지욱군(국민대 3년)은 "최근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제로 인해 신입생들이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들로만 모이고 있다"며 "불교 동아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N세대 새내기들이 선호하는 인터넷과 영어회화, 사찰 순례 등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대불련 서울지부가 '원성스님과 함께하는 프로포즈' 등 신입생 유치를 위해 연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연세대에서 열렸던 '대불련 프로포즈'



대불련 원성스님 초청행사
내달 1일…문답시간등 가져

대불련 서울지부는 각 대학 불교 동아리들의 신입회원들을 조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4월1일 오후3시 '원성스님과 함께하는 38번째 프로포즈'를 한양대 콘서트 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원성스님에게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대불련 역사와 '불교란 무엇인가' 등을 CD롬에 담아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것 외에 흥겨운 불교 레크리에이션도 마련한다.

생활정보

좋은 참기름 맑고 찌꺼기 적어

(생활) 참기름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조미료 중의 하나다. 그래서 좋은 참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음식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참기름을 고르기 위한 요령 몇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기름색이 너무 진한 것은 피하는 게 좋다. 참깨를 고온에서 심하게 볶을수록 기름색이 진하다.

좋은 참기름은 호박색(맑은 갈색)을 띠며 병을 햇빛에 비춰 봤을 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고르게 같은 색상을 나타낸다. 또 찌꺼기가 많을수록 깻묵을 너무 과하게 짠 것으로 씁쓸한 맛이 나기 쉬우니 찌꺼기가 적은 것을 고르는게 좋다.

병적증명서 팩스로도 발급

(행정) 2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병적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을 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7개 부처 10종의 증명서를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팩스 발급이 가능해진 증명서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법무부) △대학교육비 납입 증명(교육부)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문화관광부) △장애인 증명, 모자가정 증명(보건복지부) △주택자금 상환 증명, 이륜자동차 등록원부(건설교통부) △항만시설 관리권 등초본(해양 수산부) △병적증명(병무청) 등이다.

무공해 인동초 식혜 개발

(건강) 부산지역 식품벤처기업인 인동초연구원과 목포대 식품산업기술연구센터는 6일 우리나라 야산에서 자라는 무공해 인동초를 원료로 한 식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동초는 해열, 해독, 면역강화, 이뇨, 진통효과가 있으며 예로부터 감기 예방, 간염, 황달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해온 민간요법의 한약재다. 연구원은 "인동초 추출액과 자연발효산을 섞어 기존 식혜 엿기름의 텁텁한 뒷맛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미 인동초를 원료로 한 음료와 차를 농협과 대형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인동초연구원은 하루 10만병을 생산, 전국에 판매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일본과 동남아에 수출할 예정이다.

지역번호 없이 114 안내

(통신) 오는 7월부터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는 광역 전화번호 안내서비스(114)가 도입된다. 한국통신은 7일 "이달 16일부터 강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안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점검한 뒤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철원에서 지역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114만 눌러도 속초 전화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백과

관절염 예방체조

심한 운동과 나쁜 자세 등으로 관절염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집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절염예방 체조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가천의대 정형외과 이수찬교수는 최근 〈관절염 예방 체조〉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절염 예방 체조를 꾸준하게 하면 무릎 주위를 지나는 근육을 자연스럽게 강화,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탁월하다"며 "3개월 정도 꾸준하게 하면 확실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관절염 치료 및 예방 체조를 소개한다.

■무릎을 펴는 근육 강화법=벽에 등을 밀착시키고 관절을 90도로 구부린 다음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한다. 또 왼쪽 무릎을 구부린 후 왼쪽 발에 체중을 싣고 오른쪽 무릎을 왼쪽 발의 아킬레스건 근처에 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릎 펴고 구부리기 반복
뒷발꿈치 들고 놓기 효과

이 자세를 몇 분간 유지하거나 탄력을 주어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20~30도까지 천천히 올린 다음 5초 정도 유지하다 내리는 것도 좋다.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 강화법=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반대편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을 구부린다. 이때 증요한 것은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아킬레스 근육 강화법=계단 또는 평지에서 발뒷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한다. 초기 관절염 환자의 짧아진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리를 곧게 뻗고 누워 발목 관절을 당겼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무릎 근육의 유연성 강화법=척추가 구부러지지 않게 등을 앞으로 구부린 후 약 5초 정도 유지한 후 원래 자세로 돌아간다. 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면서 양손을 접촉하는 것도 좋다. 이 때 양손은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한다.

부산대불청 회장 황국근씨

창립 34돌 맞아 기념행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김수현)는 4·5일 양일간 양산 해운자연농원에서 '창립 34주년 기념 잔치'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캠프파이어 등의 다채로운 친목 도모 프로그램에 이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황국근 현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16일 취임법회를 갖는 황국근회장은 "침체된 부산 청년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연수회와 법회, 친목도모 행사 등 청년불자들이 함께 모여 결집할 수 있는 신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는 4일부터 1박2일간 양산 해운 자연농원에서 창립34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청년불자들의 친목을 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 심산스님을 비롯해 전안호 대한불교청년회장, 김수현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등 9개 지회에서 2백여명의 청년 불자들이 참석했다. 천미희 기자

동국대 사대부중 축구부
제주대회 필승기원 법회

종립학교인 동국대 사대부중 축구부는 5일 동대부중 법당에서 '필승기원 법회'를 열고 7일부터 열리는 중고등부 제주회장기 축구대회에서의 필승을 다짐했다.

35명으로 구성된 동국대 축구부는 그동안 연습과 시합이 있는 날이면 전 선수가 교내 법당을 찾아가 부처님께 참배하고 손목에 단주를 찬 채 경기에 임하는 등 차돌같은 불심을 자랑해 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숙교장은 "참된 불자정신을 항상 되새기면서 스포츠 정신을 준수하는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님이…' 버튼 무료보급

한국불교어린이포교회는 15일부터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이 좋아요'의 글귀를 새긴 버튼을 제작해 무료로 나눠 주는 캠페인 운동을 전개한다. (02)885-2521

3일간 심성수련 행사

종립학교인 명성여중은 신학기에 새로 만난 교사와 급우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15·16·27일 3일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각 학급별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서 △연상화 그리기 △급우 별칭 짓기

청소년생활단신

△우리 가정 소개하기 △복주머니 게임 △소감문 발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흥 아란유치원 개원

경기도 시흥 법륭사부설 아란 유치원이 7일 문을 열었다. 지난 97년에 설립 계획을 세워 지난해 11월 지하1층, 지상2층에 건평 284평 규모의 유치원을 완공한 법륭사는 2월 22일 대웅전 앞에서 유치원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원한 아란 유치원은 총 6학급 규모에 1백79명의 원아를 수용한다. 법륭사 주지 덕기스님은 "이곳 연성 지구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어 새싹 불자들을 포교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찰전통음식 강좌

사찰음식연구소는 21일부터 6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0분 대학로 본원 강의실에서 '제2기 사찰전통음식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연근 소박이 △새송이 장아찌 △마전 △밀전병 무침 △표고버섯 야채볶음 △원추리 나물무침 등에 대해 실습과 강의를 한다.

(02)747-873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인간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해 나가면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복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틀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동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화제의 신간

최신 사주임상록

여기 주역(周易)을 숫자로 풀이한 혼천작괘법(渾天作掛法)의 적중률(的中率)에 놀라지 말라!

周易의 진수가 여기에 있다.
周易作名法에 이어 펼쳐낸 세계 최초로 수학, 과학, 의학등을 철학에 접목시킨 四柱臨床錄이다. 딱딱한 四柱풀이라기 보다는 純粹한 우리들의 周逸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이 상 육 지음
값 25,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梓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전국 유명 서점 및 불교서점 절찬리 판매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쉼 없는 수행자의 투명한 감동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에서 생명이 샘솟는 듯 합니다.
소납은 하루를 시작하면 빗자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빗자루는 나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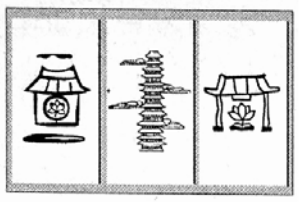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담박하고 깔끔한 문장이 잡은 참에 읽힌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 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기(余技)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착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법정스님-

혜총스님 지음 /신국판 / 정가 8,000원 | 부다가야 | 614-052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333-2 전화 (051) 865-4383 · 팩스 865-4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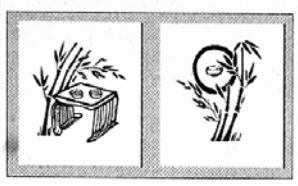
혜총스님의 중노릇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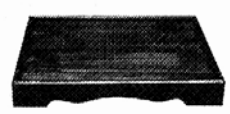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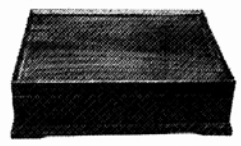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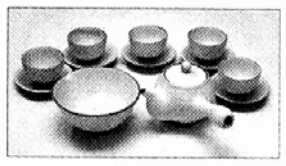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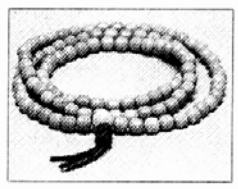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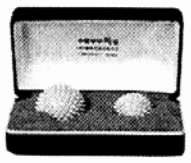
가격:₩3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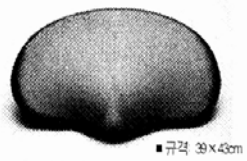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자질 : 천연옥, 우목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훼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일 반 ₩27,000
숯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심음신안 1006-025-009
- 의장등록 1336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4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등+한방향+향꽃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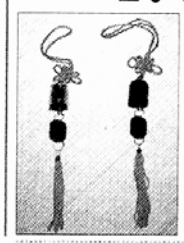
가격: ₩50,0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돌이×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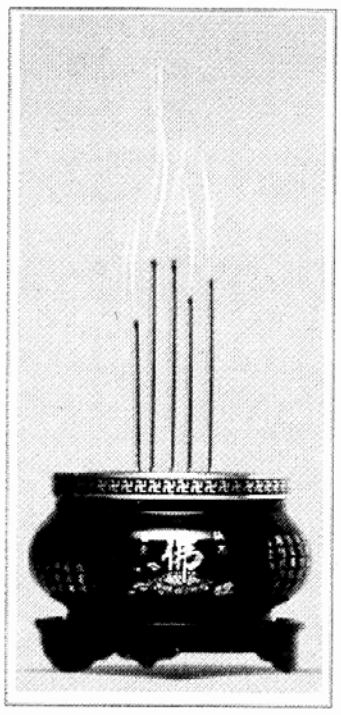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 자연향101 3개세트	₩6,000
◦ 자연향102	₩4,200
◦ 명품향201	₩2,400
◦ 명품향202	₩5,000
◦ 전단향301	₩3,000
◦ 칠성기도향	₩4,000
◦ 수국향(대)	₩5,000
◦ 수국향(중)	₩5,000
◦ 수국불일향	₩3,000
◦ 수국전단향	₩1,000
◦ 수국우리향(대)	₩2,000
◦ 수국우리향(중)	₩2,000
◦ 수국단군향(대)	₩1,000



◦ 수국단군향(중)	₩1,000
◦ 오분향 생기향세트	₩60,000
◦ 만복보원향	₩20,000
◦ 만복한방지함향	₩15,000
◦ 만복백화향	₩15,000
◦ 만복한방지관향	₩13,000
◦ 만복침향	₩10,000
◦ 만복신자단향	₩15,000
◦ 만복천연목향지관	₩15,000
◦ 현상공덕향(지장보살)	₩8,000
◦ 현상공덕향(석가모니불)	₩8,000
◦ 현상공덕향(관세음보살)	₩8,000

향(香)

태워서 향을 피우거나 즙을 낸 향료로 좋은 냄새를 내는 것을 말 하는데 인도 등의 아열대 지방에서는 일찍부터 불결한 냄새를 지우는데 즐겨 사용되어 왔다. 또 불결한 곳에는 신성이 깃들지 않는다는 사고로 신을 모시는 곳에는 언제나 향을 피워 신성이 깃들기를 기원하여 신성을 불러 들이는 매체로 이 향을 사용하게 되었고 불교에서도 초기부터 그대로 채택되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는 대표적인 공양물로 자리잡고 있다.

향은 사용 형태에 따라 바르는 향을 도향,불에 피우는 향을 훈향이라하고 도향은 향수,향유,향약으로,훈향은 황향,말향,연향,선향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도향은 부처님이나, 수행자의 몸에 바르거나,땅에 흩어서 좋은 향기를 내게 하는데 사용되며 어떤 기물에 넣어 벽이나 기둥에 매달아 두기도 한다. 불교 에서의 향의 의미는 사찰의 조석 예불때 다섯가지 향을 올리면서 행하는 예불인 오분향에불을 보면 잘 나타나있는데 계향(戒香),정향(定香),혜향(慧香),해탈향(解脫香),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의 오분향은 부처님의 법신 즉 진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덕성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다. 이때 계향은 대상을 대할 때 마음에 허물이 없이 계를 잘 지킨 무아의 참다운 경지를,정향은 고요한 정의 상태에 머물러 모든 산란이 사라지고 무명의 번뇌를 벗어난 경지를,혜향은 지혜의 힘으로 대상의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알 수 있어 결코 편협된 사고에 빠지지 않는 경지를,해탈향은 모든 분별과 업식에서 벗어나 번뇌를 끊고 미혹의 고에서 풀려서 나오는 경지를,해탈지견향은 해탈한 자의 인식 즉 분별지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무분별지로 무한한 자비가 충만 되어 있는 여래지견의 경지를 각각 의미한다. 불자들이 법당에서 부처님께 향 공양을 올리는 방법은 법당 출입예절을 갖춘 다음 부처님께 오체투지(큰절) 삼배의 예를 올리고 합장한 자세로 어간인 중앙을 피해 한 쪽으로 비킨 위치에서 부처님 앞을 향하여 걸어나가 선 상태로 반배의 예를 올린 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향합에 있는 향을 오른손으로 향의 가운데를 잡아서 한대를 뽑아든다. 향에 불을 붙일 때는 성냥을 켜서 붙이거나 초에 켜있는 불을 이용해도 무방하며 이때 손의 자세는 오른손으로 향의 한 가운데를 잡고 왼손이 오른 손목을 받쳐든 자세이어야 한다. 향에 붙은 불을 끌 때에는 입으로 불어서 끄면 안되며 손바람,손끝,향을 가볍게 흔드는 자세로 향의 불을 꺼야한다. 향에서 연기가 나면 향을 수직으로 받들고 이마 높이까지 올린 다음 잠깐 머문 후 향로에 꽂고 뒷걸음으로 2-3걸음을 물러서서 합장 반배하고 돌아와 자기 자리에 앉거나 다음 의식을 올린다. 이때 법당내에 향이 너무 많이 피어있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해 양보하고 자기가 가지고간 향 공양물은 단상에 놓아두어 따로 공양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의식 중에는 단상의 향이 다 탔거나 헌향 순서가 의식에 포함 되어있을 때에 향 공양을 올리는 것이 법당내에서의 예절이다.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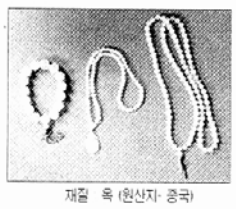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크링 · 골동품 ₩350,000
■개금 ₩580,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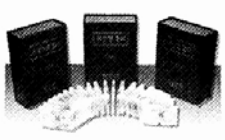
상반신

날개 CD



가격: ₩9,5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6분

■ 가격: 각 ₩25,000

주목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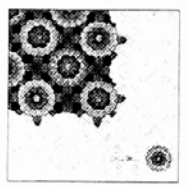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신경미 Flute 소품집(CD)



가격: ₩10,000
테잎 ₩5,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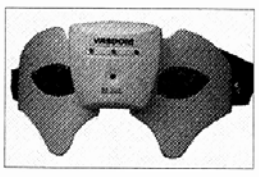
가격:₩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6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빕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면 좋다는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불빛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에도,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 격 : 25,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불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참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열반과 정진

"게을리 지내지 말라. 나도 게을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탈을 이루었다. 한없는 좋은 일은 게으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법에 의지하여 게으름없이 정진하라. 일체 만물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없다."

20일(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 열반재일이다. 부처님 열반절을 맞아 유훈을 곱씹으며 나태하고 방일하지 않았는지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정진해 왔는지 반성해 볼일이다. 우리가 이승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수행을 견고히 하여 무한한 자유의 경지, 나고 죽음이 영원히 없고, 번뇌가 영원히 끊어진 깨달음의 경지만이 죽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참재산이다. 참재산은 영원불변한 진실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열반재일을 맞아 열반의 뜻을 경전에서 다시금 새겨 본다. 〈편집자〉

잠시도 한눈팔지 말고 수행하라

▩열반은 마음으로 식별한다. 올바로 실천하는 성자의 제자는 청정·적정·수승하고 단정하며 가리움이 없고 더럽혀짐이 없는 마음으로 열반을 본다. 〈미린다왕문경〉

▩네 가지 선행이 있어서 열반(涅槃)에 이르는 가까운 원인이 되는바, 첫째는 선지식을 가까이 함이요,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집중함이요, 셋째는 가르침에 생각을 골똘히 함이요, 넷째는 가르침대로 수행함이다. 가르침을 듣는 것에 의해 대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까닭에 대열반(大涅槃)을 얻게 되는 것이니, 비유컨대 의사의 가르침이나 약 이름을 듣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과 같다. 〈열반경〉

▩열반의 뜻은 본래 스스로 있고, 사람의 지은 바가 아니므로 열반이라 한다. 소위 일체의 세간·출세간 내지 유·무 이러한 모든 것을 열반이라 한다. 만일 상을 취하여 분별하면 곧 열반이 아니다. 〈대법거다라니경〉

▩생사를 파괴하지 않고 열반에 주하지 않고 이 두 가지에도 집착하지 아니하여야 원적(圓寂)을 증한다. 〈금광명경〉

▩보시하는 자는 공덕(功德)을 얻고, 자심(慈心)을 지니는 자는 적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이 소멸하고, 탐욕을 떠나는 자는 고뇌가 없다. 만약 이런 수행을 실천한다면, 오래잖아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대반열반경〉

▩온갖 무지·무명의 매임을 다 벗어난 다음에야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열반경〉

▩궁극의 경지에 도달해 있어서 매임도 없고 해탈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의지함도 없어서, 거두어 지닐 수 없으며, 삼계에서 벗어나지 않되 미혹의 세계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도 없고 번뇌도 없으며, 허공과 동등하며, 불평(不平)과도 동등하며, 불평 아닌 것과도 동등하며, 온갖 동요하는 생각이 다하고 표상하는 마음이 종식되었으니, 이런 진실한 모습을 위대한 열반이라 이르느니라. 〈열반경〉

▩바른 생각에 입각해 정진하는 힘을 갖춤으로써 첨곡(諂曲)·해태(海苔)의 생각을 떠나고 생사를 똑똑히 인식하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어서 미혹의 세계의 모든 모습을 떠나게 된다. 〈부자합집경〉

▩물질적 존재는 세 가지 도리를 지니고 있어서 그대로 미혹을 떠난 절대적 존재임을, 보살은 응당 명백히 이해해야 한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물질적 존재는 본성이 없기에 절대적으로 미혹을 떠나 있다는 도리이다. 둘째, 불성이 있는 것이든 불성이 없는 것이든 다 미혹을 떠나 있다는 도리이다. 셋째, 모두가 청정해 미혹을 떠나 있다는 도리이다. 감각·표상·의지적 형성력·인식 작용도 이와 같다. 〈개각자성반야경〉

▩온갖 번뇌를 없애고 최상의 열반을 얻는다면,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저법집요경〉

▩보시가 곧 열반이니 온갖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얻는 때문이며, 지계가 곧 열반이니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생긴 것이 아닌 때문이며, 인욕이 곧 열반이니 하나하나의 생각이 소멸되는 까닭이요, 정진이 곧 열반이니 취사가 없는 까닭이며, 선정이 곧 열반이니 탐닉하지 않는 까닭이며, 반야가 곧 열반이니 유위상(有爲相)을 찾을 수 없는 까닭이다. 〈승사유범천소문경〉

▩탐욕·진에·우치가 길이 다하고, 일체 번뇌가 길이 다한 것을 열반이라 한다. 〈잡아함경〉

신행 캘린더

3월15일 (수)

■이왈종 '중도(中道)' 전시회=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는 19일까지 '중도(中道)'를 주제로 한 이왈종 화백의 전시회가 열린다. 02)720-1020

■위빠사나 선수련회=경기도 남양주 봉인사는 18일까지 '위빠사나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0365)574-5585

■수원불교련 '연꽃' 학술세미나=수원불교연합회는 수원시와 환경운동센터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오후 2시 경기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수생식물 보존 및 연꽃의 상태'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연다. 0331)253-0108

3월16일 (목)

■비룡스님 49재=오전 10시 제주 천왕사에서 지난 1월 28일 입적한 비룡스님의 49재가 봉행된다. 0374)332-6664

■'건강 스트레스 해소법' 특강=능인사회복지관은 오후 2시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을 초청해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주제로 한 특강을 마련한다. 02)571-2988

3월17일 (금)

■'통일의 심리학' 강좌=좋은 벗들에서는 이장호교수(서울대 심리학과)를 초청, 저녁 7시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내안의 분단의식, 통일의 심리학'을 주제로 통일 강좌를 개최한다. 02)587-8996



◇봄은 모든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다. 불교대학 및 전국 사찰과 신행 단체에서는 공부의 시작을 알리는 개강식과 함께 다양한 특강들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초발심 상태로 돌아가 스님들과 석학들의 알찬 강의에 귀 기울여 보자.

3월18일 (토)

■리영희교수 초청 통일특강=조계사는 오후 3시 문화교육관에서 한양대 리영희교수를 초청, '통일의 도덕성'을 주제로 열린강연회를 연다. 02)732-2115

■한국선학회 월례 발표회 및 창립총회=한국선학회는 오후 1시30분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에서 '제1차 월례발표회 및 창립총회'를 갖는다. 02)2260-3135

3월19일 (일)

■터사랑 실상사·구례 산수유마을 답사=터사랑답사회는 구산선문 중 처음으로 문을 연 지리산 실상사를 찾아 간다. 돌아오는 길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만발한 구례 상위 마을을 둘러본다. 역사탐방연구회 정인식선생님이 안내한다. 참가비는 3만5천원. 출발은 오전 7시30분 안국역 앞. 02)725-1284

■명락사 창건 25주년 기념법회=서울 명락사는 오후 2시30분 4층 법당에서 '창건 25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02)889-7272

■병원연합불자회 수덕사·개심사 순례=병원연합불자회는 수덕사로 성지 순례를 떠난다. 돌아오는 길에는 개심사와 서산 마애삼존불을 참배한다. 문의는 각 병원 불자회로 하면 된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통도사부산포교원은 봄을 맞아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기행을 동학사, 갑사, 국제선원 등으로 떠난다. 회비는 2만원. 출발은 오전 6시 구, 부산진구청 앞. 051)816-2241

3월20일 (월)

■조계사 열반재일 천도재=조계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열반재일 천도재를 봉행한다. 02)732-2115

■강남포교원 열반재일 특별법회=강남포교원은 오후 8시 2층 대웅전에서 열반재일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02)539-2631

3월21일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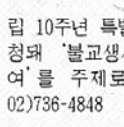
■여래지답사회 화엄사 순례=여래지답사회는 쌍사자석등 등 국보와 보물이 가득한 지리산 화엄사를 순례한다. 이어 지리산 만복대 아래 위치한 상위마을의 산수유도 구경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5천원. 출발은 오전 7시30분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02)3445-0202

■원효사상 국제 학술대회=불교신문사는 오전9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원효사상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2)733-1604

■불교TV 박현 동양학 강좌=불교TV는 오전 10시20분 '나를 다시 하는 동양학'의 저자인 박현씨의 진행으로 유학과 불교 등을 총망라한 동양학 강좌 프로 '바로보는 동양학'을 방영한다. (02)3270-3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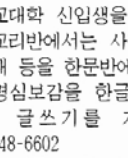
법회안내

19일 쌍계사서 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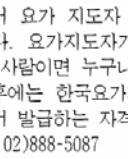
고산 前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19일 쌍계사에서 대구불교대학 '53선지식 친견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53)255-4873

조계사 열반절 법문



정락 수원 용주사 주지스님은 19일 오전 10시 '출가-열반재일 발심 대법회'에 초청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념의 날, 바른 기억'을 주제로 법문한다. 02)720-6742

'참선수행' 주제 법문



성해 선학원 중앙선원장 스님은 18일 저녁 8시45분 '선정회 철야 정진법회'에서 '참선수행'을 주제로 법문한다. (02)732-3327

10돌 기념 특별법문



보광 동국대교수 스님은 23일 오후 7시 '대승회 창립 10주년 특별법회'에 초청돼 '불교생사관에 대하여'를 주제로 법문한다. 02)736-4848

게시판

알림

▲영천 만불회 열반상 점안식=현대불교신문사 안산지사는 26일 영천 만불회 열반상 점안식에 동참할 불자들을 기다린다. 출발은 오전 5시40분 라성호텔 앞. 011)9912-8859

▲구미 금오복지관 '공옥진 자선공연'=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4월10일 오후 7시30분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관 1주년 기념법회 및 홀로 어르신 틀니지원을 위한 공옥진 자선 공연을 개최한다. 0546)451-3040

모집

▲국제 포교사 연수생모집=조계종 포교원은 해외 포교에 주력할 국제 포교사 연수생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조계종 승려 및 신도로 연령은 20세~50세. 접수마감은 28일까지 이며 시험은 4월1일 조계사 불교대학 제2강의실. 02)720-7060

▲어르신 보조 봉사자=청담노인주간보호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자들의 손길을 기다린다. 봉사내용은 어르신들의 입·퇴소시 차량운행 보조, 상담활동, 각종 프로그램 보조 등이다. 02)806-1375

▲레크리에이션 봉사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주 1회 1시간. 02)365-3677

▲청소년 센터 후원물품=월곡청소년센터는 결손가정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생필품, 도서 등의 후원 물품을 기다린다. 02)918-3543

▲천태종 종무원 모집=천태종 총무원은 인터넷 프로그래머와 보일러실 기사 등 직원을 약간명 모집한다. 또 구인사와 각 말사에서 근무할 여직원도 모집한다. 0444)423-7100

▲도시락 배달 자원 봉사자=자양사회복지관은 광진구내 결식 아동과 청소년이 재학하는 학교를 선정해 도시락을 배달할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02)458-1664

▲디지털 청소년 상담실 1기 학생=청주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에서는 문화답사와 봉사활동을 할 '제1기 학생'을 모집한다. 0431)257-0565

강좌

▲한식조리사 자격증=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월·목요일 주2회.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6만원.(재료비 별도 10만원) 02)2282-1100

▲불교교양대학=광명선원은 7월4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전11시에 불교교양대학 강좌를 개설한다. 02)584-1108

▲불교기초교리=능인사는 제4기 불교 기초교리 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초심자를 위한 불교 입문 과정으로 꾸며진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이며 개강은 21일, 수강료는 3만원. 02)772-7029

▲'우리옷 짓기' 초급반=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는 '제4기 우리 옷 짓기' 초급반 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재가연대 법당에서 강의한다. 수강료는 10만원. 02)723-1884

▲박물관 여성 문화강좌=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제6기 여성문화 강좌'를 24일 개설한다. 이번 강좌에는 '전통문화' '현대문화'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현장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2)398-5083

▲불교교리=부천 연흥사는 불교교리반, 한문반, 한글반 등 3개반에 걸쳐 6개월 과정의 연흥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교리반에서는 사찰예절, 경전이해 등을 한문반에서는 천자문, 명심보감을 한글반은 유아대상 글쓰기를 가르친다. 032)348-6602

▲에어로빅=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 에어로빅 강좌를 개설했다. 032)677-0108

▲요가 지도자 교육=한국요가연수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2시부터 요가 지도자 교육을 실시한다. 요가지도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료후에는 한국요가지도자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수여된다. 02)888-5087

▲불교 수화=조계사 장애인포교 원심회는 4월3일부터 3개월동안 불교 수화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월·목요일 저녁7시, 수강료는 4만원. 02)720-4528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문 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대 금 : 35만원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신입생 모집안내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중국·한국불교사)
천수경·반야심경·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입학식
2000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강사
청운 큰스님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
·체계적인 교리 공부,
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경전반 모집안내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입학식
2000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강사
청운 큰스님
■자격
·광운불교대학(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 포교사자격증 수여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수행원

300명 수용가능 현대식 수행법당, 요사채, 사워실, 공양실의 쾌적한 시설과 소리산 16만평의 108토굴 수행처, 행선코스 8km(산림욕, 산책로, 등산로) 약수터(출세봉, 차돌암벽의 특급생수), 바람굴(더운바람, 찬바람 나오는 신비로운 수행처) 나한굴 기도처가 있는 수행전문 청정도량임.

⊙매주 철야 용맹정진 : 토요일 저녁 8시~일요일 아침 8시
※수행내용: 참선, 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정근, 108배, 도인체조건강법, 행선, 와선, 소리산등반, 수행테크닉교육 점검, 축원기도 7회

참선초기 수행자의 염불 수식관 비법 수행(처음공개)
건강 염불 감사 명상 비법공개!

⊙출가예정자, 행자 수행교육 체험 : (7일, 15일, 30일, 49일)
⊙업장소멸, 소원성취, 병고자 특별기도수행
※하루종일 쉬지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행으로 불평불만, 원망심, 탐진치 3독심을 녹이며 소원을 이루는 신심나는 기도법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홧병, 냉병, 감기몸살등을 수행으로 쉽게 극복하는 비법전수
⊙신행단체나 성지순례시 방문하시면 언제나 절대 숨차지 않고 헐덕대지 않으며 단전혈, 용천혈, 노궁혈이 열리고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는 절삼매의 비법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49재, 천도재, 물고기 방생 등의 불공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대명스키장, 산음자연휴양림 5km)
전화 (0338)771-7745 / (011)9088-7745

◆◆◆ 목재 전용 ◆◆◆
방부 · 방충 · 방염 · 방수



◀ 오대산 상원사

WOOD-SEAL (방부 · 방충 · 방염 · 방수)

효과
◆ 문화재,사찰 통나무 주택, 한옥 주택/코팅막이 형성된 이후에도 통기성이 97%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무의 뒤틀림 방지)
◆ 페인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목제품(단청)
◆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투명코팅을 하는 목제품(무광택)

용도
◆나무표면 내부로 침투해 그곳에 뿌리를 둔 코팅 보호막을 형성 (U/V코팅기능)으로 산성비에 강함
◆최소한 5년 보증의 부패방지
◆방염성을 가지게 한다.
◆반 영구적인 방수(수용성, 침투성 2~3m/m)
◆곰팡이, 이끼 발생방지(흰개미), 해충 침입방지
◆통기성(Breathing) 양호 · 1회 시공으로 경비절감

취 - 급 - 품 - 목
⊙ 못으로 시공하는 방수시트
⊙ 퇴색 방지 방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석재 석탄 세척제

목구조주택 보수 문의 환영합니다.

동화특수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등 1589-8 현대B/D 208
TEL: 02)3474-6232(代) FAX: 02)3474-0144
http://www.dongwhalnd.co.kr

범어사 포교 전문화 '첫발'

상임 포교사 4명 위촉…각종 법회 지원
학생회·청년회·합창단 등 계층별 포교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성오)가 4명의 상임포교사를 위촉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적극적인 포교에 나섰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12일 출범식을 갖고 새천년을 맞이한 새로운 포교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범어사는 6일 4명의 상임포교사를 위촉하고 포교의 새장을 열 채비에 나섰다. 이같은 상임포교사 위촉은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대에 맞게 법회 및 각종 신행 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찰 방문객에 대한 포교 등 포교사들의 역할 강화가 절실해 지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져 더욱 뜻깊은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금정중학교 이석언·이종군 교법사, 부산경남포교사단 황소성 단장과 변봉섭 간사 등 상임포교사 4명은 앞으로 범어사내 각종 법회나 신행단체 법회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 상임포교사들은 중·고등부, 사내 청년회, 법륜회, 합창단, 조계종청년연합회 등으로 분야를 나눠 보다 전문화된 계층별 포교활동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게 된다.

이들 4명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경남포교사단에서도 능력과 포교의 욕을 인정받은 이들로 지난해 7월 실시한 포교사 전문화교육을 받고 전문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특히 이석언·이종군 교법사의 상임포교사 위촉은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와 범어사와의 원활한 교류로 종립학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장기적인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석언 법사


◇황소성 법사


◇이종군 법사


◇변봉섭 법사

이와 관련 이석언 교법사는 "포교사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이끌어 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중등부 법회 활성화를 위해 불교상담, 명상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교내 불교서클을 사찰에 자연스럽게 접근시키겠다"고 적극적인 포교의지를 내비쳤다.

범어사 포교국장 지종 스님은 "스님들이 챙기지 못하는 전문분야의 포교에 포교사들이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급 상임포교사를 임명하는 기틀이 되는 첫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포교사제도는 96년 조계종 포교원이 '본말사 포교규정'에 상임포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포교원은 '규정' 초안에 "본사는 포교국 산하에 상임포교사 1인 이상을 임명하여 각종 포교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도법사와는 위상이 다른 상임포교사를 배치, 포교내용과 방법의 구태에서 벗어난 참신한 포교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포교사에 대한 이해가 본사마다 달라 일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유급 상임포교사 제도가 정착된 곳은 직지사 한 군데를 꼽을 수 있을 정도. 직지사 관계자는 "직지사내에는 물론 문경, 예천, 구미지역 말사에도 유급 상임포교사를 두고 있는데 상임포교사제 실시로 어린이법회, 학생회 법회가 가장 뚜렷하게 활성화되었다"고 전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포교, 보다 전문화된 포교가 시대적 요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범어사의 상임포교사 위촉은 "늦었지만 결코 늦지 만은 않은 시도"로 기대와 관심 속에서 포교의 새장을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삼화사 법철스님이 쌍용자원개발 동해사업소 발파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쌍용양회 발파 중단하라"

삼화사 사찰보존법회…환경평가·공청회 촉구

강원도 동해 삼화사(주지 원행)는 6일 오전 삼화사 적광존에서 '삼화사 사찰수행환경보전 대법회'를 봉행하고 쌍용양회측의 석회석 발파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일철, 삼화사 주지 원행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백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석회석 발파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과 공청회 개최 등을 촉구하고, 이같은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범종단적 궐기와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장 일철스님은 "삼화사의 수행환경과 문화재 훼손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남원 실상사가 지리산댐 공사로 훼손 위기에 처하는 등 전국 곳곳의 사찰 수행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총무원을 중심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쌍용자원개발 동해사업소 김영민 소장은 이날 오후 "앞으로 화약 사용량을 줄이고 소음·진동이 약한 공법을 사용하겠다"면서 "양측이 조사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발파작업으로 인한 삼화사의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공동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9일 종회 의장단, 각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삼화사 주위의 석회석 채취 발파중단 결의 촉구안'을 제146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사찰환경보존위원회는 6일 문화관광부, 동해시, 쌍용양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삼화사 수행환경 보존과 문화재보호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동해=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서귀포에 불교연수원 탄생

청호문화원 2층건물 준공
법회·수련회·전시장 활용

국토 최남단 서귀포시에 다목적 불교연수원(사진)이 건립됐다.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이사장 이종대)은 13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대지 1500평(건평 4백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제주연수원 준공식을 거행했다.

법당 및 다목적 강당이 마련돼 불자들의 수련장소 및 각종 강연 및 법회, 전시회, 세미나 장소로 제공되는 이 연수원은 새 이사장인 이종대(83) 거사가 3년전 평생 모은 소유재산인 제주도 감귤농장을 청호불교문화원에 기탁하면서 이뤄진 것. 이 연수원은 서귀포 불교정토거사림(회장 고용봉)이 오는 19일 회관을 이전, 7주년 창립기념법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도 거사불교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제주불교청년회 발족

대불청등 4개단체 통합

제주도내 청년조직과 신행단체들을 통합한 제주불교청년회가 12일 한라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제주불교청년회는 창립대회에서 불교위상 제고와 재가불자 포교활동 강화, 사찰환경정비운동 전개, 적극적인 사회참여 등을 통해 제주불교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불국토 건설에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제주지구와 제주불교법우회, 관음사 청년회, 서귀포불교청년회 등 제주불교청년회 결성을 주도해온 청년단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수 차례 만나 청년 조직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병진)를 구성해 각 신행단체간 통합과 회원모집을 추진해왔다.

부산여성불자회 6돌법회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8일 코리아나뷔페에서 창립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지종스님, 왕선자 회장을 비롯 회원 1백5십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여성불자회의 6년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활동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천미희 기자

간화선·위빠사나 수련
남양주 봉인사 7~26일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는 7일부터 26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봉인사는 7일부터 11일까지, 12일부터 18일까지 두차례 위빠사나 수련회를 개최하고 22일부터 26일까지는 간화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0346) 574-5585 김재경 기자

내원정사 석암장학금
31명 1천6백만원 전달

석암장학회(회장 정련)는 8일 내원정사에서 제51기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했다.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은 2000학년도 1기분 장학금 전달식에서 부산고등학교 이진희 학생을 비롯,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3명에게 총 31명의 학생에게 1천6백5십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석암장학회는 73년 열반한 석암 스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 현재까지 2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천미희 기자

대구 만해백일장
정명영양 시 '꽃' 대상

제81주년 3.1절 기념 만해백일장이 5일 대구 광복회관에서 1백여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이영창)와 광복회 대구경북연합지부(지부장 권준호)가 공동주최한 이날 백일장은 시와 산문 2부문으로 나누어 총 49명의 입상자를 선정했으며, 대구여상 3년 정명영양이 '꽃'이라는 제목으로 대상을 받았다.

종단소식

조계종

염불봉사단 목련회 발족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염불봉사단 '목련회'가 6일 사내 불교문화원 2층 관음전에서 선각스님(도감)을 지도법사로 발족했다. 목련회는 3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1시부터 2시30분까지 염불과 기도, 불교의식, 사찰 예절, 관혼상제 예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불자들의 애경사를 돕는다.(0331)245-7048

실상사 귀농학교 입학식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는 13일 귀농전문학교 입학식을 거행했다. 3개월과정의 귀농전문학교는 초보귀농자 및 실버귀농자들에게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적 귀농교육을 실시한다.

천태종

삼광한글학교 입학식

삼광사(주지 덕수)는 8일 지관전에서 신입생 140명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광한글학교 입학식을 봉행했다. "초발심이 곧 깨달음이라는 마음과 다짐으로 우리 글인 한글을 배우길 바란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가지 배움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각종

회당학술정보원 낙성

위덕대 부설 회당학술정보원(원장 홍욱헌 국제관계학과 교수) 헌공불사(낙성법회)가 16일 오후 1시 경주 위덕대에서 봉행된다. 신축된 회당학술정보원은 연면적 2천850평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중앙도서관(1, 2, 3층)과 전자계산소(4층)가 들어선다.

진각스카우트 지도자 모임

진각스카우트단에서는 2001기 기본훈련 수강생과 진각스카우트 대장들을 대상으로 진각스카우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수강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지도자 모임을 25일 오후 3시 진각문화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총화종

종정추대·원찰 건립 논의

27일 오전 11시 수진사에서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해 현 종정 동광스님 재추대, 원찰건립 추진 상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불이종

맨발 천리국토순례 법회

총무원(원장 학운)은 국가의 안녕과 소외된 국민을 위한 맨발 휠체어 국토 1000리길 고행대법회를 16일부터 4월 9일까지 25일간 봉행한다. 덕암스님 등 7명의 종단 스님들이 맨발순례에 참여하는 이번 국토 대행진 법회에는 특히 각 도의 장애인 8명과 보조인 8명 등도 동참한다. 입제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이며 회향은 4월 9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이다. (0555)572-0022

무량종

청송감호소 위문법회

감찰원장 만오스님(포항 용주사 주지)과 경북종무원장 만법스님(도선사주지)은 3백여 신도들과 함께 8일 경북 청송 제2감호소를 위문, 감호자들과 함께 법회를 갖고 위로했다.

자비종

대한불교 자비종 창종



대한불교 자비종이 3월 1일자로 창종, 서울시 중구 순화동 6-17 혜명빌딩 6층에 총무원을 개설하고 현판식 및 개원식을 가졌다. 자비종의 종정 직무대행 겸 총무원장에는 박삼중스님〈사진〉이 추대됐으며 총본산은 부산 연제구 거제1동 자비사이다. (02)777-0933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 이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최군 합장
서울 종로구 명륜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1999년도 합본집 발간 (5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99년도 합본집' 제5호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5,000원 (발송비 5,000원 포함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代), 02)737-0090(直)



2000년 3·4월호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불교와 문화'가 격월간으로 발간됩니다

'불교와 문화'가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를 지향하며 디지털 시대, 열린 지면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 3·4월호부터 격월간 발행을 시작합니다.

종범 스님의 지상설법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六波羅蜜) - ❶ 보시(布施)
인터넷 정보혁명의 시대를 사는 불자들에게 대승불교 보살의 수행방법인 육바라밀을 통해 올바른 신행방향 및 불교의 역할을 제시한다

집중서평 김용옥 선생의 선불교 이해는 정확하다
- 최근 발간된 변상섭 선생의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에 대한 반박 글

컬러화보 ① 이호신 화백의 생태그림기행 - 그림 속에서 찾는 山水와 가람의 숨결 - 자연이 숨쉬는 상생의 터전, 선암사
- 相生의 시대, 相生의 문화를 꿈꾸는 중견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이 전국 사찰을 직접 답사하며 그린 사찰 경관과 자연생태 그림 시리즈

컬러화보 ② 사진으로 보는 가람의 어제와 오늘
- 삼보사찰,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전각들의 변천사(일제시대와 현재의 모습)를 사진을 통해 비교한다

故 최중호 법사를 추모하며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 그동안 일본 속의 백제불교에 비해 연구가 미약했던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에 대해 현지 답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 소개한다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 고려 공민왕이 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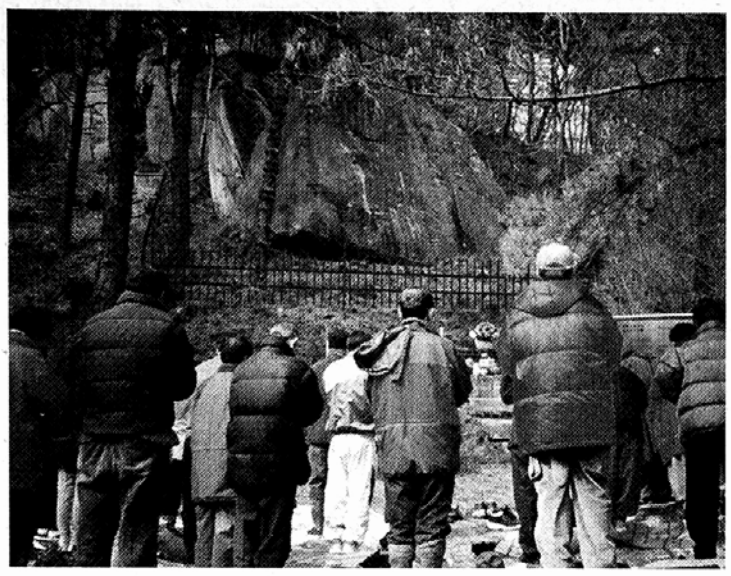
인터넷으로 만나는 세계의 불교, 불교문화
- 최근 세계 불교계의 동향 및 괄리어 불전 전산화 사이트 소개

현대인을 위한 알기쉬운 불교신행
부처님의 가르침,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인가 - 관음신앙편(관음신앙의 특징, 관음기도법, 관음성지 소개)

인물포커스 근·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언론/출판편)
불교방송 초대사장 장상문 거사
전 불교신문 사장 이한상 거사

우리시대의 匠人 - 새 천년을 열어가는 앞서가는 불자
불교인터넷텔레비전 대표 임동민 씨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kbpf@chollian.net



◇ 한국석불선양회는 5일, 천년 가까이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던 이천 아미타여래부처님에게 예불과 공양을 올렸다. 석불선양회는 앞으로도 방치돼 있는 야외 돌부처님을 적극 찾아 공양올리는 등 보호에 나선다.

돌부처님 활짝 웃으시네

석불선양회 이천서 첫 친견법회

"매월 첫째 일요일 공양올려요"

"볕품없는 바위 속에 원만한 모습 나투시어 천오백년 비바람 눈서리에 뜯기고 할퀼수록 자비하신 상호 더욱 빛나시며, 그윽하신 그 미소가 사람으로 화현되어 무명중생 굽어 살펴주시는 구품도사 아미타부처님께 환희심 내어 지심정례하옵니다…"

5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적한 야산에 있는 마애여래부처님 앞에 쌀 꽃 과일 초 향 등 소담한 공양물이 올려지고 발원문이 메아리쳤다. 사람들이 찾기 쉽지 않은, 인적없는 야산 바위면에 모셔져 있는 아미타여래부처님. 그 앞에서 동산불교대학 14기와 통일정사 신도 등 40명으로 이뤄진 한국석불선양회(지도법사 최혜명)는 제1회 돌부처님 공양법회를 가졌다.

소고리 돌부처님께 공양이 올려진 것이 얼마만일까? 제작시기가 고려초(10세기)로 추정되므로 모르긴 몰라도 천년 가까이 방치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불자들의 예불과 공양을 받은 것은 아닐까.

석불선양회는 먼저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는 정화작업부터 시작했다. 부처님 앞에 정성껏 마련한 공양물을 차리고 삼귀의, 찬불가, 천수경, 발원문과 아미타부처님에 어울리게 아미타 48대원과 아미타경을 40명이 마음을 모아 한목소리로 독송했다. 독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원 한명 한명은 부처님전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삼배를 올렸다.

오래간만에 예경의 뜻을 모은 정성어린 공양을 받아서일까, 여래불의 은은한 미소가 더욱 활짝 피어난 듯이 느껴졌다. 문화재 전문가들이나 학생들이 연구차 찾은 것이 아니라 원력과 공경이 담뿍 든 보통의 불자들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부처님께 전해졌기 때문이리라.

본지가 98년부터 99년에 걸쳐 지상에 연재한 '돌부처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보고 야외 부처님에게도 공양올리자는 원을 세웠다는 혜명법사는 "전각안에 봉안돼 있는 부처님뿐 아니라 들판이나 산 속에 있는 불 보살들도 모두 귀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 행사로 인해 야외에 방치되거나 미지정 성보문화재에도 교계가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성될 당시에는 신심으로 귀하게 모셔졌겠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망실돼가는 야외 돌부처님들이 안타깝게 생각되어 친견과 더불어 공양올리는 모임인 석불선양회를 결성하게 되었다"는 이귀인 간사는 "매월 첫 일요일에 갖는 법회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석불선양회는 이날 이천 마장면 장암리 태평홍국명 마애보살좌상도 친견했다. 석불선양회는 4월에는 안성의 마애불을 찾는다. 문의 (016-267-7945) 이천=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병마와 싸우며 거조암 5백나한 화폭에 담았다

주부화가 이숙일씨

한 주부화가가 2년여에 걸쳐 병마와 투쟁하며 거조암 5백나한을 화폭에 담아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독실한 불교신자이자 나상회(裸像會)·일요화가회 회원이었던 이숙일씨(44, 대구시 북구 대현3동)

이씨는 거조암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과 5백 아라한, 10대 제자와 16성을 지난 97년부터 15호 80호 120호 크기의 화폭에 유화로 그리기 시작, 총 529위를 담은 518점의 작품을 최근 완성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10개 전시실에 동시 전시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다.

후두암 수술을 받는 등 병마에 시달리던 이씨는 영산전 좌대불사가 한창이던 지난 96년 거조암을 방문, 가건물에 옮겨져 있던 나한에 압도돼 그림으로 재현하겠다는 발원을 했다. 이씨는 사찰측의 사정으로 현장 묘사가 어렵게 되자 사진자료를 토대로 하루에 1~3점씩 그렸으며, 나한상마다의 독특한 표정과 색감을 강렬하게 재현해냈다. 본래의 나한상에는 없던 웃과 색감, 그리고 희노애락 등의 감정은 전적으로 영감에 의지해 표현했으며 이를 두고 이씨는 "제가 나한님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나한님이 저를 통해 화폭에 나투신 것"이라고 말했다. (053)956-0577 이윤호 기자

봄볕과 연꽃의 만남

인취사, 4월4일 백련뿌리 나눠주기

수원시민단체, 15일부터 '연꽃축제'

7~9월이면 어김없이 연못을 장엄하는 연꽃. 제철도 아닌 때이른 요즘 연꽃바람이 벌써부터 불고 있다.

충남 온양 인취사(주지 혜민)는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과 공동으로 오는 4월4일 인취사에서 일반인들에게 백련뿌리 나눠주기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백련을 심고 가꾸면서 백련같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자는 것. 1인당 1뿌리씩 모두 3천뿌리가 제공된다. (0418)542-6441

백련은 꽃 자체가 순백색인 연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강진군 금당지와 인취사 두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연꽃. 간혹 꽃잎 끝부분에 붉은 기운이 도는 것도 백련이라 하지만 인취사가 제공할 백련은 말 그대로 꽃 전체가 흰 진짜 백련이다.

백련이 귀한 이유는 홍련보다 뿌리가 약해서 아무 곳에서나 쉽게 자라지 않기 때문. 따라서 인취사는 백련을 나누어주면서 백련을 기르는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팜플렛을 백련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혜민스님은 "연꽃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모두가 연꽃을 바라보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불교연합회 등 수원내 25개 불교 및 시민단체들이 모인 아름다운 수원만들기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성관·박희영)가 이달 15일부터 4월말까지 여는 연꽃종합축제 형식의 각종 이벤트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연꽃의 유명한 서식지로 전해져왔던 수원의 문화복원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

우선 15일 오후 2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수생식물 보존 및 연꽃의 생태에 관한 세미나'가 '연꽃과 한국의 전통음식' '한국인의 심성에 비친 연꽃' 등 6개 주제아래 펼쳐진다. 이어 4월16일 오후2시 만석공원에서는 연꽃심기 행사 및 문화행사가 4월11~24일까지는 '선암스님 연꽃사진전' '무운 김기중 생채화전' 등이 수원미술전시관에서 계속된다. (0331)225-3520 한명우 기자

통일신라 대형사찰터 발굴

화순 평야지대서… '공림사' 등 새긴 기와 나와

전남 화순군 평야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공림사 터가 발굴돼 호남지방 불교 유적에 중요한 목록을 하나 추가하게 됐다.

전남대 박물관(발굴책임자 임영진 교수)팀은 이곳에서 '공림사'와 '능성군'이란 글씨가 새겨진 기와 조각들과 다양한 무늬의 막새기와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능성군'은 화순군 능주면의 옛 이름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공림사는 조선 태종대에 자복사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지급 받았던 242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자복사란 국가에서 사찰의 격을 평가, 직접 관리했던 조선시대의 '사찰관리제도'이다.

현지를 둘러본 한병삼 전 중앙박물관장은 "축조연대가 통일신라시대로 올라가는 사찰이 이처럼 큰 규모로 발견된 예가 드물다"며 "완전한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림사 터는 지난 95년 국토관리청이 지표조사와 시굴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유구층이 나오자, 전남대 박물관팀이 구제발굴에 나서 발견됐다. 오종욱 기자



의성 만장사 인근서 석조여래좌상 발견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사진)이 발견됐다.

동국대 박물관장 장충식(미술사학) 교수는 최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 1리 화장산 7부 능선 만장사 인근에서 발견된 총높이 2.18m, 폭 1.15m(좌대포함) 석조여래좌상을 감정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정치인 참회하라"

종교계 총선연대 촉구

불교·기독교·천주교총선연대는 10일 명동성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은 더 이상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말고, 공천 부적격자들은 진실로 참회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명진스님은 '현 시국에 대한 종교인 공동 성명서'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드리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는 이후 민족의 분열과 불신을 고착되게 할 수 있는 망국적 현실로 드러날 수 있기에 심히 우려된다"며 "이 땅의 부정과 불신의 근본원인인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참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총선연대는 13일 명동성당, 16일 오후7시 기독교회관,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3차에 걸친 '정치개혁과 지역감정 추방을 위한 종교인 연합집회'를 개최하고 13일부터 4월12일까지 매주 월요일 교단별로 부패 정치인의 참회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태고종 북한포교기금 모금키로

태고종이 올해 종무행정 3대 사업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포교 불사에 본격 나선다.

태고종 전국 각 시 도 교구 종무원장 및 간부 스님들은 7일 종무처 설법전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총무원과 전국 2천6백여 사암의 적극적인 동참을 받아 오는 5월 31일까지 북한불교도 돕기 및 대북포교 기금 1억 5백만원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스님들은 "남북불교교류의 물꼬를 트고, 나아가 통일이후의 북한포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불교도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성금 모금운동을 종단적으로 적극 펼쳐가기로 했다. 이번 성금모금에는 각 교구 종무원에서 5백만원, 봉원사 5백만원 전국교임협 5백만원 전국신도회 6백만원 등 주요 사찰과 종무원, 단체 등이 모금액을 정해 기금모금에 앞장선다. 이경숙 기자

뉴스 & 뉴스

자원봉사 시민대학 개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이달 20일부터 6월28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제11회 자원봉사시민대학 2000년 봄학기 강좌'를 연다.

자원봉사시민대학의 이번 봄학기 강좌에는 수지침·원왕생·불교호스피스·수의·수화·환경교육 등 6개 과목이 마련돼 있다.모든 강의는 무료이며, 수강생은 수료 후 상담을 거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02)723-6258 한명우 기자

위안부할머니 2명 귀국추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던 할머니 2명이 중국에서 영구 귀국해 나눔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게 됐다. 나눔의 집(원장 혜진)은 최근 이옥선(73)·지돌이(77) 할머니에 대해 빠르면 5월경 귀국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두 할머니의 귀국을 돕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나눔의 집은 12일 서울 종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일일찻집을 열었다. 한명우 기자

아미타회 장례법당 개원

대한불교법사회 녹야원이 운영하는 불교장례포교단체인 아미타상조회(회장 박형권)가 대전 유성구에 불교장례법당 극락왕생전을 마련하고 11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새로 신축된 유성포교당내에 설치된 극락왕생전은 분향실, 안치실, 주방 및 식당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한명우 기자

한불청 13명에 장학금 전달

한국불교청년회(회장 김도각스님)는 1일 달마선원에서 모범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한국불교청년회 회원과 태고종 소속 승려 권속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초 중 고 대학생 13명으로 각각 30만원씩 총 330만원이 전달됐다. 이경숙 기자

'양원제 종회실시' 거듭촉구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는 3일 타워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2월15일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을 만나 건의했던 양원제 종회 실시, 대사면 등을 거듭 촉구했다. 〈본지 259호 5면기사 참조〉

이날 총회에서 손현수 총재는 건강한 불교건설을 위해 조건없는 대사면을 실시하고, 세속법에 의해 계류중인 종단사태와 관련한 모든 송사를 전면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강지연 기자

병원불자회 수덕사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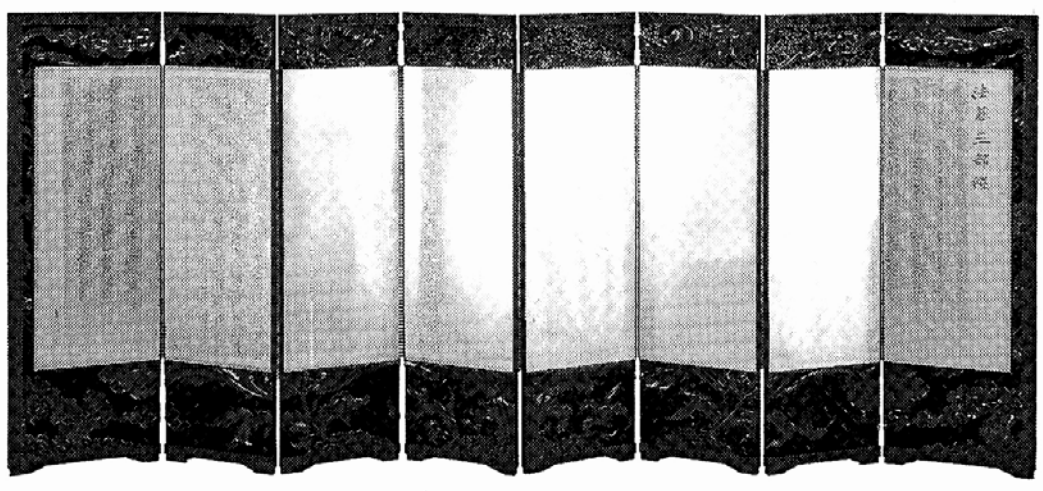
병원불자회가 19일 수덕사로 연합성지순례를 떠난다. 성지순례에서는 수덕사를 비롯해 개심사, 서산마애삼존불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병원불자회 활동 등을 소개하며 교류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02)720-7060 강지연 기자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범문,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① 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낭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 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 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 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 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 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 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 334-9490, (0335) 334-9491
야간 : (0342) 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주부신행담

부처님 아니계신 곳 없으니 ㊤



그림 · 이준석

나는 전생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지중했던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갔었다. 그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이었다. 친구들이교회에가면 맛있는 것과 선물을 많이 준다는 소리에 솔깃해서 따라 갔던 것이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온 몸이 으스스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아멘' 소리도 듣기 싫었다. 더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선물의 유혹도 뿌리치고 서둘러 교회를나왔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있어도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남 송광사로 수학여행을 갔다. 송광사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보고어린 마음에도 어찌나 환희심이 나던지 넋을잃고 부처님의 상호를 쳐다봤다. 또 향내음이 왜 그리도 좋던지. 전생에 불연이 있었기에 이러한가 혼자 생각해 보곤 한다.

1학년 나는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다. 하고 보니 시댁은 기독교 집안이었고남편은 장남이었다. 내가 기독교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니 부처님게 귀의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집안이라 해서 싫은 내색 보이지 않고 묵묵히 생활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교회로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쓰셨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시지 않게 "네"란 대답만 드릴 뿐 가게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가족들 몰래 불경을 공부했다.

경전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열심히 독경하고, 불교서적도 많이 탐독했다.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까지 쳐가며 공부를 하다보니 〈반야심경〉등 법회 때 제일 많이 독송되는 경들이 줄줄 외워졌다.

결혼한지 3년 후인 13년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년후 1주기 제사를 시어머니 뜻대로 기독교식인 추도식으로 모신후 큰 사고가 일어났다. 누가 보아도 차사고가날 장소가 아닌 가게앞에서사고가 난 것이다. 밤에 잠을 자려다말고 남편이 가게 앞에 세워놓은 차에 탔는데 큰 사고가 났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나가는 남편을 극구 말릴 것을 하고 후회를 하게되었다. 왜자려다 말고 나갔느냐고 묻는나에게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뭔가 끌리는 듯하고 자꾸마음과 달리 몸이 말을듣지 않았다고 했다. 나로서는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큰 사고였다.

그 후 우리부부는 사고 수습을 하느라 며칠은 가게일도볼 수 없을 정도로정신이 없었다. 나는 시아버지께서 제사를 유교식으로 모셔줄 것을 원하시어 장남인 우리 부부를 깨우쳐 주시려고 잠자려던 남편을 이끌고 나가 큰 사고를 내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얼토당토한 의심이 자꾸만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어길수가 없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해 또다시 우리 집안엔 시련이 닥쳐왔다. 그때도 시어머니의 뜻대로 시아버지제사를 추도식으로 모신후였다. 당시 6살이던 아들이 가게 앞에서 놀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치어 어깨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한 달이나 입원을 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시아버지 제사를 추도식으로 지낸 다음 계속적으로 일어났기에 마음이 찜찜했지만 차마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큰 시누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테니 올케가 기독교식이 아닌 전통식으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시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남편과 상의를 하여 전통식으로 모시기로 했다. 그 후법현스님이 쓰신 불교식으로 제사모시는 법에 대한 글을 읽고지금은 불교식으로 모시고 있다.

그후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큰 사고없이 잘 지내고 있다. 아마 기독교 집안 맏며느리이지만 불교와의 인연이 있는 나를 일깨워주려고 그러한 어려움이있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꿈에 흰옷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엿구리서 뱀한마리를 떼어낸 후 두통과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그후부터 나는 더욱더 발심을 해 불교공부에 본격 매진했다. 절에 가야 부처님을 만나뵐수 있고 절에 가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처처마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께 나는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읽고 관음정근, 발원문, 순으로 하루도 빠지지않고 기도정진을 하였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불보살님을관하고 나는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런데 나는 몸이 너무나 아픈 시련을 겪어야 했다. 머리가 터질 것같은 통증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며칠을 생활해야 했다. 내가 몸져 눕자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했던가. 위장병까지 생겨 소화가 되지 않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은 나오지 않고 신경성이라고만 할뿐이었다.

나는 불보살님께 의지하고픈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나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했다. 어느날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간절히 부르다 잠이들었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 한분이 내 엿구리에서 뱀 한마리를 떼어내 어느 바위에 던지니 그 뱀이 바위에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꿈을 꾸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며칠을 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리던 나는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웠다.

불보살님이 나에게 감응해주신 것인가! 나는 은혜에 보답드리고자 더욱더 발심을 내어 기도정진하게 되었다. 나는 더 큰 발심을하고 가족들 몰래 가까운절로 새벽기도를 다녔다.

하루종일 가게 보느라 피곤했지만 새벽기도에 동참하여 부처님을 만난다는 환희로움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다니며 날마다 108배를 했다.

그렇게 기도정진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밤마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며칠 동안이나 보였다. 아버지께서 천도를 원하심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가족들 몰래 절에다 아버지 영가위패를 모시고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영가를 위해 기도를 했다. 집에서는 49일 동안 〈지장경〉1품에서 13품까지 독송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틈부다라니는 21번, 광명진언은 108번, 지장정근은 1080번을 염송했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기도도 했다.

나는 49일 기도 회향 후 깨끗한 모래를 구해서 일곱 번 씻어말려서 하루에 광명진언 108번씩 염송하기를 21일 동안 했다. 그리고는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골에 모셔진 아버지 산소에 가서뿌려 드렸다.

그날 밤 또 꿈을 꾸었다. 어느 할머니 한 분과 아버지, 두분이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다. 할머니께서는방에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하늘에서 밝은 광채가 나는 꿈을 꾸었다. 그 후로그렇게 꿈에 보이시던 아버지께서 꿈에나타나지를 않으셨다. 천도가 된 것으로 생각해 마음이 가벼웠다.

그리고 어느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께서 나를 어느 깊은 산 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엔 남은잔디밭이 있었다. 잔디 위에는 집 한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남편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꿈을 꾸고 난 후 기독교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이 내가 정식으로 절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운이 있게 됐다. 〈계속〉

김갑숙〈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 비단 연잎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팔모주름등 (핑크)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최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8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개국 10 주년
www.bbsfm.co.kr



서울 FM 101.9MHz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대구 FM 94.5MHz
청주 FM 96.7MHz

진흙속의 연꽃 처럼
다시 피어나겠습니다

불자들의 염원속에 태어난 불교방송이 영광과 시련의
10년을 뒤로하고 새천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불교방송은 개국 10주년을 맞아 부처님 법음을 전파하는
미디어로서 새롭게 태어나 혼탁한 세상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불자여러분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포교의 첨병이 되겠습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 ·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02)705-5114/FAX(02)705-5229
후원회 ARS전화 (02)700-0108